

저자 許叔微

국역 박상영

국역

傷寒九十論



9 788959 704699
ISBN 978-89-5970-469-9(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상한구십론 傷寒九十論	1.1
【01】계지탕에 작약을 쓰는 병증에 대한 변별 辯桂枝湯用芍藥證 一	
【02】계지가부자탕증 桂枝加附子湯證 二	1.1.2 1.1.1
【03】계지가후박행자탕증 桂枝加厚朴杏子湯證 三	1.1.3
【04】마황탕증 麻黃湯證 四	1.1.4
【05】대청룡탕증 大靑龍湯證 五	1.1.5
【06】양명병에 하법을 쓸 수 있는 병증 陽明可下證 六	1.1.6
【07】양명병에 밀태법을 쓰는 병증 陽明蜜兌證 七	1.1.7
【08】신허양탈증 腎虛陽脫證 八	1.1.8
【09】배꼽에서 피가 나는 병증 臍中出血證 九	1.1.9
【10】음 속에 양이 숨은 병증 陰中伏陽證 十	1.1.10
【11】상한으로 갑자기 죽은 병증 傷寒暴死證 十一	1.1.11
【12】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병증 夜間不眠證 十二	1.1.12
【13】대시호탕증 大柴胡湯證 十三	1.1.13
【14】양명병에 급히 공하해야 하는 병증 陽明急下證 十四	1.1.14
【15】상한이 저절로 풀리는 병증 傷寒自解證 十五	1.1.15
【16】열이 혈실에 들어간 병증 熱入血室證 十六	1.1.16
【17】근육이 경련하는 병증 筋惕肉瞤證 十七	1.1.17

【18】양명병에 공하해야 하는 병증 陽明當下證 十八	1.1.18
【19】계지가갈근탕증 桂枝加葛根湯證 十九	1.1.19
【20】갈근탕증 葛根湯證 二十	1.1.20
【21】강치증 剛瘥證 二十一	1.1.21
【22】궤음증 厥陰證 二十二	1.1.22
【23】태음증 太陰證 二十三	1.1.23
【24】태양중갈증 太陽中暍證 二十四	1.1.24
【25】손톱이 검푸르게 되는 병증 指甲黑靑證 二十五	1.1.25
【26】눈을 부릅뜬 채 앞쪽만 보는 병증 瞪目直視證 二十六	1.1.26
【27】혀가 말리고 음낭이 쪼그라드는 병증 舌卷囊縮證 二十七	1.1.27
【28】옷을 만지작거리고 침상을 더듬는 병증 循衣摸牀證 二十八	1.1.28
【29】사독(邪毒)이 큰 경락 속으로 흘러들어간 병증 邪入大經證 二十九	
【30】태양계지증 太陽桂枝證 三十	1.1.30 1.1.29
【31】계지탕증 桂枝證 三十一	1.1.31
【32】소음증 少陰證 三十二	1.1.32
【33】소양증 少陽證 三十三	1.1.33
【34】양감증 兩感證 三十四	1.1.34
【35】삼양합병증 三陽合病證 三十五	1.1.35
【36】백호가인삼탕증 白虎加人參湯證 三十六	1.1.36
【37】발열오한증 發熱惡寒證 三十七	1.1.37
【38】결흉에 하법을 쓸 수 있는 병증 結胸可下證 三十八	1.1.38
【39】결흉에 뜸을 뜸 수 있는 병증 結胸可灸證 三十九	1.1.39
【40】땀이 난 후에 딸꾹질이 나는 병증 汗後呃逆證 四十	1.1.40

【41】누풍증 漏風證 四十一	1.1.41
【42】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병증 小便出血證 四十二	1.1.42
【43】임신 중 상한을 앓아 다리가 붓는 병증 妊娠傷寒脚腫證 四十三	
【44】풍온증 風溫證 四十四	1.1.44 1.1.43
【45】호혹증 狐惑證 四十五	1.1.45
【46】황달증 發黃證 四十六	1.1.46
【47】한습황달증 濕家發黃證 四十七	1.1.47
【48】기도에 사기가 침범하여 황달이 발생한 병증 黃入清道證 四十八	
【49】먼저 땀이 나게 한 뒤에 변이 나오게 해야 하는 병증 先汗後下	1.1.48
證 四十九	1.1.49
【50】태양어혈증 太陽瘀血證 五十	1.1.50
【51】음병에 양맥이 나타난 병증 陰病陽脈證 五十一	1.1.51
【52】소음병에 맥이 긴한 것에 대한 변증 辯少陰脈緊證 五十二	1.1.52
【53】청근견인증 靑筋牽引證 五十三	1.1.53
【54】농혈 섞인 변을 누는 병증 下膿血證 五十四	1.1.54
【55】양명증의 침 치료 刺陽明證 五十五	1.1.55
【56】음양교증 陰陽交證 五十六	1.1.56
【57】음양역증 陰陽易證 五十七	1.1.57
【58】손을 교차하여 가슴을 덮는 병증 叉手冒心證 五十八	1.1.58
【59】상한에 귀가 먹은 병증 傷寒耳聾證 五十九	1.1.59
【60】손을 휘젓고 발을 구르는 병증 揚手躑足證 六十	1.1.60
【61】유뇨증 遺尿證 六十一	1.1.61
【62】혀에 미끄러운 설태가 끼는 병증 舌上滑胎證 六十二	1.1.62
【63】코피를 흘리는 증 衄血證 六十三	1.1.63

【64】상한에 옆구리가 아픈 병증 傷寒脅痛證 六十四	1.1.64
【65】상한온학증 傷寒溫瘧證 六十五	1.1.65
【66】반진이 생기는 병증 發斑證 六十六	1.1.66
【67】장결증 臟結證 六十七	1.1.67
【68】양결증 陽結證 六十八	1.1.68
【69】상한협열리증 傷寒協熱利證 六十九	1.1.69
【70】위(胃)에 열이 있어 구토하는 병증 胃熱嘔吐證 七十	1.1.70
【71】곽란으로 근이 뒤틀리는 병증 霍亂轉筋證 七十一	1.1.71
【72】양쪽 정강이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병증 兩脛逆冷證 七十二	1.1.72
【73】땀을 내어 나은 후 정신적 과로로 인해 재발한 병증 汗後勞復證 七十三	1.1.73
【74】땀낸 후의 창양증 汗後瘡瘍證 七十四	1.1.74
【75】얼굴에 때가 끼고 오한이 드는 병증 面垢惡寒證 七十五	1.1.75
【76】상한으로 설사하는 병증 傷寒下利證 七十六	1.1.76
【77】상한에 눈을 감고 있는 병증 傷寒閉目證 七十七	1.1.77
【78】상한표실증 傷寒表實證 七十八	1.1.78
【79】손발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병증 手足逆冷證 七十九	1.1.79
【80】한열을 동반한 유사한증 寒熱類傷寒證 八十	1.1.80
【81】땀을 내는 시기를 놓쳐 코피가 나는 병증 失汗衄血證 八十一	1.1.81
【82】비약증 脾約證 八十二	1.1.82
【83】격양관음증 格陽關陰證 八十三	1.1.83
【84】태양양명합병증 太陽陽明合病證 八十四	1.1.84
【85】오뇌불울증 懊惱怫鬱證 八十五	1.1.85
【86】두 손으로 허공을 움켜쥐는 병증 兩手撮空證 八十六	1.1.86

【87】설사에 소승기탕을 복용하는 병증 下利服承氣湯證 八十七	1.1.87
【88】습온증 濕溫證 八十八	1.1.88
【89】혈결흉증 血結胸證 八十九	1.1.89
【90】육양경의 기가 모두 끊긴 병증 六陽俱絕證 九十	1.1.90

출판

출판사항	2.1
------	-----

傷寒九十論 상한구십론

宋許叔微撰

송대 허숙미(許叔微, 1079~1154) 찬

¹ 叔微字知可, 或曰揚州人, 或曰毗陵人. 惟曾敏行《獨醒雜志》作眞州人, 二人同時, 當不誤也. 紹興二年進士. 醫家謂之許學士. 宋代詞臣率以學士爲通稱, 不知所歷何官也. 是書載經驗諸方, 兼記醫案, 故以本事爲名. 朱國禎《湧幢小品》載: "叔微嘗獲鄉荐, 春闈不利而歸. 舟次平望, 夢白衣人勸學醫, 遂得盧扁之妙. 凡有病者, 診候與藥, 不取其直. 晚歲取平生已試之方, 竝記其事實, 以爲《本事方》, 取《本事詩》之例以名之"云云, 卽指此書. 然考《獨醒雜志》, 叔微雖有夢見神人事, 而學醫則在其前, 不知國禎何本也. 叔微於診治之術最爲精詣, 故姚寬《西溪叢語》稱許叔微精於醫, 載其"論肺蟲上行"一條, 以爲微論. 其書屬辭簡雅, 不諧於俗, 故明以來不甚傳布. 此本從宋槧鈔出, 其中凡丸字皆作圓, 猶是漢張機《傷寒論》、《金匱要略》舊例也. 國禎又記叔微所著尚有《擬傷寒歌》三卷, 凡百篇. 又有《治法》八十一篇及《仲景脈法》三十六圖, 《翼傷寒論》二卷, 《辨類》五卷, 今皆未見傳本, 疑其散佚矣.

허숙미의 자는 지가(知可)이며, 양주(揚州)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릉(毗陵)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오직 증민행(曾敏行, 1118~1175)의 《독성잡지(獨醒雜志)》에만 그가 진주(眞州) 출신이라고 기록했는데, 허숙미와 증민행 두 사람이 동시대 인물이므로 당연히 오류는 아닐 것이다. 허숙미는 소흥(紹興) 2년(1132)에 진사가 되어, 의학자들은 그를 '허학사(許學士)'라고 불렀다. 그런데 송대의 사신(詞臣)들은 대체로 '학사(學士)'를 통상적인 호칭으로 생각했으므로, 그가 어떤 관직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은 경험적인 여러 처방을 수록하고, 아울러 의안(醫案)까지 기록하였으므로 '본사(本事, 의학 본연의 업무)'를 책의 이름으로 삼았다. 주국정(朱國禎, 1558~1632)은 《용당소품(湧幢小品)》에서 "허숙미가 일찍이 향천(鄉薦)으로 뽑혀 진사시에 응

시켰지만, 춘위(春閨)에서 합격하지 못한 채 낙향했다. 돌아오는 배가 평망(平望)에 머물 때,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의술을 배울 것을 권유했고, 마침내 노국(盧國) 출신의 편작(扁鵲)과 같은 신묘함을 얻었다. 만약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환자의 징후를 진찰하고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만년(晩年)에 그는 평생 자신이 시험한 처방을 모으고, 아울러 그 처방과 관련한 사실을 기록하여 《본사방》이라고 명명했으니, 《본사시(本事詩)》의 예를 차용하여 책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고 기록하였다. 위의 글에서 말한 《본사방》은 바로 이 책을 가리킨다. 그러나 《독성잡지》를 살펴보면, 허숙미가 꿈속에서 신인(神人)을 보았다는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의술을 배운 시점은 그 꿈을 꾸기 전이었으니, 주국정이 무슨 책에 근거하여 그렇게 서술했는지는 알 수 없다. 허숙미는 진단과 치료의 기술에 가장 정교하고 조예가 깊었으므로, 요관(姚寬, 1104~1162)의 《서계총어(西溪叢語)》에서는 허숙미가 의술에 정교하다고 말하면서, 〈폐충(肺蟲)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를 논함〉이라는 조목 하나를 싣고 이 글을 허숙미의 논술로 간주했다. 이 책은 문장이 간결하고 단아하여 세속과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명대 이후 그다지 전파·유포되지 못했다. 이 판본은 송대 판본을 베낀 것으로, 그 내용 중 '환(丸)'자는 모두 '원(圓)'자로 되어 있으니, 여전히 한대 장기(張機, 150?~219?)의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의 옛 체례를 따른 것이다. 주국정이 허숙미의 저작으로 기록한 것 중에는 《의상한가(擬傷寒歌)》 3권 총 100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치법(治法)》 81편과 《중경맥법(仲景脈法)》 36도(圖), 《익상한론(翼傷寒論)》 2권, 《변류(辨類)》 5권도 그의 저작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두 통행본을 볼 수 없으니, 아마도 흩어져 사라진 것 같다.

1. 아래 본문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의학고전DB의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가져온 것이다. ※역자주 ↩



辯桂枝湯用芍藥證 一

【01】계지탕에 작약을 쓰는 병증에 대한 변별

馬亨道庚戌春病, 發熱頭疼, 鼻鳴惡心, 自汗惡風, 宛然桂枝證也. 時賊馬¹破儀眞²三日矣, 市無芍藥, 自指園園, 采芍藥以利劑. 一醫曰: "此赤芍藥耳. 安可用也?" 予曰: "此正當用." 再啜而微汗解.

마형도(馬亨道)가 경술년 [1130] 봄에 병들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오심이 있으며 자한이 나고 오통이 있으니, 분명 계지탕증이 었다. 그때는 마침 도적의 기병들이 의진(儀眞)을 사흘 동안 파괴하여 시장에 는 작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밭을 가리킨 후 작약을 캐어 처방을 온전히 갖 추고자 하였다. 어떤 의원이 "이것은 적작약입니다.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기에, 나는 "이것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고 말하였다. 환자가 2번 복용하니 땀이 약간 나면서 병이 풀렸다.

論曰: 仲景桂枝加減法, 十有九證, 但云芍藥; 《聖惠方》皆稱赤芍藥; 《孫尚藥方》³皆曰白芍藥. 《聖惠方》, 太宗朝翰林王懷隱編集, 孫兆⁴爲國朝醫師, 不應如此背戾. 然赤者利, 白者補. 予嘗以此難名醫, 皆愕然失措. 謹案《神農本草》稱: "芍藥主邪氣腹痛, 利小便, 通順血脈, 利膀胱大小腸, 時行寒熱", 則全是赤芍藥也. 又桂枝第九證云: "微寒者, 去赤芍藥", 蓋懼芍藥之寒也. 惟芍藥甘草湯一證云白芍藥, 謂其兩脛拘急, 血寒也, 故用白芍藥以補, 非此時也. 《素問》云: "濇者, 陽氣有餘也. 陽氣有餘, 爲身熱無汗, 陰氣有餘, 爲多汗身寒." 傷寒脈溢, 身熱無汗, 蓋邪中陰氣, 故陽有餘, 非麻黃不能發散; 中風脈滑, 多汗身寒, 蓋邪中陽, 故陰有餘, 非赤芍藥不能刮其陰邪. 然則桂枝用芍藥赤者明矣. 當參《百證歌》.

〔논〕 장중경의 계지탕의 가감법에는 모두 19증(證)이 있지만 '작약'이라고만 하였고,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에는 모두 '적작약'이라고 하였으며, 《손상약방孫尚藥方》에는 모두 '백작약'이라고 하였다. 《태평성혜방》은 태종조의 한림

왕희은(王懷隱)이 편집한 것이고 손조(孫兆)는 우리 조정의 의사인데, 이처럼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적작약은 이제(利劑)로 쓰고 백작약은 보제(補劑)로 쓰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이것으로 명의들을 힐난했더니 모두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신농본초경》을 살펴보니 "작약은 사기로 인해 배가 아픈 것을 주로 치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利) 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방광과 대소장을 통리시켜주며(利) 계절성 전염병으로 인한 한열증에 쓴다."고 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적작약을 이르는 것이다. 또 계지탕증의 제9증에 "약간 오한이 나면 적작약을 뺀다."(sm/제22조(023))고 하였으니, 이는 적작약의 한(寒)을 염려해서일 것이다. 오직 작약감초탕증 1증에서는 백작약이라 하였는데, 이는 양쪽 다리가 오그라들고 혈이 한하기 때문에 백작약을 써서 보한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것이다. 《소문》[〈맥요정미론脈要精微論〉]에서는 "맥이 색(澇)한 것은 양기가 초과된 것이다. 양기가 초과되면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음기가 초과되면 땀이 많이 나고 몸이 차다."고 하였다. 상한으로 맥이 삼(澁)하고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는 대개 사기가 음기에 적중한 것이기 때문에 양기가 초과되어 마황이 아니면 발산시킬 수 없으며, 중풍으로 맥이 활(滑)하고 땀이 많이 나고 몸이 찬 경우는 대개 사기가 양기에 적중한 것이기 때문에 음기가 초과되어 적작약이 아니면 그 음사(陰邪)를 도려낼 수 없다. 그렇다면 계지탕에 쓰는 작약은 적작약이 분명하다. 마땅히 《상한백증가傷寒百證歌》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1. 賊馬 : '도적의 말들'. 장우(張遇)의 기마부대를 가리킨다. 장우는 원래 하북성 진정(眞定, 오늘날의 正定)의 기마병이었다고 한다. 그는 시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병사를 일으켰는데 2만여 명의 세를 형성하였으며 살인과 노략질을 일삼았다. 송나라 조정에서는 '賊(도적)'이라 규정하여 본문에 '賊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

2. 儀眞 : 오늘날의 강소성 의정시(儀征市). ←

3. 《孫尚藥方》: 손용화(孫用和)가 찬(撰)한 3권의 의서이다. 손용화는 위주(衛州) 사람으로 하양(河陽)에서 살았다. 원래는 민간의 유의(儒醫)였는데 상한론에 밝아 널리 이름을 떨쳤다. 북송 인종의 광헌황후(光獻皇后)가 입궁하기 전 숙부를 따라 하양에 살았는데 병이 들 때마다 손용화가 치료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입궁 후에 병이 들어 태의가 치료했으나 낫지 않자 손용화가 치료할 것을 추천하여 나은 경험이 있다. ↩

4. 孫兆: 《손상약방》의 찬자인 손용화(孫用和)의 둘째 아들이다. 상약봉어(尙藥奉御)를 지냈다. ↩



桂枝加附子湯證 二

【02】계지가부자탕증

有一李姓士人, 得太陽, 因汗後汗不止, 惡風, 小便澁, 足攣曲而不伸. 予診其脈, 浮而大. 浮爲風, 大爲虛, 此證桂枝湯第七證也. 仲景云: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 三投而汗止, 再投以芍藥甘草, 而足得伸, 數日愈.

이씨 성의 어떤 선비가 태양증을 앓아 땀을 내었더니 땀이 계속 나와 그치지 않고 오통이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다리에 경련이 생겨 굽힌 채 펴 줄 수 없었다. 내가 맥을 짚어보니 부(浮)하면서 대(大)하였다. 부(浮)는 풍(風)을 의미하고 대(大)는 허(虛)를 의미하니, 이 증상은 계지탕증의 제7증이다. 장증경은 "태양병에 땀을 냈는데 그치지 않고 줄줄 흐르며, 환자가 오통이 들고 소변 보기가 어려우며, 사지가 약간 땅겨서 펴거나 오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지가부자탕으로 주치한다."〔sm/제20조(022)〕고 하였다. 3차례 투여하니 땀이 그치고 다시 작약감초탕을 투여하니 다리를 펴 수 있게 되며 며칠 만에 나아졌다.

論曰: 仲景第十六證云: "傷寒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微惡寒, 脚攣急, 反與桂枝湯以攻其表, 此誤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躁, 吐逆者, 作甘草乾薑湯. 若厥愈, 足溫者, 更作芍藥甘草湯與之, 其脚即伸. 若胃氣不和, 譫語者, 少與調胃承氣湯." 蓋第七證, 則爲發汗漏不止, 小便難; 第十六證, 則爲自汗, 小便數. 故仲景於證候紛紛小變異, 便變法以治之. 故於湯不可不謹.

〔논〕 장증경의 제16증에서 "상한에 맥이 부(浮)하고 자한이 나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심번(心煩)이 있으며 약간 오한이 들고 다리에 경련이 일면서 땅기는 데, 오히려 계지탕으로 그 표(表)를 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복용한 후 바로 궤증(厥證)이 생기고 인후가 마르며 번조(煩躁)가 있고 토하면서 기가 상역하

는 경우에는, 감초건강탕을 지어주어야 한다. 꺾증이 나아 발이 따뜻해진 경우에 다시 작약감초탕을 지어서 투여하면 다리는 곧 펴진다. 위기(胃氣)가 조화롭지 못해 섬어(讖語)가 있는 경우에는 조위승기탕을 조금씩 투여한다."(sm/제29조(030))고 하였다. 제7증은 땀을 냈는데 그치지 않고 줄줄 흐르며 소변을 보기 어렵게 된 것이고, 제16증은 자한이 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다. 장중경은 증후가 뒤섞여 약간 다른 경우에는 곧 치법을 변경하여 치료하였으니, 탕(湯)을 신중하게 쓰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桂枝加厚朴杏子湯證 三

【03】계지가후박행자탕증

戊申正月, 有一武弁在儀眞¹爲張遇所虜, 日夕置于舟艙板下, 不勝跼伏, 後數日得脫, 因飽食, 解衣捫虱以自快, 次日遂作傷寒. 醫者以因飽食傷, 而下之, 一醫以解衣中邪, 而汗之. 雜治數日, 漸覺昏困, 上喘息高, 醫者愴惶, 罔知所措.

무신년(1128) 정월에 어떤 장수가 의진(儀眞)에서 장우(張遇)에게 포로가 되어 하루 종일 배의 갑판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웅크려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는데, 며칠 뒤에야 달아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음식을 배불리 먹고는 옷을 벗고 이를 잡았더니 상괘해졌지만 다음날 끝내 상한에 걸리고 말았다. 어떤 의사는 배불리 먹어서 생긴 식상(食傷)이라고 여겨 하법을 썼고, 어떤 의사는 옷을 벗어 외사(外邪)에 적중되었다고 여겨 한법을 썼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치법을 섞어 썼지만 점점 혼미해지고 숨이 가빠(上喘) 어깨를 들썩이니(息高) 의사들은 당황하여 손 쓸 바를 알지 못하였다.

予診之曰: "太陽病, 下之, 表未解, 微喘者, 桂枝加厚朴杏子湯. 此仲景法也." 醫者爭曰: "某平生不曾用桂枝, 況此藥熱, 安可愈喘?" 予曰: "非汝所知也." 一投而喘定, 再投而汗出, 至晚, 身涼而脈已和矣. 醫者曰: "予不知仲景之法其神如此." 予曰: "豈誑惑後世也哉! 人自寡學, 無以發明耳."

내가 진찰하고서 "태양병에 하법을 썼기 때문에 해표가 되지 않아 약간 숨이 가쁜 것이니, 계지가후박행자탕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장중경의 방법입니다."(sm/제43조(044))고 하였다. 어떤 의사가 "저는 평소 계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약은 열(熱)한 약인데 어찌 숨 가쁜 것을 낮게 하겠습니까?"고 쟁론하니,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한 번 복용하니 숨 가쁜 것이 낮고 재차 복용하니 땀이 나며, 저녁이 되자 몸이 식고 맥이 조화로워졌다. 그 의사가 "저는 장중경의 방법이 이처럼 신묘한지

물랐습니다."고 하니, "장중경이 어찌 후세를 속이거나 미혹시키려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배움이 부족하여 밝혀내지 못했을 뿐입니다."고 대답하였다.

1. 儀眞 : 오늘날의 강소성 의정시(儀征市). [↩](#)



麻黃湯證 四

【04】마황탕증

鄉人邱忠臣, 寓毗陵¹薦福寺, 病傷寒. 予爲診視, 其發熱, 頭疼, 煩渴, 脈雖浮數無力, 自尺以下不至. 予曰: "雖麻黃證, 而尺遲弱. 仲景云: '尺中遲者, 營氣不足, 血氣微少, 未可發汗.'" 予於建中湯加當歸黃芪, 令飲之. 翌日病者不耐, 其家曉夜督發汗藥, 其言至不遜. 予以鄉人隱忍之, 但以建中調理而已. 及六七日, 尺脈方應, 遂投以麻黃湯, 啜第二服, 狂言煩躁且悶, 須臾稍定, 已中汗矣. 五日愈.

동향 사람 구충신(邱忠臣)이 비릉(毗陵)의 천복사(薦福寺)에 머물다 상한에 걸렸다. 내가 진찰을 해보니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번갈아 나고 맥이 부삭(浮數)하기는 하나 무력하여 척맥 이하는 맥이 이르지 않았다. 이에 "마황탕증 이기는 하지만 척맥이 지약(遲弱)합니다. 장중경은 '척맥이 지(遲)한 것은 영기가 부족하고 혈기가 적기 때문이니 아직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sm/제50조 [051])고 하였습니다."고 말하였다. 나는 소견중탕에 당귀·황기를 더하여 환자에게 복용시켰다. 다음날 환자가 견뎌내지 못하자 그 집안에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발한시키는 약을 독촉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불손하였다. 나는 동향 사람이라 꼭 참고 소견중탕으로 조리만 했다. 6~7일이 지나 척맥이 비로소 반응하여 마침내 마황탕을 투여하였다. 2번째 복용했을 때 미친 소리를 하고 번조가 있으며 혼미하더니 잠시 있다가 조금 진정되었는데, 이미 땀을 한창 흘리고 있었다. 5일이 지나자 나았다.

論曰: 仲景雖云不避晨夜, 卽宜便治, 醫者亦須顧其表里虛實, 待其時日. 若不循次第, 雖臨時得安, 虧損五臟, 以促壽限, 何足尙哉!

[논] 장중경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바로 치료해야 한다 [〈상한례〉]고 하였으나, 의사는 또한 반드시 그 표리허실을 살펴 알맞은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 만약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잠시 편안해지더라도 오장을 손상하여 수명을 재

축할 것이니 어찌 무조건 따를 수 있겠는가!

昔范雲爲陳霸先屬，霸先有九錫²之命，期在旦夕矣。雲偶感寒疾，恐不及豫盛事，請徐文伯診視之，懇曰："便可得愈乎?"文伯曰："便瘥甚易，但恐二年後不復起爾。"雲曰："朝聞道夕死可矣，況二年乎!"文伯以火燒地，布桃柏葉，設席，置其臥上³頃刻汗解，以溫粉撲之。翌日愈，甚喜，文伯曰："不足喜也。"後二年果卒矣。夫取汗先期，尚促壽限，況罔顧表里，不待時日，便欲速愈乎?每見病家不耐三四日，晝夜促汗，醫者顧利，恐別更醫，隨情順意，鮮不致斃，故書此以爲龜鑒。

옛날 범운(范雲)이 진패선(陳霸先)의 막하에 있었을 때, 진패선에게 구석(九錫)을 받으라는 황제의 명(命)이 있었는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범운은 한질(寒疾)에 걸려 경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 서문백(徐文伯)에게 진찰을 요청하며 간절히 말하길 "바로 나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서문백이 "바로 낫는 것은 매우 쉽지만 2년 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고 대답하였다. 범운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2년이겠습니까!"라고 하니, 서문백은 땅에 불을 지피고 복숭아나무와 측백나무의 잎을 깔아 자리를 만들어서 범운을 그 위에 눕혔다. 잠시 후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자 온분을 발랐다. 다음날 나아서 매우 기뻐했지만, 서문백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고 하였는데, 과연 2년 후에 죽었다. 땀을 미리 내어도 수명을 재촉하는데, 하물며 표리를 살피지 않고 알맞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서 빨리 낫기만을 바라서야 되겠는가? 매번 보면 환자는 3~4일을 참지 못하고서 밤낮으로 땀을 내줄 것을 재촉하고, 의사는 수익을 고려하여 다른 의사로 바꿀까 봐 상황에 맞추고 환자의 뜻을 따르니 죽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하여 귀감을 삼고자 한다.

1. 毗陵 : 오늘날의 강소성 상주(常州). ←

2. 九錫 : '구석'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황제가 내리는 아홉 가지의 은전으로,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최상의 예우였다. 진패선은 556년 양(梁)나라

황제였던 소연명(蕭淵明)을 폐위시키고 당시 태자였던 소방지(蕭方智)를 황제로 옹립하여 다음 해인 557년에 이 황제로부터 구석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진패선은 바로 그 해에 소방지마저 폐위시켜버리고 자신이 직접 진(陳)나라를 세워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 ↩

3. 置其臥上 : ㉠置臥其上 ※大成本 ↩



大靑龍湯證 五

【05】대청룡탕증

何保義從王太尉軍中,得傷寒,脈浮澁而緊.予曰:"若頭疼,發熱,惡風,無汗,則麻黃證也,煩躁,則靑龍湯證也."何曰:"今煩躁甚."予投以大靑龍湯.三投,汗解.

하보의(何保義)가 왕태위(王太尉)의 군영에 들어간 후 상한에 걸려 맥이 부삽(浮澁)하면서 긴(緊)하였다. 내가 "만약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오풍이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는다면 마황탕증이고, 번조하다면 대청룡탕증입니다."고 하니, 하보의가 "지금 매우 번조합니다."고 하여 대청룡탕을 투여하였다. 3회 복용하니 땀이 나고 병이 풀렸다.

論曰：桂枝、麻黃、靑龍,皆表證發汗藥,而桂枝治汗出惡風,麻黃治無汗惡寒,靑龍治無汗而煩.三者皆欲微汗解,若汗多,亡陽爲虛,則煩躁不眠也.

〔논〕 계지탕、마황탕、대청룡탕은 모두 표증에 발한하는 약이다. 하지만 계지탕은 땀이 나면서 오풍이 있는 경우에 쓰고, 마황탕은 땀이 나지 않으면서 오한이 있는 경우에 쓰며, 대청룡탕은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조한 경우에 쓴다. 이 세 가지 약은 모두 약간 땀을 내어 병이 풀리도록 하는 것들이니, 만약 땀을 많이 내어 망양(亡陽)으로 허해지면 번조하여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陽明可下證 六

【06】양명병에 하법을 쓸 수 있는 병증

一武弁李姓, 在宣化¹作警, 傷寒五六日矣, 鎮無醫, 抵郡召予, 予診視之曰: "脈洪大而長, 大便不通, 身熱無汗, 此陽明證也. 須下." 病家曰: "病者年逾七十, 恐不可下." 予曰: "熱邪毒氣斯併蓄於陽明, 況陽明經絡多血少²氣, 不問老壯, 當下. 不爾, 別請醫占³." 主病者曰: "審可下, 一聽所治." 予以大承氣湯, 半日, 殊未知⁴, 診其病, 察其證宛然在. 予曰: "藥曾盡否?" 主者曰: "恐氣弱不禁, 但服其半耳." 予曰: "再作一服." 親視飲之. 不半時間, 索溺器, 先下燥糞十數枚, 次瀉泄一行, 穢不可近. 未離已中汗矣, 澀然周身, 一時頃, 汗止身涼, 諸苦遂除. 次日予自鎮歸, 病患索補劑, 予曰: "服大承氣湯得瘥, 不宜服補劑, 補則熱仍復. 自此但食粥, 旬日可也. 故予治此疾, 終身止大承氣, 一服而愈, 未有若此之捷."

무관 이 씨가 선화(宣化)에서 경계업무를 하다가 상한에 걸린 지 5~6일이 되었지만 진(鎭)에는 의사가 없어서 의진군(儀眞郡)까지 와 나를 초빙하였다. 내가 진찰을 한 후 "맥이 홍대(洪大)하면서 장(長)하고 대변이 막히며 몸에 열이 있으나 땀이 나지 않으니 이것은 양명증입니다. 반드시 하법을 써야 합니다."고 말하니, 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나이가 70을 넘어 하법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열사와 독기가 함께 양명에 쌓였습니다. 더구나 양명경은 혈도 많고 기도 많으니 나이를 불문하고 하법을 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다른 의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고 하니, 환자 가족 중 가장이 "과연 하법을 쓸 만하니 오로지 치료하시는 바를 따르고자 합니다."고 하였다. 나는 대승기탕을 처방하였지만 한나절이 지나도 전혀 낫지 않아 병을 살펴보니 증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내가 "약을 다 먹었습니까?"라고 하니, 가장이 "기가 약하여 견디지 못할까 염려되어 절반만 먹었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새로 달여서 한번에 다 복용시키십시오."라고 말한 후 마시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요강을 찾더니 먼저 조시(燥屎) 열 몇 덩이를 누고 다

음으로 설사를 한 차례 하였는데 악취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 이미 땀이 나기 시작해 온몸에 주르륵주르륵 땀이 났으며, 2시간가량 지나자 땀이 멎고 몸이 식더니 온갖 증상이 모두 없어졌다. 다음날 내가 진(鎭)에서 돌아오니 환자가 보하는 약을 찾기에 나는 "대승기탕을 먹고 나으면 보하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되니, 보하게 되면 열이 다시 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죽만 먹어도 10일이면 낫습니다. 예전부터 나는 이 병을 치료할 때 줄곧 대승기탕만 1번 복용시켜 낫게 하였으니 이보다 빠른 것은 없었습니다."고 하였다.

論曰：老壯者形氣也，寒熱者病邪也。臟有熱毒，雖衰年亦可下，臟有寒邪，雖壯年亦可溫，要之與病相當耳。失此，是致速斃也，謹之。

〔논〕 늙음、젊음은 형기(形氣)이고 한、열은 병사(病邪)이다. 장에 열독이 있다면 늙었더라도 하법을 쓸 수 있고 장에 한사가 있다면 젊더라도 따뜻하게 보해 줄 수 있는 것이니, 요컨대 병과 부합하면 될 뿐이다. 이것을 놓치면 급사에 이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1. 宣化：【1】에 나왔던 의진(儀眞, 오늘날의 강소성 儀征市) 옆에 있던 지역이다. 중국에서는 군(郡)、현(縣)보다 작은 행정단위를 진(鎭)이라고 하는데, 선화가 바로 진에 해당하는 작은 지역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골 마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아래에 보이는 '郡'은 의진군을 의미한다. ←

2. 少：『多』※《素門》〈血氣形志篇〉 ←

3. 占：『治』※大成本. 占으로 해석을 하면 '점치다', '길흉을 묻다' 정도가 되는데, '다른 의사에게 길흉을 물어보라.'는 의미가 되어 治로 되어 있는 것과 의미 상으로는 결국 같아진다. ←

4. 殊未知：知는 '병이 낫다'라는 의미이다. ←



陽明蜜兌證 七

【07】양명병에 밀태법을 쓰는 병증

庚戌仲春, 艾道先染傷寒, 近旬日, 熱而自汗, 大便不通, 小便如常, 神昏多睡. 診其脈, 長大而虛. 予曰: "陽明證也." 乃兄景先曰: "舍弟¹全似李大夫證¹, 又屬陽明, 莫可行承氣否?" 予曰: "雖爲陽明, 此證不可下. 仲景: '陽明, 自汗, 小便利者, 爲津液內竭, 雖堅不可攻, 宜蜜兌導之.'" 作三劑, 三易之, 先下燥糞, 次泄瀉, 已而汗解.

경술년(1130) 중춘에 애도선(艾道先)이 상한에 감염되어 10일 가까이 열이 나면서 자한이 나고, 대변은 막혔는데 소변은 정상이며, 정신이 혼미하고 잠을 많이 잤다. 맥을 짚어보니 장대(長大)하면서 허(虛)하였다. 내가 "양명증입니다."고 하니, 그의 형 경선이 "제 동생은 이 대부(李大夫)의 증상과 완전히 같고 또 양명증이니 대승기탕을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양명증이기 는 하지만 이 증은 공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중경은 '양명병에 자한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는 경우는 진액이 안에서 고갈될 것이니 대변이 굳더라도 공하를 해서는 안 된다. 밀태법을 써서 이끌어내어야 한다.' (sm/제233조(245))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3제를 지어서 3차례 바꾸어 넣게 하니, 처음에 조시(燥屎)를 눈 다음 설사를 하고 조금 지나 땀이 나면서 병이 풀렸다.

論曰: 二陽明證雖相似, 然自汗小便利者, 不可蕩滌五臟, 爲無津液也. 然則傷寒大證相似, 脈與證稍異, 通變爲要, 仔細斟酌, 正如以格局看命, 雖年月日時皆同, 貴賤窮通不相侔者, 於一時之頃, 又有淺深也.

(논) 2가지 양명증이 비슷하지만 자한이 있고 소변이 잘 나오는 경우는 오장을 씻어내듯이 대변을 빼내면 안 되니 진액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한에 주된 증상이 서로 비슷하더라도 맥과 증이 약간 다른 경우에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요체로 삼아 세심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마치 정격(定格)과 합국(合局)으로 운명을 살피면 연월일시가 모두 같더라도 귀천·궁달은 서로 같지 않으니, 1시진 안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1. 全似李大夫證 : '이 대부의 증상과 완전히 같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이 대부는 【74】에 보이는 '이침(李琛)이라는 대부'를 가리킨다. [↪](#)



腎虛陽脫證 八

【08】신허양탈증

朱保義撫辰¹, 庚戌春, 權監務, 予一日就務謁之, 見擁爐忍痛, 若不禁狀. 予問所苦, 小腸氣痛, 求予診之. 予曰: "六脈虛浮而緊, 非但小腸氣, 恐別生他疾." 越數日再往, 臥病已五日矣. 入其室, 見一市醫孫尙者供藥, 予診之曰: "此陰毒證. 腎虛陽脫, 脈無根蒂, 獨見于皮膚, 黃帝所謂懸絕, 仲景所謂譬如羹上肥也. 早晚喘急, 未幾而息已高矣." 孫生尙與朮附湯, 灸臍下. 予曰: "雖盧扁之妙無及矣." 是夕死. 故論傷寒以真氣爲主.

진주(辰州)의 순무(巡撫) 주보의(朱保義)가 경술년(1130) 봄에 임시로 감무(監務)를 맡게 되었다. 내가 어느 날 임무 차 뵈러 갔더니, 화로를 끌어안고 통증을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아내지 못할 듯하였다. 내가 괴로운 바를 물으니 소장기통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진찰을 요청하였다. 나는 "육맥이 허부(虛浮)하면서 긴(緊)하니 소장기뿐만 아니라 달리 다른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여러 날이 지나 다시 들렀는데 드러누운 지 이미 5일째였다. 그의 방에 들어가 보니 손상(孫尙)이라는 시의(市醫) 한 명이 약을 올리기에 내가 진찰하고는 "이것은 음독증입니다. 신양(腎陽)의 허탈로 맥이 뿌리가 없이 피부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제는 '현절(懸絶)' [맥 뛰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하였고, 장중경은 '국에 뜬 비계처럼 잠깐씩 느껴진다' [맥이 부浮하면서 무력한 것을 형용한 것으로 위기衛氣가 쇠한 유맥濡脈이다. 양기가 미미한 것을 이른다. <변맥법>에 보인다.] 고 말하였습니다. 조만간 숨이 가빠지다가(喘急)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를 들썩이면서 숨을 쉬게(息高)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손상이 계속 출부탕 [: 백출부자탕] 을 투여하고 배꼽 아래에 뜬을 뒀다. 내가 "편작의 신묘함으로도 치료할 수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죽었다. 이 때문에 상한은 진기(眞氣)를 위주로 하여 논해야 한다.

論曰：傷寒不拘陰證陽證、陰毒陽毒，要之眞氣強壯者易治，眞氣不守，受邪才重，便有必死之道，何也？陽證宜下，眞氣弱，則下之便脫，陰證宜溫，眞陰弱，溫之則客熱便生。故醫者難於用藥，非病不可治也，主本²無力也。《經》曰："陽勝則身熱，腠理閉，喘麤爲之俯仰，汗不出而熱，齒乾以煩冤，腹滿死。陰勝則身寒，寒則厥，厥則腹滿死。帝曰：'調此二者奈何？'岐伯曰：'女子二七天癸至，七七止，男子二八精氣溢，八八止。婦人月事，以時下，故七欲損也；男子精，欲滿不欲竭，故八欲益也。如此則男婦身常無病，無病精氣常固，雖有寒邪，易於調治，故曰二者可調。'"是知傷寒眞氣壯者易治也。

(논) 상한은 음증、양증과 음독、양독을 막론하고 요컨대 진기가 강장한 경우에는 치료하기 쉽지만, 진기가 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침입한 사기가 조금만 심각해도 곧 반드시 죽게 되는 이치가 있으니 어째서인가? 양증에는 하법을 써야 하지만 진기가 약할 경우 하법을 쓰면 바로 허탈해지고, 음증에는 따뜻하게 보해주어야 하지만 진음이 부족할 경우 따뜻하게 보해주면 허열이 곧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쓰기 어려우니 치료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이 무력하기 때문이다. 《내경》[《소문》〈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에서 "양이 우세하면 몸이 뜨겁고 주리가 닫히며 숨이 거칠어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열이 나며 치아가 마르고 몹시 답답하여 괴로우며 배가 더부룩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음이 우세하면 몸이 차고 몸이 차면 팔다리 끝에서부터 냉기가 올라오며 팔다리 끝에서부터 냉기가 올라오면 배가 더부룩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황제가 '이 두 가지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여자는 14세에 월경이 나오기 시작하여 49세에 그치고, 남자는 16세에 사정을 하기 시작하여 64세에 그칩니다. 부인의 월경은 때맞춰 나와야 하니 7수에 따라 월경이 잘 나오게 해야 하고, 남자의 정액은 가득하여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하니 8수에 따라 더 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남녀의 몸에 늘 병이 없게 되고 병이 없으면 정기가 늘 견고

하여 한사(寒邪)가 있더라도 치료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상한에 진기가 강장한 경우는 치료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撫辰 : 撫는 순무(巡撫), 辰은 지명인 진주(辰州)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호남성 원릉현(沅陵縣) 지역을 가리킨다. ↩
2. 主本 : 몸과 외부의 사기(邪氣)를 각각 주(主)와 객(客)이라고 부른다. 때문에 사기에 대비된 환자의 몸을 '주본'이라고 불렀다. 본문에서는 번역 문맥을 감안하여 '근본'으로 풀었다. ↩

臍中出血證 九

【09】배꼽에서 피가 나는 병증

一婦人得傷寒數日, 咽乾, 煩渴, 脈弦細. 醫者汗之, 其始衄血, 繼而臍中出血, 醫者驚駭而遁. 予曰: "少陰強汗之所致也. 蓋少陰不當發汗, 仲景云: '少陰強發汗, 必動其血, 未知從何道而出, 或從口鼻, 或從耳目. 是爲下厥上竭, 此爲難治.' 仲景云無治法, 無藥方." 予投以薑附湯, 數服, 血止, 後得微汗愈.

어떤 부인이 상한에 걸린 지 며칠이 되었는데, 목이 건조하고 번갈아 있으며 맥은 현세(弦細)하였다. 의사가 한법을 썼더니 처음에는 코피를 흘리고 이어서는 배꼽에서 피가 나왔다. 그 의사는 놀라서 달아나버렸다. 나는 "소음병에 억지로 땀을 내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음병에는 발한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장중경은 '소음병에 억지로 땀을 내면 반드시 혈을 격동시켜 어느 길로 나올지 알 수 없으니 혹은 입과 코로 나오고 혹은 귀와 눈으로 나온다. 아래는 결랭하고 위로는 출혈이 되는 것(下厥上竭)이니 치료하기 어렵다.' (sm/제294조 {308})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중경도 치법과 처방을 말하지 못하였습시다."고 하였다. 내가 건강부자탕을 투여하여 여러 번 복용시키자 피가 멎더니 이후에 약간 땀이 나면서 나았다.

論曰: 本少陰證, 而誤汗之, 故血妄行, 自臍中出. 若服以止血藥, 可見其標, 而不見其本. 予以治少陰之本, 而用薑附湯, 故血止而病除.

〔논〕 본래 소음병인데 한법을 잘못 썼기 때문에 혈이 망행하여 배꼽에서 피가 나왔다. 만약 지혈제를 복용시킨다면 그 표(標)만 보고 그 본(本)은 살피지 못한 꼴이다. 내가 소음병이라는 본(本)을 치료하려고 건강부자탕을 썼기 때문에 피가 멎고 병이 사라진 것이다.



陰中伏陽證 十

【10】음 속에 양이 숨은 병증

鄉人李信道, 權獄官, 得病, 六脈俱沈不見, 深按至骨, 則弦細有力, 頭疼, 身溫, 煩躁, 手指末皆冷, 中滿, 惡心, 更兩醫矣, 而醫者不曉, 但供調藥. 予往視之曰: "此陰中伏陽也. 仲景方無此證, 而世人患者多. 若用熱藥以助之, 則陰邪隔絕, 不能引導其陽, 反生客熱; 用寒藥, 則所伏眞火, 愈見銷鑠. 須是¹用破陰丹, 行氣導水, 奪眞火之藥, 使火升水降, 然後得汗而解." 予令以冷鹽湯, 下破陰丹三百丸, 作一服, 不半時煩躁狂熱, 手足漸溫, 譫語躁擾, 其家甚驚. 予曰: "汗證也." 須臾稍寧略睡, 澀然汗出, 自昏達旦方止, 身涼而病除. (破陰丹方. 硫黃、水銀 各一兩結沙子, 青皮 半兩. 爲末, 麪糊和丸桐子大, 每服三十丸, 冷鹽湯送下. 出《中臟經》〈方脈舉要〉)

동향 사람 이신도(李信道)는 친시로 옥관(獄官)이 되었다. 병에 걸려서 육맥이 모두 침(沈)하여 느껴지지 않으나 뼈까지 깊이 누르면 현세(弦細)하면서 유력하였다. 머리가 아프고 몸이 따뜻하며 번조가 있고 손가락 끝이 모두 차가우며 속이 그득하고 오심이 있었다. 의사를 2차례 바꾸었으나 의사가 알지 못하여 그저 조리하는 약만 주었다. 내가 가서 살펴보고 "이것은 음 속에 양이 숨은 것입니다. 장중경의 처방에는 이러한 병증에 대한 것이 없으나 이것을 앓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열한 약을 써서 도우면 음사(陰邪)가 가로막아 그 양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객열(客熱)이 생기며, 한한 약을 쓰면 잠복한 진화(眞火)에 더욱 손상을 입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를 운행시키고 수(水)를 이끌어내며 진화(眞火)를 빼내는 약인 파음단을 써서 화를 올리고 수를 내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연후에야 땀이 나면서 병이 풀리게 됩니다."고 하였다. 내가 끓인 소금물을 식힌 데에다 파음단 300환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하였더니 1시간이 되지 않아 번조가 생기고 심하게 열이 나며 손발이 점차 따뜻해지고 헛소리를 하면서 손발을 휘저어 그 집안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나는 "땀이 나야 하는 병증입니다."고 하였다. 잠시 후 조금 안정이 되고 약간 잠에 들더니 주룩주

룩 땀이 났는데, 저녁부터 땀이 나서 아침이 되어서야 멎었으며 몸이 식더니 병이 제거되었다. (파음단방. 유향·수은 각 1냥(모래처럼 뭉친 것), 청피 0.5냥.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밀가루 풀을 넣고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어 매번 30환씩 끓인 소금물을 식힌 것으로 삼킨다. 《중장경》〈방맥거요〉에 나온다.)

1. 須是 : 是須 ※大成本 ↩



傷寒暴死證 十一

【11】상한으로 갑자기 죽은 병증

己未歲, 一時官病傷寒, 發熱狂言煩躁, 無他惡證, 四日死. 或者以爲兩感¹, 然其證初無兩感證候. 是歲得此疾, 三日四日死者甚多, 人竊怪. 予嘆之曰: "是運使然也. 己爲土運², 土運之歲, 上見太陰³, 蓋太乙天符⁴爲貴人. 中執法者, 其病速而危; 中行令者, 其病徐而持; 中貴人者, 其病暴而死, 謂之異也." 又曰: "臣爲君則逆, 逆則其病危, 其害速. 是年少宮⁵土運, 木氣大旺, 邪中貴人, 故多暴死. 氣運當然, 何足怪也?"

기미년(1139)에 어떤 현직 관리가 상한을 앓아 열이 나고 미친 소리를 하며 번조가 있되 다른 나쁜 증상이 없었지만 4일 만에 죽었다. 혹자는 양감이라 하였지만 그 병증은 애초에 양감의 증후가 없었다. 이 해에는 이 병을 얻어 3~4일 만에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겼다. 나는 탄식하며 "이것은 운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己)는 토운이고 토운의 해에 위로 태음이 사천(司天)하면 태을천부(太乙天符)니 귀인이 됩니다. 집법의 해인 천부년에 사기가 침입하면 그 병이 빠르면서 위태롭고, 행령의 해인 세회년에 사기가 침입하면 그 병이 느리면서 지속되며, 귀인의 해인 태을천부년에 사기가 침입하면 그 병이 갑작스러우면서 죽게 되니, 이것이 셋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또한 "신하가 임금이 되면 역(逆)이니 역이면 그 병이 위태롭고 그 폐해가 빠릅니다. 올해는 소궁의 토운이니 목기가 크게 왕성하고 귀인인 태을천부년에 사기가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운기상 당연한 것이니 어찌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1. 兩感 : 태양경맥은 아래로 방광과 이어질 뿐 아니라 아래로 소음신(少陰腎)과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방광과 신이 서로 표리가 되는 특수 관계를 형성한

다. 이러한 까닭에 태양병 가운데에는 환자가 연로하거나, 하초가 허하거나, 오치로 인해 소음의 양기가 먼저 뿔어나가게 되면, 태양의 기가 표(表)에서 사기와 저항하도록 돕는 일을 하지 못해 오히려 태양경에 있던 사기가 태양의 표(表)에서 소음의 이(裏)로 곧장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맥은 미세(微細)하고 정신이 피로하여 잠을 자고 싶으며, 열이 나는데 맥은 오히려 침(沈)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태소양감증(太少兩感證)'이라고 한다. (《상한론14강》) ←

2. 己爲土運 : '기는 토운이다'. 천간의 己는 오행의 토에 속하며, 이 해의 세운은 토운에 해당한다. ←

3. 上見太陰 : '위로 태음이 나타난다'. 태음에 속하는 지지가 토에 속하는 천간과 겹치는 것을 말한다. 己丑、己未 등이 여기에 속한다. ←

4. 太乙天符 : 사천지기(司天之氣)、중운지기(中運之氣)、세지지기(歲支之氣) 등 3가지 기가 화합된 해라는 의미이다. 戊午、乙酉、己丑、己未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5. 少宮 : 궁은 오음의 하나이다. 오행 중 토에 속하는 것에는 태궁(太宮)과 소궁(少宮)이 있는데, 태궁은 태과(太過)이고 소궁은 불급(不及)이다. 己年의 소궁은 초운(初運)이다. '소궁의 토운'은 토운이 불급한 것을 의미하며, 토운이 불급하기 때문에 木氣大旺, 즉 목기가 크게 왕성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목기가 태과'한 것이다. ←

夜間不眠證 十二

【12】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병증

陳姓士人, 初得病, 身熱, 脈浮, 自汗, 醫者麻黃湯汗之, 發熱愈甚, 夜間不得眠, 頭重, 煩悶, 悸悸然, 中風證強責汗之過也. 仲景云: "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燥, 不得眠, 其人欲得飲水者, 少少與之, 令胃氣和則愈." 予先與豬苓湯, 次投之以當歸、地黃、麥門冬、芍藥、烏梅之類爲湯, 飲之, 不汗而愈.

선비 진 씨(陳氏)가 갓 병에 걸렸을 때는 몸에 열이 나고 맥이 부(浮)하며 자한 이 낮다. 의사가 마황탕으로 땀을 냈더니 발열이 더 심해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며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갑갑하며 두근거렸다. 이는 태양중풍증에 억지로 땀을 낸 잘못이다. 장중경은 "태양병에 땀을 낸 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위(胃) 속이 건조해지고 잠들지 못하며 환자가 물을 마시려 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마시게 하여 위기(胃氣)를 조화시키면 낫는다." (sm/제71조(072))고 하였다. 내가 우선 저령탕을 투여하고 다음으로 당귀·지황·맥문동·작약·오매 등으로 탕을 만들어 마시게 하니 땀을 내지 않았어도 병이 나았다.

論曰: 《黃帝針經》曰: "衛氣者, 晝行陽, 夜行陰. 衛氣不得入於陰, 常行於外, 行於外則陽滿, 滿則陽蹻盛而不得入於陰, 陰虛則夜不得眠也." 今津液內竭, 胃中乾燥, 獨惡於陽, 陰無所歸, 其候如此. 故以當歸、地黃補血, 用烏梅以收之, 故不汗自愈.

〔논〕《영추》[〈口問〉]에서 "위기(衛氣)는 낮에는 양분에서 순행하다가 밤에는 음분에서 순행한다. 위기가 음분에 들어가지 못하면 늘 외부에서 순행하게 되고, 외부에서 순행하면 양분이 가득해지며, 양분이 가득하면 양교맥이 왕성해지면서 음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음분이 허해지면 밤에 잠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지금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 위 속이 건조하니 양분에서만 치성하고

음분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후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귀
· 지황으로 혈을 보하고 오매로 거두어들였다. 이 때문에 땀을 내지 않았어도
병이 나은 것이다.



大柴胡湯證 十三

【13】대시호탕증

羽流蔣尊病, 其初心煩喜嘔, 往來寒熱, 醫初以小柴胡湯與之, 不除. 予診之曰: "脈洪大而實, 熱結在裏, 小柴胡安能除也? 仲景云: '傷寒十餘日, 熱結在裏, 復往來寒熱者, 與大柴胡.'" 二服而病除.

도사 장존(蔣尊)이 병이 났다. 초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자주 하며 한열이 왕래하여 의사가 처음에 소시호탕을 투여하였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내가 진찰한 후 "맥이 홍대하면서 실한 것은 열이 이(裏)에 맺혀 있어서이니 어찌 소시호탕으로 병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장증경은 '상한에 걸린 지 10일 남짓 되어 열이 이(裏)에 맺히고 또 한열이 왕래하는 경우에는 대시호탕을 투여한다.' (sm/제136조(144))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2차례 복용시키니 병이 제거되었다.

論曰: 大黃爲將軍, 故蕩滌¹熱, 在傷寒爲要藥, 今大柴胡湯不用, 誠誤也. 王叔和曰: "若不加大黃, 恐不名大柴胡. 須是酒洗生用, 乃有力." 昔後周姚僧坦²名善醫, 上因發熱, 欲服大黃, 僧坦曰: "大黃乃是快藥, 至尊年高, 不宜輕用." 上弗從, 服之, 遂不起. 及至元帝有疾, 諸醫者爲至尊至貴不可輕服, 宜用平藥. 僧坦曰: "脈洪而實, 必有宿食, 不用大黃, 病不能除." 上從之, 果下宿食而愈. 此明合用與不合用之異也.

〔논〕 대황은 별명이 장군이라 실열(實熱)을 쓸어내니 상한에서 중요한 약인데도 지금 대시호탕을 쓰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왕숙화는 "만약 대황을 넣지 않으면 대시호탕이라고 이름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생것을 술에 씻어서 써야만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옛날 후주(後周)에 요승원(姚僧坦)은 명의로 유명하였다. 황제 [양량나라 무제武帝] 가 열이 나서 대황을 먹고자 하였는데 요승원이 "대황은 효험이 빠른 약입니다만, 황제께서 나이가 많으시

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고 하였으나 황제가 이를 따르지 않고 복용하여 마침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원제(元帝)가 병이 들었을 때 모든 의사들이 황제께서는 몹시 귀하신 몸이라 함부로 복용할 수 없으니 평순한 약을 써야만 한다고 하였으나 요승원은 "맥이 홍(洪)하면서 실(實)하니 반드시 숙식(宿食)이 있을 것입니다. 대황을 쓰지 않으면 병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따랐더니 과연 숙식이 나오면서 나았다. 이는 약을 쓰기에 합당한 경우와 약을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밝힌 것이다.

1. 濕 : 𣎵 實 ※오자인 듯하다. 《동의보감》〈탕액편〉의 大黃 조문 참조. [↩](#)

2. 垣 : 𣎵 垣 ※오자이다. 姚僧垣(499~583)은 오흥(吳興) 무강(武康) 사람으로, 남북조시대 북조의 명의이다. [↩](#)

陽明急下證 十四

【14】양명병에 급히 공하해야 하는 병증

鄉里豪子得傷寒, 身熱, 目痛, 鼻乾, 不眠, 大便不通, 尺寸俱大, 已數日矣. 自昨夕汗大出. 予曰: "速以大柴胡下之." 衆醫駭然, 曰: "陽明自汗, 津液已竭, 當用蜜兌, 何故用大柴胡藥?" 予曰: "此仲景不傳妙處, 諸公安知之?" 予力爭, 竟用大柴胡, 兩服而愈.

내 고향의 호족 자제가 상한에 걸려 몸에서 열이 나고 눈이 아프며 콧속이 건조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대변이 나오지 않고 척맥과 촌맥이 모두 대(大)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전날 저녁부터 땀이 많이 났다. 내가 "속히 대시호탕으로 공하해야 합니다."고 했더니, 모든 의사들이 놀라 "양명병에 자한이 나서 진액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당연히 밀태법을 써야 합니다. 어째서 대시호탕을 쓴단 말입니까?"고 하였다. 나는 "이것은 장중경이 전하지 않은 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힘써 다투어 마침내 대시호탕을 썼더니 2제를 복용하고는 나았다.

論曰: 仲景論陽明云: "陽明病, 多汗者, 急下之." 人多謂: "已自汗, 若更下之, 豈不表裏俱虛也?" 如此¹少陰云: "少陰病一二日²口乾燥者, 急下之." 人多謂: "病發於陰, 得之日淺, 但見乾燥, 若更下之, 豈不陰氣愈盛也?" 世人罕讀, 予以爲不然. 仲景稱急下之者, 亦猶急當救表, 急當救裏. 凡稱急者, 急下之, 有三處, 纔覺汗出多, 未至津液乾燥, 速下之, 則爲徑捷, 免致用蜜兌也. 蓋用蜜兌, 已是失下, 出於不得已耳. 若胸中識得了了, 何疑殆之有哉!

[논] 장중경이 양명병을 논하여 "양명병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급히 공하해야 한다."〔sm/제253조(266)〕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자한이 났으니 만약 다시 공하를 하면 어찌 표·리 모두가 허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소음병을 논하여서는 "소음병에 걸린 지 2~3일에 입속이 건조한 경우에

는 급히 공하해야 한다.”(sm/제320조(334))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음에서 생겼고 병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단지 건조한 것만 보고서 만약 다시 공하를 하면 어찌 음기가 더욱 성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책을 제대로 읽는 경우가 드물어서이니,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장중경이 '급히 공하한다'고 한 것은 또한 '급히 표(表)를 구해야 한다'거나 '급히 이(裏)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용법이 같다. 무릇 '급'자를 써서 '급히 공하한다'고 한 것이 3군데에서 보인다(sm/제252조(265) · 제253조(266) · 제254조(267)). 땀이 많이 나는 걸 느끼자마자 진액이 건조해지지 않는 않을 때 속히 공하하면 병이 빨리 나아 밀태법을 써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밀태법을 쓰는 것은 이미 공하할 때를 놓쳐서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쓰는 것일 뿐이다. 만약 가슴속 깊이 또렷하게 알고 있다면 어찌 의심하여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1. 此 : 論 *大成本、商務本 ↩

2. 一二日 : 二三日 *《상한론》제320조(334) ↩

傷寒自解證 十五

【15】상한이 저절로 풀리는 병증

閩人李宗古得疾, 口中氣熱, 唇乾, 屈體臥, 足冷, 舌上有苔. 予診之, 尺寸俱緊. 或者謂: "氣熱口乾, 疑其陽勝, 蜷足臥, 足冷, 疑其陰勝, 而又陰陽俱緊, 是誠可疑也. 若不熟讀仲景方法, 何能治?" 予曰: "尺寸俱緊, 是寒邪勝也. 仲景云: '陰陽俱緊, 法當清邪中於下¹焦.' 又云: '陰陽俱緊, 口中氣出, 唇乾舌燥, 蜷臥足冷, 鼻中涕出, 舌上苔滑, 勿妄治也. 到七日以來, 其人發熱, 手足溫者, 此爲欲解.' 蓋以上證候, 皆是陰盛陽弱, 故仲景云勿妄治者, 誠恐後人之疑也." 故予以抑陰助陽溫劑與之, 緊脈漸退, 四體和, 不汗而自解矣.

북건성(閩) 사람李宗古(李宗古)가 병에 걸려 입김이 뜨겁고 입술이 마르며 몸을 웅크려서 자고 발이 차며 혀에 설태가 끼었다. 내가 진찰해보니 척맥과 촌맥이 모두 긴(緊)하였다. 어떤 사람이 "입김이 뜨겁고 입속이 건조한 것은 양이 성한 것이 의심되며, 다리를 구부려서 자고 발이 찬 것은 음이 성한 것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음맥 [척맥] 과 양맥 [촌맥] 이 모두 긴하니 이것이 참으로 헛갈립니다. 만약 장중경의 치법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어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내가 "척맥과 촌맥이 모두 긴한 것은 한사(寒邪)가 성하기 때문입니다. 장중경은 '음맥과 양맥이 모두 긴한 것은 이치상 풍한의 사기(邪氣)가 상초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변맥법>] 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맥과 양맥이 모두 긴하고 입으로 숨을 토해내며 입술이 마르고 혀가 건조하며 몸을 구부려서 자고 발이 차며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혀에 미끄러운 설태가 낀 경우에는 함부로 치료하지 마라. 병에 걸린 지 7일 이후에 환자가 열이 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라면 이것은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변맥법>] 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증후는 모두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약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장중경이 함부로 치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 후인들이 헛갈릴까 염려

해서인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음을 누르고 양을 북돋는 온제(溫劑)를 투여하였더니 긴맥(緊脈)이 점차 사라지고 사지가 순조로워져 땀을 내지 않았어도 병이 저절로 풀렸다.

1. 下 : 上 ※《상한론》〈변맥법〉↔



熱入血室證 十六

【16】열이 혈실에 들어간 병증

辛亥二月, 毗陵¹學官王仲景妹, 始傷寒, 七八日, 昏寒²喉中涎響如鋸, 目瞑不知人, 病勢極矣. 予診之, 詢其未昏寒〔塞〕以前證, 母在側曰: "初病四五日, 夜間譫語, 如見鬼狀." 予曰: "得病之初, 正值經候來否?" 答曰: "經水方來, 因身熱病作而自止." 予曰: "此熱入血室也. 仲景云: '婦人中風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夜則譫語, 發作有時, 此爲熱入血室.'" 醫者不曉, 例以熱藥補之, 遂致胸膈不利, 三焦不通, 涎潮上脘, 喘急息高. 予曰: "病熱極矣, 先當化其涎, 後當除其熱, 無汗而自解矣." 予急以一呷散投之, 兩時間, 涎定得睡, 是日遂省人事, 自次日以小柴胡湯加生地黃, 三投熱除, 無汗而解.

신해년(1131) 2월, 비릉(毗陵)의 학관(學官) 왕중경(王仲景)의 여동생이 상한에 갇 걸린 지 7~8일이 되어 혼미하고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툭질소리처럼 나며 눈앞이 아찔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병세가 매우 심각하였다. 내가 진찰하고는 혼미하기 전의 증상에 대해 물었더니 옆에 있던 환자의 어머니가 "갇 병에 걸린 지 4~5일 되었을 때 밤에 귀신을 본 듯이 헛소리를 하였습시다."고 하였다. 내가 "병이 갇 걸렸을 때 마침 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 "월경이 막 나오다가 몸에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월경이 저절로 그쳤습시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이것은 열이 혈실(血室)에 들어간 것입니다. 장중경은 '부인이 중풍으로 열이 날 때 마침 월경이 시작되어 낮에는 정신이 또렷하다가도 밤에 헛소리를 하고 일정한 시간에 발작을 한다면, 이것은 열이 혈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sm/제143조(151))고 하였습시다."고 하였다. 의사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대개 열한 약으로 보해주니 마침내는 흉격이 막히고 삼초가 소통되지 못하게 되어 상완(上腕)에 가래가 끓고 숨이 가쁘면서 어깨를 들썩이게 된 것이다. 내가 "병으로 열이 극심하니 우선 가래를 삭인 뒤에 열을 없애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땀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병이 풀릴

것입니다."고 하면서 급히 일합산을 투여하니 4시간 후 가래가 가라앉아 잠에 들고 이날 마침내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소시호탕에 생지황을 더하여 3제를 투여하니 열이 없어져 땀을 내지 않아도 병이 풀렸다.

1. 毗陵 : 오늘날의 강소성 상주(常州). ↩

2. 寒 : 寒塞 ※大成本, 아래 '昏寒'의 '寒'도 마찬가지이다. ↩



筋惕肉瞤證 十七

【17】근육이 경련하는 병증

鄉里市人姓京, 鬻繩爲業, 謂之京城¹子. 其子年近三十, 初得病, 身微汗, 脈弱, 惡風. 醫者誤以麻黃湯汗之, 汗遂不止, 發熱, 心痛, 多驚悸, 夜間不得眠臥, 譫語, 不識人, 筋惕肉瞤, 振振動搖, 醫者以鎮心驚風藥治之. 予視之曰: "強汗之過也. 仲景云: '脈微弱, 汗出惡風者, 不可服青龍湯, 服之則筋惕肉瞤, 此爲逆也.' 惟真武湯可收²之. 仲景云: '太陽病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身瞤動, 振振欲擗地者, 真武湯主之.'" 予三投而大病除, 次以清心丸、竹葉湯解餘毒, 數日瘥.

내 고향의 상인 경 씨(京氏)는 새끼줄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아 사람들이 그를 경승자(京繩子) ['새끼줄 경 씨'라는 의미이다] 라 불렀다. 그의 아들이 나이 30에 가까웠는데, 갓 병이 들어 몸에 땀이 약간 나고 맥이 약(弱)하며 오통이 있었다. 의사가 잘못하여 마황탕으로 땀을 내었더니 땀이 계속 그치지 않고 열이 나며 심통(心痛)이 있고 잘 놀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근육이 경련하여 떨렸다. 이에 의사는 심장을 진정시켜 경풍(驚風)을 다스리는 약으로 치료하고자 하였다. 내가 살펴본 후 "억지로 발한시킨 잘못 때문입니다. 장중경은 '맥이 미약(微弱)하고 땀이 나며 오통이 있는 경우에는 대청룡탕을 복용해서는 안 되니, 복용하면 근육이 경련하게 된다. 이것은 역증(逆證)이다.'(sm/제38조(039))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진무탕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장중경은 또한 '태양병에 발한을 시켰으나 땀이 나고도 병이 풀리지 않아 환자가 여전히 열이 나고 심하(心下)가 두근거리며 몸이 떨리고 후들거려 땅에 넘어질 듯한 경우에는 진무탕으로 주치한다.'(sm/제82조(086))고 하였습니다."고 하면서 진무탕을 3제 투여하니 주된 증상이 제거되었다. 이어서 청심환、죽엽탕으로 남은 사기를 풀었더니 며칠 후에 나았다.

1. 城 : 𦉰繩 ※大成本 ←

2. 收 : 𦉰救 ※대성본 ←



陽明當下證 十八

【18】양명병에 공하해야 하는 병증

鄉人李生, 病傷寒, 身熱, 大便不通, 煩渴鬱冒. 一醫以巴豆藥¹下之, 雖得瀉利, 而病宛然如舊. 予視之曰: "陽明熱結在裏, 非大柴胡承氣不可. 巴豆止去寒積, 豈能蕩滌邪熱溫毒耶?" 亟進大柴胡, 三服而瀉利止, 中夜汗解.

동향 사람 이 씨(李氏)가 상한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대변이 나오지 않으며 번갈과 울모(鬱冒) [속이 갑갑하고 어지러우며 가끔씩 정신을 잃는 증상] 가 있었다. 어떤 의사가 파두환으로 공하를 했더니 설사가 나와도 병세는 여전하였다. 내가 살펴보고는 "양명병에 열이 이(裏)에 맺혀 있는 것이니 대시호탕이나 승기탕이 아니면 안 됩니다. 파두는 다만 한(寒)이 쌓인 것을 없앨 뿐이니 어찌 사열(邪熱)과 온독(溫毒)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급히 대시호탕을 올렸더니 3제를 복용하고 설사가 그쳤으며 밤중에 땀이 나면서 병이 풀렸다.

論曰: 仲景一百十三方, 丸者有五, 理中、陷胸、抵當、麻仁、烏梅也. 理中、陷胸、抵當, 皆大彈丸, 煮化而服之, 與湯散無異. 至於麻仁治脾約, 烏梅治濕, 故須小丸達下部. 其他皆入經絡, 逐邪毒, 破堅癖, 導血, 潤燥屎之類, 必憑湯劑也. 未聞巴豆小丸以下邪毒, 且如巴豆性熱大毒, 而病熱人服之, 非徒無益, 而爲害不小矣. 李生誤服不死, 其大幸歟!

〔논〕 장중경의 113방 가운데 환으로 된 것은 5가지이니 이중환·함홍환·저당환·마자인환·오매환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환·함홍환·저당환은 모두 환의 크기가 탄알만 하니 달여서 녹인 후에 복용하기 때문에 탕제나 산제와 다를 것이 없다. 마자인환으로 비약(脾約) [자한이 나고 소변이 잦아 진액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을 치료하고 오매환으로 습닉(濕) [습이 성해서 생기는 창瘍이다. 은 벌레가 갇아먹는다는 의미이다]

을 치료할 경우에는 반드시 크기가 작은 환으로 빚어서 하부까지 도달하게 해야 한다. 이외에는 모두 경락에 들어가거나 사독(邪毒)을 몰아내거나 땀땀한 현벽(痙癖)을 깨뜨리거나 혈을 소통시키거나 조시(燥屎)를 습윤하게 하니 반드시 탕제로 써야 한다. 나는 여태껏 파두를 작은 환으로 써서 사독을 공하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 게다가 파두는 약성이 열(熱)하고 심한 독이 있어서 열병을 앓는 자가 복용하면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로움이 적지 않다. 이 씨가 이것을 잘못 복용하고도 죽지 않았으니 매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다!

1. 藥： ㉞丸 ※大成本 ←

桂枝加葛根湯證 十九

【19】계지가갈근탕증

庚戌, 建康¹徐南强, 得傷寒, 背强, 汗出, 惡風. 予曰: "桂枝加葛根湯²證." 病家曰: "他醫用此方, 盡二劑而病如舊, 汗出愈加." 予曰: "得非仲景三方乎?" 曰: "然." 予曰: "誤矣. 是方有麻黃, 服則愈見汗多, 林億謂止於桂枝加葛根湯也." 予令去而服之, 微汗而解.

경술년(1130)에 건강(建康)의 서남강(徐南强)이 상한에 걸려 등이 뻣뻣하고 땀이 나며 오풍이 있었다. 내가 "계지가갈근탕증입니다."고 하니, 환자 집안에서 "다른 의사도 이 처방을 썼지만 2제를 다 먹었는데도 병세가 여전하고 땀은 더 많이 나옵니다."고 하였다. 내가 "장중경이 계지, 마황, 갈근 3가지를 모두 쓴 처방이 아닌지요?"라고 하니, "그렇습니다."고 하기에, 내가 "잘못 되었습니까. 이 처방에는 마황이 있으니 복용하면 땀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임억(林億)은 계지탕에 갈근만 더한 처방이라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마황을 빼고 환자에게 복용시켰더니 땀이 약간 나면서 병이 풀렸다.

1. 建康 : 오늘날의 강소성 남경시에 해당한다. ↩

2. 桂枝加葛根湯 : 통용되는 계지가갈근탕과 갈근탕은 약재 조성이 동일하다. 유도주의 《상한론전해》에 제시된 처방을 보면 아래와 같다. "桂枝加葛根湯方: 葛根〔四兩〕, 芍藥〔三兩〕, 甘草〔二兩〕, 生薑〔三兩. 切〕, 大棗〔十二枚. 擘〕, 桂枝〔二兩. 去皮〕, 麻黃〔三兩. 去節〕.", "葛根湯方: 葛根〔四兩〕, 麻黃〔三兩. 去節〕, 桂枝〔二兩. 去皮〕, 芍藥〔二兩. 切〕, 甘草〔二兩. 炙〕, 生薑〔三兩. 切〕, 大棗〔十二枚. 擘〕." 이 때문에 임억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남겼다. "臣億等謹按: 仲景本論, 太陽中風自汗用桂枝, 傷寒無汗用麻黃, 今證云汗出惡風, 而方中有麻黃, 恐非本意也. 第三卷有葛根湯證云無汗惡風, 正與此方同, 是合用

麻黃也. 此云桂枝加葛根湯, 恐是桂枝中但加葛根耳(신 임억 등이 삼가 살펴 본 바 장중경의 《상한론》에서 '태양중풍으로 자한이 날 경우에는 계지탕을 쓰고 상한으로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마황탕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계지가갈근탕증에서는 '땀이 나고 오통이 난다.'고 하였으나 처방 속에 마황이 있으니 아마도 본래의 의미가 아닌 듯합니다. 제3권의 갈근탕증에서 '땀이 나지 않고 오통이 난다.'고 하면서 이 처방과 완전히 동일하게 마황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지가갈근탕은 아마도 계지탕에 갈근만을 더한 것인 듯합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계지탕방은 다음과 같다. "桂枝(三兩. 去皮), 芍藥(三兩), 甘草(二兩. 炙), 生薑(三兩. 切), 大棗(十二枚. 擘)" 이 때문에 이 책의 저자와 임억은 이 계지탕방에 갈근만을 더한 것을 계지가갈근탕이라고 본 것이다. ↩

葛根湯證 二十

【20】갈근탕증

市人楊姓者, 病傷寒, 無汗, 惡風, 項雖屈而強, 醫者以桂枝麻黃各半湯與之. 予曰: "非其治也. 是謂項強¹, 葛根證也." 三投, 漑漑然微汗解. 翌日項不強, 脈已和矣.

상인 양 씨(楊氏)가 상한에 걸려 땀이 나지 않고 오풍이 있으며 목을 굽힐 수는 있으나 뻣뻣하여 의사가 계지마황각반탕을 투여하였다. 나는 "맞는 치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뻣뻣하여 고개를 움직이지 못한다.'(sm/제31조(032))고 말하는 것이니 갈근탕증입니다."고 하였다. 3제를 투여하니 계속 조금씩 땀이 나면서 병이 풀렸다. 다음날 목이 뻣뻣하지 않고 맥이 조화로웠다.

論曰: 何謂? 如短羽鳥之狀, 雖屈而強也. 謝復古謂: "病患羸弱, 須憑几而起." 非是. 此與成氏解²不同.

(논)(수수)란 무엇인가? 날개가 짧은 새의 모습과 같은 것이니 목을 굽힐 수는 있지만 뻣뻣한 것이다. 사복고(謝復古)는 "병환으로 몸이 쇠약해져 반드시 안석(几)에 기대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고 했으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면 성무기(成無己)의 해석과 다르게 된다.

¹. : 유도주의 《상한론통속강화》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수수)는 원래 짧은 날개를 가진 새가 목을 빼고 날아오르려 하지만 날지 못하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목덜미와 등이 뻣뻣해져서 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였다." 유도주의 설명은 본서의 내용과 성무기의 해석을 합해놓은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복고는 '안석'이라는 의미의 '几(几)'로 읽은 것이다. ↗

². 成氏解: '성무기의 해석'. 성무기는 《주해상한론》에서 " 者, 伸頸之貌也.

動則伸頸, 搖身而行. 項背强者, 動則如之〔수수는 목을 뺀 모양이다. 움직일 때 목을 빼고 몸을 흔들면서 걷는다. 목과 등이 뻣뻣한 사람이 움직이면 이와 같다).〕"고 하였다. ←



剛瘧證 二十一

【21】강치증

宣和戊戌, 表兄秦雲老病傷寒, 身熱足寒, 頸項痠癢, 醫作中風治, 見其口噤故也. 予診其脈實而有力, 而又腳攣, 嚙齒, 大便不利, 身燥無汗. 予曰: "此剛瘧也." 先以承氣湯下之, 次以續命湯調之, 愈矣.

선화(宣和) 무술년(1119)에 사촌형 진운(秦雲)이 늙은 나이에 상한을 앓았다. 몸에 열이 나면서 발이 차고 목덜미에 경련이 일었는데, 의사가 중풍이라 여겨 치료한 것은 그가 입을 앙다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찰해보니 그 맥은 실(實)하면서 유력했다. 또한 다리에 경련이 있고 이를 앙다물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몸이 건조하며 땀이 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은 강치입니다."고 하면서 우선 대승기탕으로 공하하고 다음으로 속명탕으로 조리했더니 나았다.

論曰: 〈五常政大論〉曰: "赫曦之紀, 上羽與正徵同, 其收齊, 其病瘧." 蓋戊太陽寒水羽也, 戊火運正徵也, 太過之火, 上見太陽, 則天氣且剛, 故其收齊, 而人病瘧者, 過氣然耳. 火木遇, 故年病, 此證多剛瘧.

〔논〕《소문》〈오상정대론〉에서 "赫曦(赫曦)의 해 [6개의 무년戊年] 에 태양한수가 사천司天하면(上羽) 정상적인 화운火運과 같아지니(正徵), 금의 수렴이 온전해지고 병들 경우 경련(瘧)이 발생합니다."고 하였다. 술(戊)은 태양한수요 우(羽)니, 무(戊)의 화운(火運)을 정상적인 화운으로 억누를 수 있다. 태과(太過)의 화(火)에 위로 태양한수가 사천하면 천기 또한 강렬히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그 수렴하는 것이 온전해질지라도 사람이 경련증(瘧)을 앓는 것은 과도한 기 때문이다. 화와 목이 만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초에 들어오는 주기 혹은 주운이 목이다] 그 해에 병이 들면 이러한 강치증이 많은 것이다.



厥陰證 二十二

【22】결음증

里中¹中表²病, 渴甚, 飲水不止, 胸中熱疼, 氣衝心下, 八九日矣. 醫者或作中喝, 或作賁豚. 予診之曰: "證似厥陰, 曾吐蟲否?" 曰: "昨曾吐蛔." 予曰: "審如是, 厥陰證也. 可喜者脈來沈而緩遲耳. 仲景云: '厥陰爲病, 消渴, 氣上撞心, 飢不欲食, 食則吐蛔.' 又曰: '厥陰病, 渴欲飲水者, 少少與之, 愈.'" 今病患飲水過多, 乃以茯苓甘草白朮桂枝湯治之, 得止, 後投以烏梅丸, 數日愈.

마을에 사는 사촌 한 명이 병으로 갈증이 심해 물을 마셔도 그치지 않고 가슴 속이 뜨거우면서 아프며 기가 명치로 치받은 지 8~9일이 되었다. 의사 가운데는 중갈(中喝)이라는 사람도 있고 분돈(奔豚)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진찰한 후 "증이 결음증 같은데 회충을 토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어제 회충을 토했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참으로 이와 같다면 결음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맥이 침(沈)하면서 완지(緩遲)하다는 것입니다. 장증경은 '결음'이라는 병은 소갈이 있고 기가 가슴으로 치받으며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고 먹으면 회충을 토한다.'(sm/제326조(340))고 하였습니다. 또한 '결음병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자 할 경우에는 조금씩 물을 주면 낫는다.'(sm/제329조(343))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지금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이 심해졌기 때문에 복령감초백출계지탕으로 치료하니 갈증이 그쳤고, 이후에 오매환을 투여하니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 病至厥陰, 若太陽傳者, 三陰三陽皆已遍, 惟恐脈強, 則肝邪盛, 脾土受克, 故舌卷囊縮而死, 今脈來遲緩而沈, 則土脈得氣, 脾不受克, 故有可喜之道. 仲景云: "衛氣和, 名曰緩, 營氣和, 名曰遲, 遲緩相搏, 名曰沈." 又曰: "寸口脈, 緩而遲, 緩則陽氣長, 其色鮮, 其顏光, 其聲商, 遲則陰氣盛, 骨髓滿, 精血生, 肌肉緊." 營衛俱行, 剛柔相濟, 豈非安脈耶?

〔논〕 병이 결음에 이른 경우, 만약 이것이 태양에서부터 전경(傳經)된 것이라면 삼음삼양을 모두 거친 것이니 맥이 강(強)한 걸 조심해야 한다. 맥이 강하면 간의 사기가 성하여 비토가 억압되기 때문에 혀가 말리고 음낭이 쪼그라들면서 죽게 된다. 지금 맥이 지완(遲緩)하면서 침(沈)하니 토맥(土脈)이 제 기를 얻어 비가 억압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한 것이다. 장중경은 "위기가 조화로운 것을 완(緩)이라 하고 영기가 조화로운 것을 지(遲)라 하며 지맥과 완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침(沈)이라 한다." [〈평맥법〉] 고 하였다. 또한 "촌구맥이 완(緩)하면서 지(遲)한 경우, 완(緩)하면 양기가 자라나 낮빛이 선명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며 목소리가 맑으며(商聲), 지(遲)하면 음기가 성하여 골수가 채워지고 정혈이 생겨나며 기육(肌肉)이 튼튼해진다." [〈평맥법〉] 고 하였다. 영기와 위기가 모두 잘 운행되고 강직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조화되니 어찌 안정된 맥이 아니겠는가?

1. 一 : 一人 ※大成本 ←

2. 中表 : 아버지 혈통의 친척에 '내(內)'를 붙이고 아버지 혈통 이외의 친척에 '외(外)'를 붙이는데, 중(中)은 이 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표(表)'는 4촌이라는 의미이다. ←

太陰證 二十三

【23】태음증

曹生初病傷寒, 六七日, 腹滿而吐, 食不下, 身溫, 手足熱, 自利, 腹中痛, 嘔惡心. 醫者謂之陽多, 尙疑其手足熱, 恐熱蓄於胃中而吐嘔; 或見吐利而爲霍亂. 請予診, 其脈細而沈, 質之曰: "太陰證也.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予止以理中丸, 用仲景云如雞子黃大, 晝夜投五六枚, 繼以五積散, 數日愈.

조 씨(曹氏)가 갓 상한에 걸린 지 6~7일에 배가 그득하면서 토하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며 몸이 따뜻하고 손발에서 열이 나며 저절로 설사를 하고 배 속이 아프며 구역질이 나고 메스꺼웠다. 어떤 의사는 양기가 많아서라고 하였다. 손발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열이 위 속에 쌓여 구토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다른 의사는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보고 객란이라고 하였다. 나에게 진료를 청하여 살펴보니 맥이 세(細)하면서 침(沈)하여 "태음증입니다. 태음이라는 병은 배가 그득하면서 토하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설사가 더욱 심해지고 때로 배가 저절로 아픕니다."〔sm/제273조(286)〕고 바로잡아 줬다. 내가 이충환만 쓰되 장중경이 말한 대로 계란 노른자 크기만 하게 써서 밤낮으로 5~6매를 투여하고, 이어서 오적산을 쓰니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 予見世醫論傷寒, 但稱陰證陽證. 蓋仲景有三陰三陽, 就一證中又有偏勝多寡, 須是分明辯質在何經絡, 方與證候相應, 用藥有準. 且如太陰少陰, 就陰證中自有補瀉, 豈可止謂之陰證也哉!

(논) 내가 요즘 의사들이 상한을 논하는 것을 보니 다만 음증·양증만 이야기한다. 장중경은 삼음삼양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증에는 또 편승다과(偏勝多寡)가 있으니 반드시 어느 경락에 있는지를 분명히 변별하고 따져

야만 비로소 증후와 들어맞아 약을 정확히 쓸 수 있다. 게다가 태음·소음의 경우는 곧 음증 가운데 원래부터 보(補)·사(瀉)라는 치법의 차이가 있으니, 어찌 이것들을 음증이라고만 해서야 쓰겠는가!



太陽中喝證 二十四

【24】태양중갈증

毗陵一時官得病, 身疼痛, 發熱, 體重, 其脈虛弱. 人多作風濕, 或作熱病, 則又疑其脈虛弱, 不敢汗也, 已數日矣. 予診視之, 曰: "中喝證也. 仲景云: '太陽中喝者, 身熱體疼, 而脈微弱. 此以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也.'" 予以瓜蒂散治之, 一呷而愈.

비릉(毗陵)의 어떤 현직 관리가 병이 들어 몸에 동통이 있고 열이 나며 몸이 무겁고 그 맥은 허약(虛弱)하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풍습(風濕)이라 여겼고 일부 사람들은 열병(熱病)이라 하였다. 하지만 또 그 맥이 허약하여 감히 땀을 낼 수도 없다고 의심하다가 이미 며칠이 지나버렸다. 내가 진찰한 후 "중갈증입니다. 장중경은 '태양중갈은 몸에서 열이 나고 전신이 동통하며 맥이 미약하다. 이것은 여름에 찬물에 손상되어 수기(水氣)가 피부 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고 하면서, 과체산으로 치료하니 1번 마시고 나았다.

論曰: 仲景論喝有三證: 一則汗出, 惡寒, 身熱而渴, 此太陽經中喝也; 一則發熱惡寒, 身疼痛, 其脈弦細芤遲; 一則夏月傷冷水, 水行皮中, 身熱, 疼痛重而脈微弱. 不可下, 不可行溫鍼. 上二證皆宜用白虎加人參湯, 後一證宜用瓜蒂散. 方治不見於本論, 而見於《金匱要略》, 其脈證云: "治太陽中喝, 身熱, 疼痛, 而脈微弱者, 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 宜瓜蒂散." 蓋謂此也.

〔논〕 장중경이 논한 갈(喝)에는 3가지 병증이 있다. 첫째는 땀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몸에 열이 나고 갈증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태양경 중갈이다. 둘째는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몸에 동통이 있고 그 맥이 현세규지(弦細芤遲)한 것이다. 셋째는 여름에 찬물에 손상되어 수기(水氣)가 피부 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고 동통이 심하면서 맥이 미약(微弱)한 것이다. 이때는 공하를 해서는 안 되고 온침을 써서도 안 된다. 앞의 2가지 병증은 모두 백호가인삼탕을 써야 하고, 마지막 병증은 과체산을 써야 한다. 처방과 치법이 《상한론》

에는 보이지 않고 《금궤요략》에 보이는데, 그 맥증에서 "태양중갈로 몸에 열이 나고 동통이 있으며 맥이 미약한 것은 여름에 찬물에 손상되어 수기가 피부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니, 치료는 과체산을 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것을 이르는 듯하다.



指甲黑靑證 二十五

【25】손톱이 검푸르게 되는 병증

乾明¹ 僧人, 病傷寒, 目赤, 頗渴, 咽乾, 飲水無筭, 腰疼, 身熱, 脈沈而微細, 此少陰證也. 恣縱不慎忌, 乃飲水, 遂致痞氣, 痞氣結聚, 身如被杖, 數日變爲陰毒矣. 脈見於皮膚上, 大而且虛, 鼻中如煙煤, 甲靑, 須臾發喘, 是夕死.

건명사(乾明寺)의 스님이 상한에 걸려 눈이 붉고 갈증이 꽤 심하면서 목이 건조하여 물을 수없이 마시며 허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났다. 맥은 침(沈)하면서 미세(微細)하였다. 이것은 소음증이다. 조심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물을 마셔 결국 비기(痞氣)가 되었고, 비기가 뭉쳐서 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 같더니 며칠이 지나서는 변하여 음독(陰毒)이 되었다. 맥이 피부에서 보일 정도로 대(大)하긴 하지만 허(虛)하고 콧속에 그을음 같은 것이 새까맣게 끼며 손톱이 푸르더니 얼마 있다가 숨이 가빠지고 그날 저녁에 죽었다.

論曰：扁鵲云：“手足爪下靑黑者，死。”² 宋迪《陰證訣》云：“陰毒盛，則指甲黑靑，病至此則爲不治。”

〔논〕 편작은 "손발톱 아래의 살이 검푸른 경우에는 죽는다." [《맥경》권5〈편작화타찰성색요결제사扁鵲華佗察聲色要訣第四〉] 고 하였다. 송적(宋迪)의 《음증결陰證訣》에서는 "음독이 성하면 손톱이 검푸르게 되는데, 병이 이 지경에 이르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1. 乾明：'건명사'는 하남성 허창시(許昌市) 양성현(襄城縣)에 위치한 절이다. 당나라 때 세워졌으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

2. "手足爪下靑黑者，死."：이 부분은 《맥경》을 압축적으로 인용해 놓았다. 《맥경》에서 "病人爪甲靑者，死

病人爪甲白者, 不治

病人手足爪甲下肉黑者, 八日死〔환자의 손톱이 푸른 경우에는 죽고, 환자의 손톱이 허옇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할 수 없으며, 환자의 손발톱 아래의 살이 검게 되는 경우에는 8일 만에 죽는다〕."고 하였다. 본문의 '手足爪下靑黑者, 死'에서 '下' 아래 '肉'자가 없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번역문은 이 글자를 넣어서 반영하였다. ↩



瞪目直視證 二十六

【26】눈을 부릅뜬 채 앞쪽만 보는 병증

田仲容得傷寒數日, 身熱, 手足時厥, 腹滿, 瞪目直視, 狂言不識人. 予診之曰: "不可治也. 心腎俱絕矣." 夜死.

전중용(田仲容)이 상한에 걸린 지 며칠 지나서 몸에 열이 나고 손발이 때로 결랭하며 배가 그득하고 눈을 부릅뜬 채 앞쪽만 보며 미친 소리를 해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가 진찰한 후 "고칠 수 없습니다. 심기(心氣)와 신기(腎氣)가 모두 끊어졌습니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다.

論曰: 仲景云: "直視搖頭, 此爲心絕也." 又曰: "狂言, 反目直視, 此爲腎絕也." 目者五臟精華之所聚, 今直視而不眴, 則知五臟有死絕矣, 故不治.

〔논〕 장중경은 "앞쪽만 보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기(心氣)가 끊어져서이다." [〈변맥법〉] 고 하였다. 또한 "미친 소리를 해대고 눈을 치켜뜨는 것은 신기(腎氣)가 끊어져서이다." [〈변맥법〉] 고 하였다. 눈은 오장의 정화가 모인 곳인데 지금 앞쪽만 보고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하니 오장의 기가 죽을 정도로 끊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舌卷囊縮證 二十七

【27】허가 말리고 음낭이 쪼그라드는 병증

句容縣¹ 豪子李姓, 初得傷寒, 手足冷, 氣上衝心, 飢不欲食, 脈緊而弦. 予診曰: "厥陰悉具, 脈有刑剋, 最忌舌卷囊縮." 翌日卷舌而死.

구용현(句容縣)의 호족 자제 이 씨(李氏)가 상한에 갓 걸려서 손발이 차고 기가 가슴으로 치받으며 배는 고파도 식욕이 없고 맥이 긴(緊)하면서 현(弦)하였다. 내가 진찰한 후 "겉음증이 모두 갖추어지고 맥상이 매우 위험하니, 허가 말리고 음낭이 쪼그라들까 매우 염려됩니다."고 했는데, 다음날 허가 말리더니 죽었다.

論曰: 《內經》云: "厥陰者, 肝也; 肝者, 筋合之. 筋者, 聚於陰器, 絡於舌本." 厥陰之氣² 故舌卷而囊縮也.

〔논〕《내경》에서 "겉음은 간이고, 간은 근과 상합한다. 근은 생식기로 모이고 혀뿌리에 연결된다." [《소문》〈열론熱論〉] 고 하였다. 겉음의 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허가 말리고 음낭이 쪼그라든 것이다.

1. 句容縣: 오늘날의 강소성 구용시이다. ↩

2. 氣: 氣絶 ※大成本 ↩

循衣摸牀證 二十八

【28】옷을 만지작거리고 침상을 더듬는 병증

儀眞¹一婦, 病傷寒, 八九日, 發熱, 昏悶不識人, 手循衣縫摸牀, 譫語, 不識人事. 他醫不識, 或汗或利, 旬日增甚. 予診之曰: "此脈澁而小便不利, 不可治也." 翌日死.

의진(儀眞)의 어떤 부인이 상한에 걸린 지 8~9일에 열이 나고 의식이 혼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손으로 옷의 솔기를 만지작거리고 침상을 더듬으며 헛소리를 하고 인사불성이었다. 다른 의사들이 알지 못하고는 혹은 한법을 쓰고 혹은 하법을 써서 10일이 지나자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 내가 진찰한 후 "이 것은 맥이 삭(澁)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고 했는데, 다음날 죽었다.

論曰: 華佗云: "病人循衣摸床, 譫語, 不可治." 仲景云: "傷寒吐下後不解, 不大便五六日, 發潮熱, 不識人, 循衣撮空, 微喘直視, 脈弦者生, 脈澁者死." 又云: "小便利者可治." 今脈澁, 小便不利, 見其兩死, 不見一生, 吾莫能爲也.

〔논〕 화타는 "환자가 옷을 만지작거리고 침상을 더듬으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장중경은 "상한에 토하게 하거나 설사를 시킨 후에 풀리지 않고 5~6일이 되도록 대변을 보지 못하며 조열이 일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옷을 만지작거리고 허공을 움켜쥐며 숨을 약간 헛떡이고 앞쪽만 볼 경우, 맥이 현(弦)하면 살고 맥이 삭(澁)하면 죽는다."〔sm/제212조(225)〕고 하였다. 또한 "소변이 잘 나오면 고칠 수 있다."〔sm/제111조(117)〕고 하였다. 지금 맥이 삭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 두 가지의 죽는 경우는 보이지만 한 가지 사는 경우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儀眞 : 오늘날의 강소성 의정시(儀征市). [↩](#)



邪入大經證 二十九

【29】사독(邪毒)이 큰 경락 속으로 흘러들어간 병증

維揚¹謝康中, 任儀眞²酒官, 咽乾, 煩渴, 腰疼, 身熱, 脈細而微急. 予診視之曰: "此眞少陰證也." 六經之中, 少陰難治, 少陰病傳之經絡, 此證有補瀉法, 仲景瀉者用承氣, 補者用四逆, 誤之則相去遠矣. 此證當溫, 勿以水證爲疑也. 予適以事出境, 後七日歸, 則爲他醫汗之矣. 經絡既虛, 邪毒流入大經之中, 手足痠癢, 如驚癇狀, 其家狼狽求救. 予曰: "不可治也. 予驗此甚多, 是謂邪入大經." 不旋踵, 其家已哭矣.

유양(維揚)의 사강중(謝康中)은 의진(儀眞)에서 주관(酒官)을 맡고 있었는데, 목이 건조하고 번갈이 있으며 허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며 맥이 세(細)하면서 조금 급(急)하였다. 내가 살펴본 후 "이것은 진정 소음증입니다."고 하였다. 육경병증 가운데 소음병은 고치기 어렵다. 소음병이 경락으로 전해진 경우, 이 증의 치료에는 보법(補法)과 사법(瀉法)이 있다. 장중경은 사할 경우에는 대승기탕을 쓰고 보할 경우에는 사역탕을 썼으니, 잘못 쓰면 생사가 갈린다. 이번 환자의 병증은 온법(溫法)을 써야 하니 수증(水證)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침 일이 있어 의진 경내를 벗어나 7일 후에 돌아왔더니 다른 의사가 한법(汗法)을 써버렸다. 경락이 이미 허해지고 사독(邪毒)이 큰 경락 속으로 흘러들어 경간(驚癇)이 발작한 것처럼 손발이 경련하자 집안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며 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매우 많이 경험하였는데 이것을 일러 '사기가 큰 경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전에 그 집안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렸다.

1. 維揚 : 오늘날의 강소성 양주시(揚州市) 경내. ↩

2. 儀眞 : 오늘날의 강소성 의정시(儀征市). ↩



太陽桂枝證 三十

【30】태양계지증

鄉人吳德甫得傷寒，身熱自汗，惡風，鼻出涕，關以上浮，關以下弱。予曰："此桂枝證也。仲景法中第一方，而世人不究耳。"但¹公服之，一啜而微汗解，翌日諸苦頓除。公曰："仲景法如此徑捷，世人何以不用?"予應之曰："仲景論表證，一則桂枝，二則麻黃，三則青龍。桂枝則治中風，麻黃治傷寒，青龍治中風見寒脈，傷寒見風脈。此三者，人皆能言之，而不知用藥對證之妙處，故今之醫者，多不喜用，無足怪也。且脈浮而緩，中風也，故嗇嗇惡寒，淅淅惡風，翕翕發熱，仲景以桂枝對之。脈浮緊而澀，傷寒也，故頭痛發熱，身疼腰痛，骨節皆疼，惡風，無汗而喘，仲景以麻黃對之。至於中風脈緊，傷寒脈浮緩，仲景皆以青龍對之。何也?予嘗深究三者，審於證候脈息，相對用之，無不應手而愈。何以言之?風傷衛，衛，氣也。寒傷營，營，血也。營行脈中，衛行脈外。風傷衛，則風邪中於陽氣，陽氣不固，發越而爲汗，是以汗出而表虛，故仲景用桂枝以發汗，芍藥以利其血。蓋中風病在脈之外，其病稍輕，雖同曰發汗，特解肌之藥耳。故桂枝證云：'令遍身絳絳，微似有汗者益佳，不可如水淋漓，病必不除。'是知中風不可大發其汗，發其汗，反動營血，邪乘虛而居中，故病不除也。寒傷營，則寒邪干於陰血，而營行脈中者也，寒邪客於脈中，非特營受病也，邪自內作，則併於衛氣犯之，久則浸淫及骨，是以汗不出而熱，煩冤，仲景以麻黃大發其汗，又以桂枝辛甘助其發散，欲捐其內外之邪，營衛之病耳。大抵二藥皆發汗，而桂枝則發衛之邪，麻黃併衛與營而治之。仲景桂枝第十九證云：'病常自汗出者，此爲營氣和，營氣和者外不諧，以衛氣不共營氣和諧故耳。營行脈中，衛行脈外，復發其汗，營衛和則愈，宜桂枝湯。'又第四十七證云：'發熱汗出者，此謂營弱衛強，故使汗出，欲救風邪，宜桂枝湯。'是知中風汗出者，營和而衛不和也。又第一卷云：'寸口脈浮而緊，浮則爲風，緊則爲寒，風則傷衛，寒則傷營，營衛俱病也。'麻黃湯中，併桂枝而用，此仲景之意歟!

至於靑龍, 雖治傷寒見風脈, 傷風見寒脈, 然仲景云: '汗出惡風, 不可服之, 服之則厥逆, 筋惕肉瞤.' 故靑龍一證尤難用, 須是形證的當, 然後可行, 王²寔大夫證治中, 止用桂枝麻黃各半湯代之, 蓋慎之也夫!"

동향 사람 오덕보(吳德甫)가 상한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자한이 나며 오풍이 있고 콧물이 나며 촌맥은 부(浮)하고 척맥은 약(弱)하였다. 나는 "이것은 계지탕증입니다. 장중경의 치법 가운데 첫 번째 처방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고 하였다. 오덕보에게 복용시키니 1번 복용하고는 땀이 약간 나면서 병이 풀리고 다음날 모든 병증이 일제히 사라졌다. 오덕보가 "장중경의 치법이 이처럼 빠른데 세상 사람들은 왜 쓰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내가 "장중경이 표증을 논할 때 첫째는 계지탕, 둘째는 마황탕, 셋째는 대청룡탕이었습니다. 계지탕은 중풍을 치료하고, 마황탕은 상한을 치료하며, 대청룡탕은 중풍에 상한의 맥상이 보이거나 상한에 중풍의 맥상이 보이는 것을 치료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할 수 있지만 약을 써서 병증을 치료하는 묘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의사들이 대부분 즐겨 쓰지 않는 것이니 괴이할 것도 없습니다. 또 맥이 부(浮)하면서 완(緩)한 것은 중풍입니다. 그러므로 오싹오싹 오한이 들고 으슬으슬 오풍이 생기며 후끈후끈 열이 날 때 장중경은 계지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맥이 부긴(浮緊)하면서 습(澁)한 것은 상한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몸에 동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며 뼈마디가 다 아프고 오풍이 있으며 땀이 나지 않으면서 숨을 헐떡일 때 장중경은 마황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중풍에 맥이 긴(緊)한 것과 상한에 맥이 부완(浮緩)한 경우, 장중경은 모두 대청룡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어째서 일까요? 내 일찍이 이 셋을 깊이 연구한 후 증후와 맥상을 자세히 살펴 서로 맞는 병증에 써보았더니 치료하여 낫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풍은 위분을 손상시키고 위(衛)는 기(氣)입니다. 한은 영분을 손상시키고 영(營)은 혈(血)입니다. 영혈은 맥 안에서 운행하고 위기는 맥 밖에서 운행합니다. 풍이 위분을 손상시키면 풍사가 양기에 적중하여 양기가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니 영혈이 밖으로 새어 나가 땀이 됩니다. 이 때문에 땀이

나면서 표(表)가 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중경은 계지로 발한시키고 작약으로 그 영혈을 소통시켰던 것입니다. 중풍은 병이 맥관 밖에 있어서 그 병세가 조금 가볍습니다. 똑같이 '발한시킨다'고 하지만 단지 해기(解肌)시키는 약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계지탕증에서 '온몸이 축축하게 약간 땀이 나는 듯한 정도가 더욱 좋다. 물이 흥건하듯이 땀을 내면 안 되니 병이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sm/제12조(013))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중풍에 땀을 크게 내어서는 안 되니, 땀을 크게 내면 오히려 영혈을 격동시켜 사기가 허한 틈을 타고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병이 제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이 영분을 손상시키면 한사가 음혈을 건드리게 됩니다. 영혈은 맥관 속을 운행하는 것이니 한사가 맥관 속에 머무르면 영혈만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가 안에서 발작하면 위기를 아울러 침범하게 되고 오래되면 차츰차츰 뼈까지 침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땀이 나지 않으면서 열이 나고 가슴이 매우 답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중경은 마황으로 땀을 크게 내고 또 계지의 신감(辛甘)함으로 그 발산을 도와 영위를 병들게 한 안팎의 사기를 없애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대체로 이 두 가지 약은 모두 발한시키지만 계지는 위분의 사기를 발산시키고 마황은 위분과 영분을 같이 치료합니다. 장중경은 계지탕 제19증에서 '병으로 늘 자한이 나는 것은 영기가 순조롭기 때문이다. 영기가 순조로운데도 체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위기가 영기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기는 맥관 속을 운행하고 위기는 맥관 밖을 운행하기 때문에 다시 발한시켜 영위가 조화되면 낫게 되니 계지탕을 써야 한다.'(sm/제53조(054))고 하였습니다. 또 제47증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은 영분이 약하고 위분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땀이 나는 것이니, 풍사를 치료하려면 계지탕을 써야 한다.'(sm/제95조(099))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중풍에 땀이 나는 것은 영분은 순조로우나 위분이 조화롭지 못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1권에서 '춘구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할 경우 부한 것은 풍(風)을 의미하고 긴한 것은 한(寒)을 의미하며 풍은 위분을 손상시키고 한은 영분을 손상시키니 영위가 모두 병든 것이다.' [〈변맥법〉]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황탕 속에 계지도 넣어서 쓰니 이것이 바로 장중경의 뜻인 것 같습니다! 대청룡탕의 경우 비록 상한에

중풍의 맥이 보이거나 중풍에 상한의 맥이 보이는 것을 치료하지만 장중경이 '땀이 나면서 오풍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해서는 안 되니, 복용하면 궤역(厥逆)이 생기고 근육이 경련하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청룡탕증은 더욱 약을 쓰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형증(形證)과 딱 맞아떨어진 연후에 쓸 수 있습니다. 왕실(王實)이라는 대부가 변증하고 치료할 때에 다만 계지마황각반탕으로 대체했던 것은 아마도 신중히 해서일 것입니다!"고 응답하였다.

1. 但 : 使 ※ 董本 ←

2. 寔 : '實'과 통용되는 글자이다. 왕실(王實)은 송대의 의사 이름이다. ←

桂枝證 三十一

【31】계지탕증

里間張太醫家一婦, 病傷寒, 發熱, 惡風, 自汗, 脈浮而弱. 予曰: "當服桂枝." 彼云: "家有自合者." 予令三啜之, 而病不除. 予詢其藥中用肉桂耳, 予曰: "肉桂與桂枝不同." 予自治以桂枝湯, 一啜而解.

우리 마을 장태의(張太醫) 집안의 어떤 부인이 상한에 걸려 열이 나고 오통이 있으며 자한이 나고 맥은 부(浮)하면서 약(弱)하였다. 내가 "마땅히 계지탕을 복용해야 합니다."고 하니, 그는 "집에 약을 지을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3번 복용하라고 하였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내가 약에 육계를 썼는지 물어보고는 "육계와 계지는 같지 않습니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계지탕을 처방하니 1번 복용하고 풀렸다.

論曰: 仲景論用桂枝者, 蓋取桂枝輕薄者耳, 非肉桂之肉濃也. 蓋肉桂濃實, 治五臟用之, 取其鎮重. 桂枝清輕, 治傷寒用之, 取其發散. 今人一例, 是以無功.

〔논〕장중경이 계지를 쓴다고 논한 것은 계지의 가볍고 연한 성질을 취한 것일 따름이지, 육계의 무겁고 진한 성질을 취한 것이 아니다. 육계는 진하고 두꺼워 오장을 치료할 때 쓰니 무겁게 누르는 효능을 취한 것이다. 계지는 맑고 가벼워 상한을 치료할 때 쓰니 발산하는 효능을 취한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계지와 육계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少陰證 三十二

【32】소음증

有人病傷寒數日, 自汗, 咽喉腫痛, 上吐下利, 醫作伏氣. 予診之曰: "此證可疑, 似是之非, 乃少陰也. 其脈三部俱緊, 安得謂之伏氣? 伏氣脈必浮弱, 謂非時寒冷, 着人肌膚, 咽喉先痛, 次下利者是也. 近雖有寒冷不時, 然當以脈證爲主. 若誤用藥, 其斃可待." 予先以吳茱萸湯救之, 次調之以諸藥而愈.

어떤 사람이 상한에 걸린 지 여러 날 되어 자한이 나고 인후가 부으면서 아프며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자 의사는 복기(伏氣)라고 하였다. 내가 진찰한 후 "이 병증은 그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복기인 것 같지만 아니니 바로 소음증입니다. 그 맥이 삼부가 모두 긴(緊)한데 어떻게 복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기의 맥은 반드시 부약(浮弱)합니다. 다른 시기의 한랭이 사람의 피부(肌膚)에 달라붙어 인후가 먼저 아프고 다음으로 설사를 하는 것이 바로 복기입니다. 최근의 한랭이 때에 맞지 않기는 하지만 마땅히 맥·증을 위주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약을 잘못 쓰면 죽게 됩니다."고 하면서, 먼저 오수유탕으로 치료한 후 여러 약으로 조리를 하였더니 나았다.

論曰: 仲景論伏氣之病, 其脈微弱, 喉中痛, 似傷寒, 非喉痺也, 實咽中痛, 今復下利. 仲景少陰云: "病人手足〔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證, 法當咽痛而復吐利." 此證見〈少陰篇〉. 今人三部脈俱緊, 而又自汗, 咽痛下利, 與伏氣異. 然毫釐之差, 千里之謬, 須講熟此書, 精詳分別, 庶免疑惑矣.

〔논〕 장중경이 논한 복기라는 병은 그 맥이 미약(微弱)하고 인후가 아프며, 상한과 비슷하고 후비(喉痺)는 아니며, 원래 목구멍이 아프다가 나중에는 계속 설사를 하는 것이다. [〈평맥법〉] 장중경이 소음증에서 "환자의 음양맥이 모두 긴(緊)한데 도리어 땀이 나는 경우는 망양(亡陽)이다. 이는 소음증에 속하기 때문에 이치상 인후가 아프면서 계속 토하고 설사하게 되어 있다."〔sm/제

283조(297))고 하였다. 이 병증은 〈소음병〉편에 보인다. 지금 환자의 삼부의 맥이 모두 긴한데다 또 자한이 나고 인후가 아프며 설사를 하니 복기와는 다르다. 하지만 털끝만한 차이가 매우 큰 오류를 만드는 법이니, 반드시 이 책을 익숙해지도록 읽고 자세히 분별해야만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少陽證 三十三

【33】소양증

市人周姓者, 同里俱病, 頭痛發熱, 耳聾目赤, 胸中滿悶. 醫中見外證胸滿, 遂吐之, 既吐後, 病宛然在. 又見其目赤發熱, 復利之, 病不除, 惴惴然恟栗. 予診視之, 曰: "少陽誤吐下之過也. 仲景: '少陽中風, 兩耳無聞, 目赤, 胸滿而煩者, 不可吐下, 吐下則驚而悸.' 此當用小柴胡湯, 今誤吐下, 遂成懷¹證矣." 乃以牡蠣四逆湯調於前, 繼之以桂枝柴胡各半湯, 旬日瘥.

상인 주 씨(周氏)와 같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병들었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귀가 먹고 눈이 붉으며 가슴이 그득하면서 답답하였다. 의사가 중간에 가슴이 그득한 외증(外證)을 보고서 마침내 토법을 썼지만 토법을 쓰고 난 후에도 병은 여전하였다. 또 그 눈이 붉고 열이 나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하법을 썼지만 병은 낫지 않고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진찰한 후 "소양병에 토법과 하법을 잘못 쓴 과오입니다. 장증경은 '소양증풍으로 두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붉으며 가슴이 그득하면서 답답한 경우에는 토법이나 하법을 써서는 안 되니, 토법이나 하법을 쓰면 잘 놀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sm/제264조(277)〕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소시호탕을 써야 하는데 지금 토법과 하법을 잘못 써서 결국 괴증(壞證)이 되었습니다."고 하면서, 먼저 모려사역탕(계지거작약가축칠용골모려구역탕(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救逆湯))으로 조리하고 이어서 계지시호각반탕을 썼더니 열흘 만에 나았다.

論曰: 仲景雖云: "三陽受病, 未入於臟者, 可汗." 然少陽脈弦細, 則不可汗, 將入少陰經也. 若誤吐下之, 是逆之, 且當以救逆, 先待驚悸定, 後治餘證, 此所謂急其所當先也.

〔논〕 장중경은 "삼양경이 모두 병을 받더라도 장(臟)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한법을 쓸 수 있다."고 하였지만, 소양병으로 맥이 현세(弦細)하면 한법을 쓸 수 없으니〔sm/제265조(278)〕 한법을 쓰면 장차 소음경으로 들어간다. 만약 잘못하여 토법이나 하법을 쓰면 역증(逆證)이 된다. 우선 구역탕을 써서 먼저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진정된 후에 나머지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급히 치료한다는 것이다.

1. 懷 : 懷 ※문맥상 →

兩感證 三十四

【34】양감증

族弟初得病, 頭痛, 口乾, 煩渴. 第三日, 予往視之, 則已耳聾囊縮, 昏冒不知人, 厥逆, 水漿不下矣. 予曰: "速治後事, 是謂兩感證, 不可治矣." 越三日死.

친척 동생이 갓 병에 들어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번갈이 있었다.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가서 살펴보니 이미 귀가 먹고 음낭이 쪼그라들며 정신이 혼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권역이 있으며 물을 삼키지 못하였다. 내가 "속히 죽은 뒤의 일을 처리하십시오. 이것은 양감증이니 고칠 수 없습니다."고 했는데, 3일이 지나 죽었다.

論曰: 仲景論傷寒兩感云: "凡傷於寒, 熱雖甚不死, 若兩感於寒而病者必死." 又曰: "兩感病俱作, 治有先後, 發表攻裏, 本自不同." 既云必死, 又云治有先後, 何也? 大抵此病, 表裏雙傳, 臟腑俱病, 患此者十無一生, 故云必死. 然仲景豈以己見而重誣後人哉? 故有發表攻裏之說, 以勉後人, 恐萬世後遇大聖而得之, 不欲絕望於後人, 仲景之心仁矣!

〔논〕 장중경은 상한양감을 논하면서 "한사(寒邪)에 손상되면 열이 심하더라도 죽지는 않지만, 표리가 모두 한사에 감촉되면 환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상한례傷寒例〉] 고 하였다. 또 "표리가 모두 감촉되어서 병들면 치료에 선후가 있으니 표(表)를 발산시키는 것과 이(裏)를 공략하는 것은 본래 전혀 다른 치법이다." [〈상한례〉] 고 하였다. 이미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면서 또 "치료에는 선후가 있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이 병은 표리에 모두 전해져 장부가 다 병든 것이니 이 병을 앓는 경우에는 열 명 중에 한 명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중경은 어찌하여 사건으로 후인들을 거듭 혼란스럽게 했는가? 본디 표(表)를 발산시키는 방법

과 이(裏)를 공략하는 방법을 쓰는 데 선호가 있다고 설명하여 후인들을 독려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만세 후에 큰 성인이 치법을 터득하여 후인들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니 장중경의 마음이 참으로 어질구나!



三陽合病證 三十五

【35】삼양합병증

有市人李九妻,患腹痛,身體重,不能轉側,小便遺失.或作中濕治.予曰:"非是也,三陽合病證.仲景云見〈陽明篇〉第十證:'三陽合病,腹滿,身重,難轉側,口不仁,面垢,譫語,遺尿¹.不可汗,汗則譫語,下則額上汗出,手足逆冷.'"乃三投白虎湯而愈.

상인 이구(李九)의 아내가 병이 들어 배가 아프고 몸이 무거우며 몸을 돌리지 못하고 유뇨(遺尿)가 있었다. 어떤 의사가 중습(中濕)이라 여기고 치료를 하였다. 내가 "중습이 아니고 삼양합병증입니다. 장중경은 〈양명병〉편 제10증에서 '삼양합병은 배가 그득하고 몸이 무거우며 몸을 돌리기 힘들고 맛을 느끼지 못하며 얼굴에 때가 끼고 헛소리를 하며 유뇨가 있다. 땀을 낼 수 없으니 땀을 내면 헛소리를 하게 된다. 설사를 시키면 이마에 땀이 나고 손발에서 냉기가 올라온다.'(sm/제219조(232))고 하였습니다."고 하면서, 이에 백호탕 3제를 투여했더니 나았다.

1. 尿 : ㄹ尿 ※《상한론》↩

白虎加人參湯證 三十六

【36】백호가인삼탕증

從軍王武經病, 始嘔吐, 俄爲醫者下之, 已八九日, 而內外發熱. 予診之曰: "當行白虎加人參湯." 或云: "既吐復下, 是裏虛矣, 白虎可行乎?" 予曰: "仲景云見〈太陽篇〉二十八證: '若下後, 七八日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者, 白虎加人參湯.' 證相當也, 蓋吐者爲其熱在胃脘, 而脈致令虛大." 三投而愈.

군영에서 왕무경(王武經)이 병에 걸렸는데 처음부터 구토를 하였다. 의사는 곧 하법을 썼는데 8~9일이 지나니 안팎으로 열이 났다. 내가 진찰한 후 "마땅히 백호가인삼탕을 써야 합니다."고 하니, 누군가가 "이미 토하고 또 하법을 썼으니 이(裏)가 허한 상태인데 백호탕을 써도 되겠습니까?"고 하였다. 내가 "장중경이 〈태양병〉편 제28증에서 '설사를 시킨 후에 7~8일이 지나도록 병이 풀리지 않고 열이 이(裏)에 맺혀서 표리에 모두 열이 나는 경우에는 백호가인삼탕을 쓴다.'(sm/제168조(176))고 하였으니 증이 맞아떨어집니다. 토한 것은 아마도 열이 위완(胃脘)에 있어서일 것이며, 토한 것 때문에 맥이 허대(虛大)해진 듯합니다."고 하면서, 3제를 투여하니 나았다.

論曰: 仲景稱: "傷寒, 若吐下後, 七八日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者, 人參白虎湯主之." 又云: "傷寒脈浮, 無汗發熱, 不解, 不可與白虎湯." 又云: "脈滑, 爲表有熱, 裏有寒, 白虎湯主之." 國朝林億校正謂: "仲景此法, 必表裏字差矣." 是大不然. 大抵白虎能除傷寒中喝, 表裏發熱, 故前後證或云表裏俱熱, 或云表熱裏寒, 皆可服之, 宜也. 中一證稱表不解不可服者, 以其宜汗, 發熱, 此全是傷寒麻黃與葛根湯證, 安可行白虎? 林但見所稱表裏不同, 便謂之差, 是亦不思不精之過也.

〔논〕 장중경은 "상한에 토하게 하거나 설사를 시킨 후에 7~8일이 지나도록 병이 풀리지 않고 열이 이(裏)에 맺혀서 표리에 모두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인삼백호탕으로 주치한다." (sm/제168조(176))고 하였다. 또한 "상한에 맥이 부

(浮)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열이 나는 것은 표(表)가 풀리지 않은 것이니 백호탕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sm/제170조(178)〕고 하였다. 또 "맥이 활(滑)한 것은 표(表)에 열이 있고 이(裏)에 한이 있는 것이니 백호탕으로 주치한다."〔sm/제176조(185)〕고 하였다. 우리나라 [송나라] 임억(林億)은 교정본에서 "장중경의 이 치법은 필시 表裏(표리)라는 글자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으나 이는 크게 틀린 말이다. 대체로 백호탕은 상한 중갈(中渴)로 표리에 열이 나는 것을 없앤다. 그러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탕증에서 혹 '표리에 모두 열이 있다'고 한 경우와 혹 '표에 열이 있고 이(裏)에 한이 있다'고 한 경우에 모두 복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 탕증에서 '표가 풀리지 않은 것이니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발한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열이 나는 것은 전적으로 상한의 마황탕증과 갈근탕증이니 어찌 백호탕을 쓸 수 있겠는가? 임억은 오직 '표·리는 같지 않다'고 한 것만 보고서 오류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 역시 자세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다.

發熱惡寒證 三十七

【37】발열오한증

人患發熱惡寒自汗，脈浮而微弱，予以三服桂枝投之，遂愈。仲景云：太陽中風，陽浮而陰弱者，汗自出，齋齋惡寒，淅淅惡風，翕翕發熱，宜桂枝湯。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열이 나고 오한이 있으며 자한이 나고 맥은 부(浮)하면서 미약(微弱)하여 내가 계지탕을 3제 투여하니 마침내 나았다. 장중경은 "태양중풍은 양맥이 부(浮)하고 음맥이 완(緩)한 것이니, 자한이 나고 오싹오싹 오한이 들며 으슬으슬 오풍을 하고 후끈후끈 열이 난다. 계지탕을 써야 한다."〔sm/제12조(013)〕고 하였다.

論曰：仲景云："假令寸口脈微，名曰陽不足。陰氣上入陽中，則灑淅惡寒也。尺脈弱，名曰陰不足。陽氣下陷入陰中，則發熱。"此醫發其汗，使陽氣微，又大下之，使陰氣弱，此爲醫所病而然也。大抵陰不足，陽從之，故陽由¹陷發熱，陽不足，陰往乘之，故陰上入陽中，則惡寒。陰陽不歸其分，是以發熱惡寒也。故孫真人云："有熱，不可大攻之，熱去則寒起。"

〔논〕 장중경은 "가령 촌구맥이 미(微)하면 '양이 부족하다'고 한다. 음기가 올라가 양분으로 들어가면 오싹오싹 오한이 들게 되는 것이다. 척맥이 약(弱)하면 '음기 부족하다'고 한다. 양기가 아래로 몰려 음분으로 들어가면 열이 나게 되는 것이다." [〈변맥법〉] 고 하였다. 이는 의사가 땀을 내어 양기가 미미해 졌는데 또 크게 공하하면 음기가 약해지게 되니, 이것은 의사가 병들게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대개 음이 부족하면 양기가 쫓아가기 때문에 양기가 안으로 몰려 열이 나고, 양이 부족하면 음기가 가서 올라타기 때문에 음기가 올라가 양분으로 들어가니 오한이 든다. 음기와 양기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니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사막(孫思邈)은 "열이 있으면 크게 공하해서는 안 되니 열이 물러나면 한(寒)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1. 由 : 內 ※문맥상 ↗



結胸可下證 三十八

【38】결흉에 하법을 쓸 수 있는 병증

維揚¹李寅, 始病頭疼, 發熱, 惡風. 醫者下之, 忽爾心下堅硬, 項强, 短氣, 宛然結胸中證也. 予曰: "幸爾脈不浮, 心不煩躁. 非陷胸湯不可." 投之, 一宿乃下.

유양(維揚)의 이인(李寅)이 갓 병에 걸려 머리에 동통이 있고 열이 나며 오풍이 있었다. 의사가 공하를 하니 갑자기 명치가 뚝뚝하고 목덜미가 뻣뻣해지며 숨이 짧아져 결흉증인 듯하였다. 내가 "다행히 맥이 부(浮)하지 않고 가슴이 번조하지 않습니다. 대함홍탕이 아니면 안 됩니다."고 하면서, 대함홍탕을 투여하니 하룻밤 만에 내려갔다.

論曰: 仲景言: "病發於陽而反下之, 熱入於胸, 因作結胸者, 以下之太早故也." 蓋惡寒尚有表證未罷, 而下之, 故陽氣內陷, 陽²內拒痛. 脈浮者不可下, 下之則死, 結胸煩躁者必死. 此是惡證, 辯者仔細.

[논] 장중경은 "병이 양에서 발생하였는데 도리어 하법을 쓰면 열이 흉중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결흉이 된 것은 하법을 너무 일찍 썼기 때문이다."〔sm/제 131조(138)〕고 하였다. 대개 오한이 있는 것은 아직 표증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하법을 쓰면 양기가 안으로 몰리기 때문에 흉격 안쪽이 아파서 손을 대지도 못하게 된다. 결흉에 맥이 부(浮)한 경우는 하법을 쓸 수 없으니 하법을 쓰게 되면 죽으며〔sm/제 132조(140)〕, 결흉에 번조한 경우도 반드시 죽는다〔sm/제 133조(141)〕. 이것들은 악증(惡證)이니 변증하는 의사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1. 維揚: 오늘날의 강소성 양주시(揚州市) 경내. ↩

2. 陽: ☞ 膈 ※《상한론》제 134조(142). '양기가 안쪽으로 몰린 곳'은 결국 '흉격

안쪽'이 되기 때문에 '陽'자를 그대로 새기더라도 의미는 결국 같아진다. ↩



結胸可灸證 三十九

【39】결흉에 땀을 뗄 수 있는 병증

城東李氏子, 年十八, 病傷寒結胸, 狀如瘥, 自心至臍, 手不可近, 短氣心煩, 眞結胸也, 醫者便欲下之. 予適過其門, 見其愴惶面無色. 予曰: "公有憂色, 何也?" 曰: "以長子病傷寒作結胸證, 醫者將下之而猶豫." 予就爲診之, 自關上浮大, 表證未罷, 不可下也. 曰: "事急矣." 予以黃連餅子, 灸臍中數十壯, 得氣下, 心腹軟, 繼以和氣解肌藥, 數日瘥. 當時若下, 定是醫殺.

성 동쪽에 사는 이 씨(李氏)의 18세 아들이 상한결흉을 앓았는데 증상이 치병(瘥病)과 같았다. 가슴에서 배꼽까지 아파서 손도 못 대게 하고 숨이 짧으며 가슴이 답답하였으니, 진정 결흉증이었는데도 의사는 곧장 하법을 쓰려고 하였다. 내가 마침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씨가 경황이 없어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 내가 "선생은 근심이 있는 낯빛이니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니, "큰아들이 상한에 걸려 결흉증이 되었는데 의사가 하법을 쓰려 하여 제가 주저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내가 가서 진찰해보니 촌맥이 부대(浮大)하였다. 이는 표증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니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내가 "사안이 시급합니다."고 하면서, 황련을 넣어 만든 납작한 떡을 깔고 배꼽에 수십 장 땀을 뜨니 기가 내려가 심복부가 부드러워졌다. 이어서 기를 조화롭게 하고 해기(解肌)시키는 약을 썼더니 며칠 만에 나았다. 당시에 만약 하법을 썼다면 필시 의사가 죽인 꼴이 되었을 것이다.

汗後呃逆證 四十

【40】땀이 난 후에 딸꾹질이 나는 병증

張保義得汗後呃逆, 或者以胃虛則噦故呃逆也, 投以乾薑橘皮等湯, 不下, 命予治之.
予曰: "此證不可全作胃虛治, 六脈尙躁, 是餘毒未解耳." 投以小柴胡湯, 兩啜而愈.

장보의(張保義)가 땀이 난 후에 딸꾹질이 생겼다. 혹자는 위(胃)가 허하면 딸꾹질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건강·굴피 등이 들어간 탕약을 투여하였지만 내려가지 않아 나에게 치료를 하게 하였다. 내가 "이 병증은 위(胃)가 허한 것으로만 보고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육맥이 여전히 조동(躁動)하니 이는 남은 독이 다 풀리지 않아서입니다."고 하면서, 소시호탕을 투여했더니 2번 복용하고 나았다.

漏風證 四十一

【41】누풍증

癸卯秋九月, 牒試¹淮南³僧臺, 同試有建陽²彭子靜, 得疾, 身熱頭痛, 嘔逆, 自汗如洗, 已數日矣. 召予診視, 謂予曰: "去試不數日, 而疾勢如此, 爲之奈何?" 予曰: "誤服藥多矣. 此證當先止汗, 幸無憂也." 予作朮附湯與之, 三投而汗止, 次日微汗皃皃, 身涼, 五日而得愈.

계묘년(1123) 가을 음력 9월에 내가 회남(淮南) 승대(僧臺)에서 과거시험을 쳤을 때, 같이 시험을 쳤던 건양(建陽)의 팽자정(彭子靜)이 병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구역질을 하고 물로 씻는 듯 자한이 난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 나에게 치료를 요청하면서 "과거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병세가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고 하기에 "잘못 복용한 약이 많습니다. 이 병증은 마땅히 먼저 땀을 그치게 해야 합니다. 다행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출부탕 [: 백출부자탕] 을 지어서 투여하니 3제를 복용하자 땀이 그치고, 다음날 축축하게 땀이 조금 나면서 몸이 식으며, 5일 만에 나았다.

1. 牒試: '첩시'는 송대의 과거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관원의 자제, 친척, 문객 등이 이 시험을 보았는데 그 관원이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

3. 淮南: 오늘날의 안휘성 회남시이다. [↩](#)

2. 建陽: 오늘날의 복건성 남평시(南平市) 중부 지역에 해당한다. [↩](#)



小便出血證 四十二

【42】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병증

里人有病中脘吐, 心下煩悶, 多昏睡, 倦臥, 手足冷, 蓋少陰證也. 十餘日不瘥, 忽爾通身大熱, 小便出血. 予曰: "陰虛者, 陽必湊之, 今脈細弱, 而臍下不痛, 未可下桃仁承氣, 且以芍藥地黃湯." 三投而愈.

우리 마을의 어떤 사람이 중완(中脘)에 병이 들어 토하고 명치가 답답하며 자주 정신없이 졸고 피곤해서 드러누우며 손발이 차니 소음증인 것 같다. 10여 일이 지나도 낫지 않더니 갑자기 온몸에서 고열이 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내가 "음이 허한 경우에는 양사(陽邪)가 반드시 몰려듭니다. 지금 맥이 세약(細弱)하고 배꼽 아래가 아프지 않으니 공하하는 도인승기탕 [: 도핵승기탕] 을 쓸 수 없습니다. 우선 작약지황탕을 써야 합니다."고 하면서, 3제를 투여하니 나았다.

妊娠傷寒脚腫證 四十三

【43】임신 중 상한을 앓아 다리가 붓는 병증

里巷一婦人妊娠, 得傷寒, 自腰以下腫滿. 醫者或謂之阻, 或謂之腳氣, 或謂之水分. 予曰: "此證受胎脈也, 病名曰心實¹, 當利小便." 醫者曰: "利小便, 是作水分治, 莫用木通、葶藶、桑皮否?" 曰: "當刺勞宮、關元穴." 醬²大駭曰: "此出何家書?" 予曰: "仲景《玉函經》曰: '婦人傷寒, 妊娠及七月, 腹滿, 腰以下如水溢之狀, 七月太陽〔陰〕陽³當養不養, 此心實, 當刺勞宮及關元, 以利小便則愈.'" 予教令刺穴遂痊.

마을의 어떤 부인이 임신 중 상한에 걸렸는데 허리 이하가 퉁퉁 부었다. 의사들은 혹 습조(濕阻)라 하고 혹은 각기(腳氣)라 하며 혹은 수분(水分)이라 하였다. 내가 "이 병증은 임신맥이 뜨니, 병명을 심실(心實)이라고 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야 합니다."고 하니, 어떤 의사가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면 수분이라 여기고 치료하는 것인데 목통、정력자、상백피 등의 약은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마땅히 노궁혈과 관원혈에 자침해야 합니다."고 하니, 그 의사가 크게 놀라 "그것이 어떤 의서에 나오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장중경의 《금궤옥함경》에서 '부인이 상한을 걸렸는데 임신 7개월이 되어 배가 그득하고 허리 이하가 물이 넘치는 것처럼 된 경우는, 임신 7개월이면 태음맥이 태아를 길러야 하는데 기르지 못해서이다. 이것은 심실(心實)이니 노궁혈과 관원혈에 자침하여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면 낫는다.'고 하였습니까."고 하면서, 침을 놓게 하였더니 마침내 나았다.

1. 心實: 《금궤요략》에는 '心氣實'로 되어 있다. '심기가 실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서술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본서의 저자는 명사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2. 醬: 醫 *문맥상 ↩

³. 陽 : 大成本에는 '陰'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를 따랐다. ↩



風溫證 四十四

【44】풍온증

己酉虜騎破淮¹, 疫癘大作, 時有王朝奉寓天慶得疾, 身熱自汗, 體重, 難以轉側, 多眠, 鼾睡, 醫作三陽合病, 或作漏風證, 治之不愈. 予曰: "此風溫病." 投以葳蕤湯、獨活湯, 數日瘥.

기유년(1129)에 오랑캐의 기병들이 회음(淮陰)을 공격했을 때 역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당시 조봉랑(朝奉郎) 왕 씨(王氏)가 천경관(天慶觀)에서 잠시 살다가 병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자한이 나며 몸이 무겁고 몸을 돌리기가 힘들며 잠이 많고 코를 골면서 잤다. 어떤 의사는 삼양합병(三陽合病)이라 하고 다른 의사는 누풍증(漏風證)이라 하면서 치료하였으나 낫지 않았다. 내가 "이것은 풍온병(風溫病)입니다."고 하면서, 위유탕·독활탕을 투여했더니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 仲景云見〈太陽病脈篇〉: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曰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 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癇, 時瘈瘲." 又云: "陽脈浮滑, 陰脈濡弱, 更遇於風, 變爲風溫." 大抵溫氣大行, 更遇風邪, 則有是證. 令當春夏, 病此者多, 醫作傷寒漏風治, 非也. 不是火, 不可下, 不可大發汗, 而仲景無藥方, 古法謂可取手少陰火、足厥陰木, 隨經所在而取之, 故用葳蕤湯、獨活湯輩爲宜. 若發熱無下證者, 當用知母石膏湯; 誤汗之, 則防己黃芪湯救之.

〔논〕 장중경은 〈태양병맥〉편에서 "태양병에 열이 나면서 갈증이 있고 오한이 들지 않는 것은 온병(溫病)이다. 만일 땀을 낸 후 몸에 불사르듯 열이 나는 것은 풍온(風溫)이라고 한다. 풍온이라는 병은 음맥 [척맥] 과 양맥 [촌맥] 이 모두 부(浮)하고 자한이 나며 몸이 무겁고 잠을 많이 자며 코로 숨을 쉬면 반드시 코 고는 소리가 나고 말을 간신히 한다. 만일 하법을 쓰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앞쪽만 보며 유뇨(遺尿)를 한다. 만일 화법(火法)을 쓰면 가벼운 경우 피부가 누렇게 되고 심한 경우 놀라서 간질이 발작한 것처럼 때로 경련을 하게 된다."(sm/제6조(006、007))고 하였다. 또한 "양맥이 부활(浮滑)하고 음맥이 유약(濡弱)한데 재차 풍사(風邪)를 받으면 변하여 풍온이 된다." [〈상한례〉]고 하였다. 대개 온병의 사기가 크게 유행하는데 재차 풍사를 받으면 이 병증이 생긴다. 봄·여름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이 많은데 의사가 상한의 누풍(漏風)으로 여겨 치료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화증(火證)이 아니기 때문에 하법을 써서는 안 되며 크게 땀을 내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장중경은 이에 대한 약처방을 기재하지 않았다. 고법에서는 수소음심화(手少陰心火)·족궐음간목(足厥陰肝木)을 취하면 된다고 하였으니 병변이 있는 경락을 치료한다. 그러므로 위유탕·독활탕 등을 쓰는 게 적절하다. 만약 열은 나지만 하법을 쓸 수 있는 증상이 없으면 지모석고탕을 써야 한다. 잘못하여 땀을 낸 경우에는 방기황기탕으로 살려낸다.

1. 俱：☞陰※大成本 ←

狐惑證 四十五

【45】호혹증

句容縣東豪子李姓者, 得傷寒數日, 村落無醫, 易師巫者五六日矣. 或汗下, 雜治百出, 遂成壞病. 予時自江北避寇, 遁伏江左, 求宿於其家, 夜半聞呻吟聲, 詢之, 云患傷寒逾旬矣. 予爲診視, 其脈見於上下, 唇皆已蠹蝕, 聲嘶而咽乾, 舌上白苔, 齒無色. 予曰: "病名狐惑, 殺人甚急." 秉燭爲作雄黃丸、瀉心湯, 投之, 數日瘥.

구용현(句容縣) 동쪽에 사는 이 씨(李氏)라는 호족의 자제가 상한에 걸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무당을 바꾸어가며 부른 지 5~6일이 되었다. 어떤 무당이 한법·하법 등 온갖 치료법을 다 써서 마침내 괴병(壞病)이 되었다. 당시 나는 강북(江北)에 침략한 도적을 피해 강좌(江左)에 숨어 있던 차에 그 집에 기숙하기를 청했다가 한밤중에 신음소리를 듣고 물어보니 상한을 앓은 지 10일이 넘었다고 하였다. 내가 진찰을 해보니 그 맥이 관부(關部) 위아래에 다 나타나고 입술이 모두 혈며 목이 쉬고 인후가 건조하며 혀에 흰 설태가 끼고 치아에 광택이 없었다. 내가 "호혹병이니 환자가 매우 빨리 죽게 됩니다."고 하면서, 촛불을 켜고 웅황환·사심탕을 지어서 투여하니 며칠 만에 나았다.

發黃證 四十六

【46】황달증

五月, 避地¹維揚東面里沙中, 一豪子病傷寒八九日, 身體²洞黃, 鼻目皆痛, 兩膊及項頭腰皆強急, 大便澁, 小便如金. 予診曰: "脈緊且數, 其病脾先受濕, 暑熱蘊蓄於足太陰之經, 宿穀相搏, 鬱蒸而不得泄, 故使頭面有汗, 項以下無之. 若鼻中氣冷, 寸口近掌無脈, 則死. 今脈與證相應, 以茵陳湯調五苓散與之." 數日瘥.

음력 5월에 피난처인 유양(維揚) 동쪽 이사(里沙)에 어떤 호족의 자제가 상한에 걸린 지 8~9일이 되어 몸이 섯노랗고 눈·코가 모두 아프며 양쪽 팔과 목덜미·머리·허리가 모두 뻣뻣하면서 땅기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소변이 황금색이었다. 나는 진찰한 후 "맥이 긴(緊)하면서도 삭(數)하니, 이 병은 비(脾)가 먼저 습사(濕邪)를 받은 뒤 족태음경에 쌓인 서열(暑熱)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뭉쳐 울체된 증기가 배설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얼굴에는 땀이 나지만 목덜미부터 아래로는 땀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콧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나오고 손바닥과 가까운 촌구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맥과 증상이 서로 부합하니 인진탕 [: 인진호탕]에 오령산을 섞어서 투여하겠습니다."고 하였다. 며칠 만에 나았다.

1. 維揚 : 오늘날의 강소성 양주시(揚州市) 경내. ↩

2. 洞黃 : 洞은 '밝다', '환하다' 정도의 의미이다. ↩

濕家發黃證 四十七

【47】한습황달증

人病身體疼痛, 面黃, 喘滿, 頭痛, 自能飲食, 大小便如常, 或者多以茵陳五苓散與之. 予診其脈曰: "大而虛, 鼻塞且煩, 其證如前, 則非濕熱與宿穀相搏, 乃頭中寒濕. 仲景云: '疼痛發熱, 面黃而喘, 頭痛, 鼻塞而煩, 其脈大, 自能飲食, 腹中和無病, 病在頭, 中寒濕, 故鼻塞, 納藥鼻中則愈.' 而仲景無藥方. 其方見《水壺》¹: 《刪繁證》云: '治天行熱毒, 通貫臟腑, 沈鼓骨髓之間, 或爲黃膽, 須瓜蒂散. 瓜蒂二七枚, 赤小豆、秫米 各二七枚, 爲末, 如大豆許, 內鼻中, 縮²鼻當出黃水. 慎不可吹入鼻中深處.'"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몸에 동통이 있고 얼굴이 누렇게 되며 숨을 헐떡이고 가슴이 그득하며 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여전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소변도 정상이었다. 의사들은 대부분 인진오령산을 투여하였다. 내가 그 맥을 살펴본 후 "맥이 대(大)하면서 허(虛)하고 코가 막히면서 가슴이 답답하며 증상이 여전하다면 습열(濕熱)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서로 뭉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머리가 한습(寒濕)에 적중된 것입니다. 장중경은 '몸에 동통이 있고 열이 나며 얼굴이 누르고 숨을 헐떡이며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며 가슴이 답답하고 그 맥이 대(大)한데, 여전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 속이 순조로워 무탈한 것은, 병이 머리에 있는 것으로 한습에 적중된 것이다. 그러므로 코가 막히는 것이니 콧속에 약을 넣어주면 낫는다.' [《금궤요략》]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중경은 처방을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그 처방은 《외대비요外臺秘要》에 보이니 《산번방刪繁方》에서 '유행성 열독이 장부를 관통하여 골수 사이까지 깊게 들어가면 혹 황달이 발생하니 반드시 과체산을 써야 한다. 과체 14개, 적소두·차조 각 14알을 가루 낸 후 콩 크기 정도의 양을 취하여 콧속에 넣으면 재채기를 하면서 누런 물이 나오게 된다. 조심하여 콧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고 말해 주었다.

1. 《水壺》: ㉔《外臺》※董本.

'外臺'는 《外臺秘要》를 의미한다. 실제로 아래 내용은 《외대비요》에 나온다.

↩

2. 縮: ㉔搐 ※문맥상 ↩



黃入清道證 四十八

【48】기도에 사기가 침범하여 황달이 발생한 병증

夏有高師病黃證，鼻內癢疼，身與目如金色，小便赤澀，大便如常，則知病不在臟腑。今眼睛疼，鼻額痛，則知病在清道中矣。清道者，華蓋肺之經也。若服大黃，則必腹脹爲逆。當用瓜蒂散，先含水，次搐之，令鼻中黃水盡則愈。如其言，數日而病除。

여름에 어떤 스님이 황달증에 걸려 콧속이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몸과 눈이 황금색이며 소변이 진하면서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은 정상이었으니, 병이 장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눈에 동통이 있고 코와 이마가 아프니 병이 기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오장육부를 덮는 폐의 경맥에 속한다. 만약 대황을 복용하면 반드시 배가 창만해져 역증(逆證)이 될 것이다. 마땅히 과체산을 써야 한다. 우선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콧속에 과체산을 불어 넣어 재채기를 하게 한다. 콧속에서 누런 물이 다 나오면 낫는다. 이 말대로 하니 며칠 만에 병이 나았다.

先汗後下證 四十九

【49】먼저 땀이 나게 한 뒤에 변이 나오게 해야 하는 병증

己酉夏, 一時官病傷寒, 身熱, 頭疼, 無汗, 大便不通, 已五日矣. 予適自外邑歸城, 訪之, 見醫者治大黃芒硝輩, 將下之矣. 予曰: "子姑少待." 予適爲診視. 視之脈緩而浮, 臥密室中, 自稱惡風. 予曰: "病患表證如此, 雖大便閉, 腹且不滿, 別無所苦, 何遽便下? 於仲景法, 須表證罷, 方可下. 不爾, 邪毒乘虛而入內, 不爲結胸, 必爲協熱利也." 予作桂枝麻黃各半湯, 繼之以小柴胡湯, 熨熨然汗出, 大便通, 數日愈.

기유년(1129) 여름에 어떤 현직 관리가 상한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땀이 나지 않고 대변을 보지 못한 지 이미 5일이 되었다. 나는 마침 다른 도시에서 성(城)으로 돌아와 그를 방문하였다. 의사가 대황·망초 등을 써서 공하하려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한 후 직접 가서 살펴보니, 맥이 완(緩)하면서 부(浮)하고 밀실에 누워 있어도 환자가 오통이 든다고 하였다. 내가 "환자는 이처럼 표증을 앓고 있습니다. 비록 대변은 막히나 배가 그득하지 않고 별달리 불편한 곳도 없는데 어찌 서둘러 공하를 한단 말입니까? 장중경의 치법에는 반드시 표증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공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독(邪毒)이 허한 틈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결흉(結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협열리(協熱利)가 된다고 하였습니다."고 하면서, 계지마황각반탕을 짓고 이어서 소시호탕을 썼더니, 온몸이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나고 대변이 나오며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 仲景云: "傷寒病多從風寒得之, 始表中風寒, 入裏則不消矣, 擬欲攻之, 當先解表, 方可下之. 若表已解, 而內不消, 大滿大堅, 實有燥屎, 方可議下. 若不宜下而遽攻之, 諸變不可勝數, 輕者必篤, 重者必死."

〔논〕 장중경은 "상한은 대부분 풍한 때문에 걸린다. 처음 표(表)에 침입한 풍한이 이(裏)에 들어가도 표증이 소실되지 않을 경우, 이(裏)를 공하하고자 해도 먼저 해표(解表)를 시켜야만 비로소 공하할 수 있다. 만일 표증이 풀린 후에도 이증(裏證)이 소실되지 않아 배가 몹시 그득하고 매우 땀뻘하며 실제로 조시(燥屎)가 있어야만 비로소 공하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공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서둘러 공하를 하게 되면 온갖 변증(變證)이 셀 수 없이 생겨나 병세가 가벼운 자는 반드시 위독해지고 병세가 무거운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였다.



太陽瘀血證 五十

【50】태양어혈증

仇景莫子儀, 病傷寒七八日, 脈微而沈, 身黃發狂, 小腹脹滿, 臍下如冰, 小便反利. 醫見發狂, 以爲熱毒蓄伏心經, 以鐵粉牛黃等藥, 欲止其狂躁. 予診之曰: "非其治也, 此瘀血證爾. 仲景云: '陽病¹身黃, 脈沈結, 小腹鞭, 小便不利, 爲無血;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也, 可用抵當湯.'" 再投, 而下血幾數升, 狂止, 得汗而解. 《經》云: "血在下則狂, 在上則忘." 太陽, 膀胱經也, 隨經而蓄于膀胱, 故臍下脹, 自關門²會³滲入大腸, 若大便黑者, 此其驗也.

구경(仇景) 막자의(莫子儀)가 상한에 걸린 지 7~8일이 되어 맥이 미(微)하면서 침(沈)하고 몸이 누렇게 되며 발광을 하고 아랫배가 창만하며 배꼽 아래가 얼음처럼 찬데 소변은 오히려 잘 나왔다. 의사가 발광한 것을 보고서는 열독이 심경(心經)에 쌓여서 잠복한 것으로 여겨 철분·우황 등의 약으로 그 광조(狂躁)를 멎게 하려고 하였다. 내가 진찰한 후 "올바른 치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혈증(瘀血證)일 뿐입니다. 장중경은 '태양병에 몸이 누르고 맥이 침결(沈結)하며 아랫배가 땀땀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혈이 없는 것이다. 소변이 잘 나오고 환자가 미친 것 같은 경우는 어혈증이니 저당탕을 쓸 수 있다.'(『제125조(133)』)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2제를 투여하니 여러 되의 어혈이 배설되고 광증이 그치며 땀이 나면서 나왔다. 《내경》에서 "어혈이 아래에 쌓이면 광증이 되고 위에 쌓이면 건망증이 된다."고 하였다. 태양은 방광경이다. 어혈이 경맥을 따라 방광에 쌓이기 때문에 배꼽 아래가 창만해진다. 난문(關門)에 모여 대장으로 스며드니 대변이 검게 나오는 것이 그 증거다.

1. 陽病: 『太陽病』※《상한론》↩

2. 關門: '난문'. 《난경》제44년에 보이는 용어로, 대장과 소장이 만나는 곳을

이른다. [↩](#)

3. 會 : ※大成本 [↩](#)



陰病陽脈證 五十一

【51】음병에 양맥이 나타난 병증

劉中道初得病, 四肢逆冷, 臍中築痛, 身疼如被杖, 蓋陰證也. 急投金液、來復之類, 其脈得沈而滑. 蓋沈者陰證也, 滑者陽脈也. 病雖陰而是陽脈, 仲景所謂'陰證見陽脈生'也. 於是再灸臍下丹田百壯, 謂手足溫, 陽回體熱而汗解.

유중도(劉中道)가 갓 병에 걸려 팔다리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배꼽 부위가 박동하면서 아프며 몸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팠다. 이는 음증이다. 급히 금액단、내복단 등의 약을 썼더니 맥이 침(沈)하면서 활(滑)해졌다. 대개 침(沈)은 음증을 의미하고 활(滑)은 양맥이다. 병은 음증에 속하지만 맥은 양맥이니 장중경이 '음증에 양맥이 나타나면 산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배꼽 아래 단전에 다시 뜸을 100장 뜨자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더니 양기가 회복되고 몸이 뜨거워지며 땀이 나면서 병이 풀렸다.

或問: "滑脈之狀如何?" 曰: "仲景云: '翕奄沈名曰滑.' 古人論滑脈, 雖云'往來前卻流利, 展轉替替然, 與數相似.' 曾未若仲景三語而足也. 翕, 合也, 言張而復合也, 故云翕爲正陽. 沈言脈降而下也, 故曰沈爲純陰. 方翕而合, 俄降而下. 奄, 謂奄忽之間復降也. 仲景論滑脈, 方爲諦當也."

어떤 사람이 "활맥은 맥상이 어떻게습니까?"라고 하니, 내가 "장중경은 '흠(翕)하면서 문득 침(沈)한 것을 활이라고 한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은 활맥을 논하면서 '맥이 오가는 것이 매우 원활하고 계속 굴러가는 것이 삭맥과 비슷하다.'고 하였으나 장중경이 3자로 다 드러낸 것만 못합니다. 흠(翕)은 합(合)을 의미하니 왕성하게 일어나 다시 합해지는 것을 이릅니다. 그러므로 흠(翕)을 정양(正陽)이라고 합니다. 침(沈)은 맥이 하강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러므로 침(沈)을 순음이라고 합니다. 한창 흡(翕)하면서 합해졌다가 문득 하강하는 것입니다. 엄(奄)은 갑자기 다시 하강하는 것입니다. 장중경이 활맥을 논한 것이 정확합니다."고 하였다.



辯少陰脈緊證 五十二

【52】소음병에 맥이 긴 것에 대한 변증

玄華得傷寒六七日, 煩, 昏睡, 多吐嘔, 小便白色, 自汗出. 予診其脈, 寸口尺中俱緊, 謂曰: "寒中少陰經中, 是以脈緊, 當作少陰治也. 仲景云: '病患脈緊反汗出, 亡陽也, 屬少陰證, 當咽痛而復吐利.' 蓋謂此也."

현화(玄華)가 상한에 걸린 지 6~7일이 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없이 졸며 자주 구토를 하고 소변이 맑으며 자한이 나왔다. 내가 맥을 짚어보니 촌맥·척맥이 모두 긴(緊)하여 "한사(寒邪)가 소음경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맥이 긴(緊)한 것이니 마땅히 소음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합니다. 장증경은 '환자의 맥이 긴(緊)한데 도리어 땀이 나는 경우는 망양(亡陽)이니 소음증에 속한다. 이치상 인후가 아프고 구토와 설사를 할 것이다.'(sm/제283조(297))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有難者曰: "《脈訣》以緊爲七表, 仲景以緊爲少陰, 緊脈爲陰耶?" 予曰: "寸口脈俱緊者, 口中氣出, 唇口乾燥, 蜷臥足冷, 鼻中涕出, 舌上白胎, 勿妄治也." 又云: '緊則爲寒.' 又云: '曾爲人所難, 緊脈從何而來? 師曰: 假令亡汗, 若吐, 以肺裏寒, 故令脈緊.' 又曰: '寸口脈微, 尺中緊, 其人虛損多汗.' 由是觀之, 則是寒邪入經絡所致, 皆虛寒之脈也. 其在陽經則浮而緊, 在陰經則沈而緊. 故仲景云: '浮緊者名爲傷寒.' 又云: '陽明, 脈浮而緊者, 必潮濕¹ 此在陽則脈浮而緊者. 仲景又云: '病患脈陰陽俱緊者, 屬少陰.' 又云: '寸口脈微, 尺脈緊, 其人虛損多汗, 則陰常在, 絕不見陽.' 又云: '少陰, 脈緊, 至七八日, 自下利, 脈暴微, 手足反溫, 脈緊反去者, 此欲解也.' 此在陰沈而緊也. 仲景云: '浮爲在表, 沈爲在裏, 數爲在腑, 遲爲在臟.' 欲知表裏臟腑, 先以浮沈遲數爲定, 然後兼餘脈而定陽陰也. 若於《脈訣》而言, 則疏矣. 故予嘗謂傷寒脈者, 當以仲景脈爲準法."



어떤 사람이 힐난하여 "《맥결》에서는 긴(緊)을 일곱 가지 표증 가운데 하나라 하였는데 장중경은 긴(緊)을 소음병이라 하였으니 긴맥이 음이란 말입니까?"라고 하니, 내가 "'촌、관、척 삼부맥이 모두 긴한 환자가 입으로 숨을 토해내고 입술과 입 안이 마르며 몸을 구부린 채 자고 발이 차며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혀에 하얀 설태가 끼었으면 함부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변맥법〉] 고 하였습니다. 또한 '긴맥은 한(寒) 때문이다.' [〈변맥법〉] 고 하였습니다. 또 '전에 긴맥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는 가령 양기가 없어져 땀이 날 때 토하게 하면 폐 속이 한(寒)해지기 때문에 맥이 긴(緊)하게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또 '촌맥이 미(微)하고 척맥이 긴(緊)한 경우는 환자가 허손하여 땀이 많이 난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한사가 경락에 들어가서 생긴 것으로, 모두 허한(虛寒)의 맥입니다. 한사가 양경(陽經)에 있으면 부(浮)하면서 긴(緊)하고, 음경(陰經)에 있으면 침(沈)하면서 긴(緊)합니다. 그러므로 장중경은 '부긴(浮緊)한 경우를 상한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명병에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열이 있다.'(sm/제201조(213))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이 양경에 있어서 맥이 부하면서 긴한 것입니다. 장중경은 또한 '환자의 음맥 [척맥] 、 양맥 [촌맥] 이 모두 긴(緊)한 것은 소음에 속한다.'(sm/제283조(297))고 하였습니다. 또 '촌맥이 미(微)하고 척맥이 긴(緊)한 경우는 환자가 허손하여 땀을 많이 흘리니, 음사(陰邪)는 여전하지만 양기가 끊어져서 볼 수가 없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또 '소음병에 맥이 긴(緊)하다가 7~8일이 되어 저절로 설사가 나오고 맥이 갑자기 미(微)해지며 손발이 오히려 따뜻해지고 긴맥(緊脈)이 도리어 없어진 경우는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sm/제287조(301))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이 음경에 있어서 맥이 침(沈)하면서 긴(緊)한 것입니다. 장중경은 '부(浮)는 병이 표(表)에 있는 것이고 침(沈)은 병이 이(裏)에 있는 것이며, 삭(數)은 병이 부(腑)에 있는 것이고 지(遲)는 병이 장(臟)에 있는 것이다.' [〈변맥법〉] 고 하였으니, 병이 표、리、장、부 중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부、침、지、삭을 정하고 연후에 나머지 맥을 아울러서 병의 음양을 정해야 합니다. 《맥결》의 경우는 소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찍이 상한의 맥은 마땅히 장중경의 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1. 濕 : ㉠熱 ※《상한론》제201조(213) [↩](#)



靑筋牽引¹證 五十三

【53】청근견인증

吳德甫, 戊申春病傷寒, 先寒後熱, 項筋強急, 腳蜷縮不得伸, 醫者欲以麻黃輩除其頸強, 又欲桂枝加附除其足縮. 予曰: "皆非治也. 此時行疫氣, 病爲靑筋牽引." 投以柴胡地黃湯, 三服而病已.

오덕보(吳德甫)가 무신년(1128) 봄에 상한에 걸려서 먼저 오한이 났다가 뒤에 열이 나고 목덜미의 근이 뻣뻣하면서 땅기며 다리를 오므린 채 퍼지를 못하였다. 의사들은 마황탕 등으로 목이 뻣뻣한 증상을 없애고자 하였다. 또한 게지가부자탕으로 다리를 펴지 못하는 증상을 없애고자 하였다. 내가 "모두 잘못된 치료입니다. 이것은 계절성 전염병으로 인해 청근견인증(靑筋牽引證)이 된 것입니다."고 하면서, 시호지황탕을 투여하니 3제 만에 병이 나았다.

論曰: 龐安常²論四時受乖氣, 而成臟腑陰陽濕毒者, 春名靑筋牽, 夏曰赤脈攢, 秋名白氣狸, 冬名黑骨溫毒, 四季中十八日名黃肉隨. 毒氣在頭項, 使人靑筋牽急, 故先寒後熱, 腳縮不得伸, 蓋謂此. 夫天行之病, 大則流毒天下, 小則方次一鄉, 亦有遍著一家者. 悉由氣運鬱結, 變成乖戾之氣, 人命遭之所成病者, 能調護將理³, 庶可免耳.

〔논〕방안상(龐安常)은 사계절에 어그러진 기를 감수하여 장부에 음양습독(陰陽濕毒)이 형성된 것을 논하면서, 봄에 발생한 것은 청근견(靑筋牽)이라 하고 여름에 발생한 것은 적맥찬(赤脈攢)이라 하며 가을에 발생한 것은 백기리(白氣狸)라 하고 겨울에 발생한 것은 흑골온독(黑骨溫毒)이라 하며 환절기 18일에 발생한 것은 황육수(黃肉隨)라 하였다. 독기가 머리와 목덜미에 있으면 퍼런 핏줄이 보이면서 땅기게 된다. 이 때문에 먼저 오한이 든 뒤에 열이 나고 다리를 오므린 채 퍼지를 못하게 되니, 이 병을 말한 것이다.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면 천하에 독을 퍼뜨리고, 작게 유행하면 한 마을에 퍼지거나 한 집안에만

퍼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기운이 울결되어 어그러진 기가 만들어진 것이니, 사람이 이 어그러진 기를 만나 병이 든 경우에는 조리를 제대로 하여야만 죽음을 겨우 면할 수 있다.

1. 靑筋牽引 : 아래에는 '靑筋牽'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靑자는 오행의 배속에 따라 봄에 해당하는 색깔을 집어넣은 것이지만, 아래 설명에서 보이듯 '靑筋', 즉 '퍼런 핏줄'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牽引은 당긴다는 의미이다. 이때 린은 넣거나 안 넣거나 의미가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일단 원문을 따라 번역해 두었다. ↵

2. 龐安常 : 북송의왕(北宋醫王)이라 불리던 방안시(龐安時)를 가리킨다. ↵

3. 調護將理 : 調護와 將理는 모두 삼가서 몸을 조리하는 것을 이른다. ↵

下膿血證 五十四

【54】농혈 섞인 변을 누는 병증

遠族人患傷寒, 他醫以陰證治之, 硫黃附子相繼而進, 旬日大脹下膿血, 或如赤豆汁, 醫尚作少陰證治, 復下桃花湯治之. 予因診視曰: "所誤多矣. 表裏虛, 熱氣乘虛入腸胃, 而又投以燥藥, 是以下膿血也." 遂投梅煎散, 數劑愈.

먼 친척이 상한을 앓았는데 어떤 의사가 음증으로 보고 치료하여 유향·부자를 계속 올렸더니 10일 후 배가 매우 창만하고 팔 즈과도 같은 농혈(膿血) 섞인 변을 누었다. 그 의사가 여전히 소음증으로 보고 다시 도화탕을 복용시켜 치료하였다. 내가 이 때문에 진찰한 후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표리가 허하여 열기가 허한 틈을 타고 장위(腸胃)로 들어갔는데도 조(燥)한 약을 투여하였으니 이 때문에 농혈 섞인 변을 누는 것입니다."고 하면서, 매전산을 투여했더니 몇 제만에 나았다.

刺陽明證 五十五

【55】양명증의 침 치료

庚戌五月, 李氏病傷寒, 身熱, 頭痛, 無汗, 渾身疼痛, 脈浮大而緊. 予投以麻黃湯, 數服, 終不得汗, 又多用張苗燒蒸之法¹, 而亦不得. 予教令刺陽明, 少間汗出, 熱熱遍身一時間, 是夕身涼病退.

무술년(1130) 음력 5월에 이 씨가 상한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땀이 나지 않고 온몸에 동통이 있으며 맥은 부대(浮大)하면서 긴(緊)하였다. 내가 마황탕을 투여하여 여러 차례 복용하였으나 끝내 땀이 나지 않았다. 다시 장묘(張苗)의 소증법(燒蒸法)을 자주 썼지만 역시 땀이 나지 않았다. 내가 양명경에 자침하게 하니 잠시 후 2시간 동안 온몸에 축축하게 땀이 나면서 그날 저녁에 몸이 식고 병이 나았다.

論曰：〈刺熱論〉云：“熱病先手臂痛，刺陽明而汗出。”又曰：“刺陽〔陽明〕陽²出血，如大豆，病已。”蓋謂刺也，陽明穴，在手大指〔次指〕內側，陽明穴，在手大指內側³去爪甲角，手陽明脈之所出也。刺可入同身寸之一分，留一呼。大凡傷寒熱病，有難取汗者，莫如鍼之爲妙。仲景云：“凡治溫病，可刺五十九穴。”《素問》云：“病甚者，爲五十九刺。”其詳在注中。

〔논〕《소문》〈자열론〉에서 "열병으로 먼저 손과 팔이 아픈 경우에는 양명경에 자침하여 땀을 낸다."고 하였다. 또한 "양명경에 자침하여 콩알만큼 피를 내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자침하는 양명경의 혈은 둘째손가락 안쪽의 손톱모서리에서 1푼만큼 떨어진 곳에 있으니 수양명경맥이 나오는 곳이다. 동신촌법으로 1푼을 자침하여 1번 숨을 내쉴 시간 동안 유침한다. 보통 상한열병에 땀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을 놓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장중경은 "무릇 온

병을 치료할 경우에는 59개혈을 자침할 만하다."고 하였다. 《소문》에서는 "병세가 위중한 경우에는 59개혈에 자침한다."고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왕빙의 주(注)에 있다.

1. 張苗燒蒸之法 : 장묘는 서진(西晉)의 의사이다. 소증법은 땅에 불을 지피고 복숭아 잎을 깔아 열기를 켜는 치법이다. ↩
2. 陽 : 《소문》에는 '陽明'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이를 따랐다. ↩
3. 陽明穴, 在手大指內側 : 문의상 '商陽穴, 在手大指次指內側'이 되어야 한다. ↩

陰陽交證 五十六

【56】음양교증

里有張姓者, 病傷寒, 醫汗之, 汗雖出, 身熱如舊. 予診之曰: "得汗, 宜身涼脈靜喜食, 今脈躁, 身熱, 不食, 狂言, 病名陰陽交, 不可治也. 《素問》: 黃帝問: '有溫病, 汗出輒復熱, 而脈躁, 病不爲汗衰, 狂言不能食, 名何疾?' 岐伯曰: '病名陰陽交, 交者, 死也. 人所以汗出者, 皆生於穀, 穀生於精. 今邪氣交爭於骨肉而得汗者, 是邪卻而精勝也. 精勝則能食而不復熱矣. 汗者精氣, 今汗出而復熱者, 是邪勝也. 不能食者, 精無俾也, 其壽可立而傾也.'" 果半日死.

한 마을의 장 씨가 상한에 걸려 의사가 발한을 시키니 땀은 나왔지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여전하였다. 내가 진찰한 후 "땀이 나고 나면 몸이 식고 맥이 안정되며 음식을 먹으려 해야 하는데, 지금 맥이 조동(躁動)하고 몸에 열이 있으며 음식을 먹지 않고 미친 소리를 해댁니다. 이것은 병명을 음양교(陰陽交)라고 하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소문》에서 황제가 '온병을 앓는 사람이 땀을 내고 난 뒤 갑자기 다시 열이 나고 맥이 조동하며 땀을 내어도 병이 약해지지 않고 미친 소리를 해대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병명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기백이 '병명을 음양교라고 합니다. 음양교에 걸리면 죽게 됩니다. 사람이 땀이 나오는 것은 모두 음식에서 생겨나고 음식은 정기(精氣)를 생성합니다. 지금 사기가 골육 사이에서 정기와 서로 다투어 땀이 나는 것은 바로 사기가 물러나고 정기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정기가 이기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시 열이 나지 않습니다. 땀은 정기이니, 지금 땀이 나고도 다시 열이 나는 것은 바로 사기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정기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 목숨은 곧 기울어지게 됩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고 하였다. 과연 한나절이 지나서 죽었다.



陰陽易證 五十七

【57】음양역증

己巳, 鄰人王友生以販京¹爲業, 蓄一婢, 患傷寒, 熱八九日. 予爲治之, 得汗而愈. 未數日, 生自病, 身熱, 頭重不欲舉, 目中生花, 召予視之. 予曰: "是必傷寒初愈婦人, 交接得之, 卽令陰頭上必腫, 小腹絞痛, 然是陰陽易也." 生曰: "前患者婢子, 意謂已安, 遂與之交, 翌日得此疾, 良苦." 予曰: "失所治, 必吐舌數寸而死." 予作猥鼠糞、燒禪散等, 以利其毒氣, 旬日安.

기사년(1149)의 일이다. 이웃 왕우생(王友生)은 곡식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가 먹여 살리던 여종 하나가 상한에 걸려 열이 난 지 8~9일이 되었다. 내가 그녀를 치료하니 땀이 나면서 나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왕우생이 병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무거워서 들려 하지 않으며 눈앞에 꽃 같은 것이 아른거려자 나를 불러 살펴보게 하였다. 내가 "이것은 필시 상한이 갓 나은 부인과 성행위를 하여 걸린 것입니다. 만약 음두가 부어오르고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프면 이는 음양역(陰陽易)입니다."고 하니, 왕우생이 "이전에 병을 앓았던 여종이 이미 나은 것 같다고 하여 그녀와 성행위를 했더니 다음날 이 병에 걸렸습니다. 몹시 아픕니다."고 하였다. 나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필시 혀를 여러 치 빼물고 죽게 됩니다."고 하였다. 내가 가서분 [숫쥐의 똥]、소곤산 등을 지어서 그 독기가 잘 배출되게 하니 10일 만에 나았다.

¹. 販京 : 販京의 京은 원래 곡식 창고이며, 여기에서는 '곡식'을 의미한다. ↪

叉手冒心證 五十八

【58】손을 교차하여 가슴을 덮는 병증

乙巳六月, 吉水¹譚商人寓城南, 得傷寒八九日, 心下惕惕然, 以兩手捫心, 身體振振動搖, 他醫以心痛治之, 不效. 予曰: "此汗過多之所致也. 仲景云: '持脈時'²病人叉手自冒心, 心下悸, 所以然者, 以重獲汗, 虛故如此.' 又云: '發汗過多, 其人叉手自冒心, 心下悸, 欲得按者, 桂枝甘草湯證.'" 予投黃芪建中、眞武, 及甘草桂枝, 漸得平復.

을사년(1125) 음력 6월 길수(吉水)의 상인 담 씨가 성의 남쪽에 머물다 상한에 걸린 지 8~9일이 되었다. 심하(心下)가 두근거리려 양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떤 의사가 심통(心痛)으로 여겨서 치료하였으나 낫지 않았다. 내가 "이것은 땀을 너무 많이 내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중경은 '진맥하기도 전에 환자가 손을 교차하여 스스로 가슴을 덮는 것은 심하가 두근거리려서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거듭 땀을 내어 이와 같이 허해졌기 때문이다.'(sm/제75조(076))고 하였습니다. 또한 '땀을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환자가 손을 교차하여 스스로 가슴을 덮고 심하가 두근거리는 것을 눌러주려고 하는 경우는 계지감초탕증이다.'고 하였습니다."(sm/제64조(065))고 하면서, 황기건중탕, 진무탕, 계지감초탕을 투여했더니 점차 회복되었다.

1. 吉水 : 강소성 길안시(吉安市)에 속한 현(縣) 이름이다. ↩

2. 持脈時 : 未持脈時 ※문맥상

《상한론》제75조(076)에 그 용법이 보인다. ↩



傷寒耳聾證 五十九

【59】상한에 귀가 먹은 병증

戊申年, 類試¹山陽², 一時官病傷寒八九日, 耳聾而無聞. 楚醫少陽治, 意謂仲景稱少陽受病, 則脅痛而耳聾也. 予診之曰: "兩手脈弱而無力, 非少陽證也. 若少陽則渴飲水, 心煩, 但寐, 咽痛, 今俱無此證. 但多汗驚悸, 必汗過多所致也. 仲景云: '未持脈時, 令病人欬而不欬者, 兩耳聾無所聞也. 所以然者, 因重發汗, 虛故如此.'" 病家曰: "醫者嘗大發汗矣." 遂投以真武、白朮附子湯輩, 數日, 耳有聞而愈.

무신년(1128)에 산양(山陽)에서 과거시험이 있었을 때, 어떤 현직 관리가 상한에 걸린 지 8~9일 되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가 먹었다. 어떤 명의가 소양증으로 보고 치료하였으니, 장중경이 소양이 병을 받으면 옆구리가 아프고 귀가 먹는다고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진찰한 후 "양쪽 손의 맥이 약(弱)하면서 무력하니 소양증이 아닙니다. 만약 소양증이라면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가슴이 답답하며 잠만 자려 하고 인후가 아픈데, 지금은 이러한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땀이 많이 나고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니 필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중경은 '진맥하기도 전에 환자에게 기침을 시켜도 기침을 하지 않는 것은 양쪽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거뜬 땀을 내어 이와 같이 허해졌기 때문이다.'(sm/제75조(076))고 하였습니다."고 하니, 환자 집안사람들이 "의사가 크게 발한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고 하였다. 곧바로 진무탕·백출부자탕 등을 투여하니 며칠이 지나 귀가 들리면서 나았다.

¹. 類試 : 유성시(類省試)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과거제도의 명칭 가운데 하나이다. ↩

². 山陽 : 오늘날의 강소성 회안시(淮安市)에 속한다. ↩



揚手躑足證 六十

【60】손을 휘젓고 발을 구르는 병증

己酉, 王仲賢患傷寒, 發熱頭痛, 不惡風, 身無汗, 煩悶, 脈浮而緊, 八九日不退. 予診之曰: "麻黃證也. 所感多熱, 是以煩躁." 遂投以麻黃湯三服, 至暮, 煩愈甚, 手足躁亂, 揚躑不止. 或以爲發狂, 須用寒藥, 予爭之曰: "此汗證也, 幸勿憂, 切忌亂服藥." 守一時, 須稍定, 比寐少時, 中汗出矣. 仲景云: "至六七日, 三部大, 手足躁亂者, 欲解也." 蓋謂此耳. 若行寒劑, 定是醫殺.

기유년(1129)에 왕중현(王仲賢)이 상한에 걸려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오풍이 없고 땀이 나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고(煩悶)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하였는데, 8~9일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았다. 내가 진찰한 후 "마황탕증입니다. 병세에 열이 많아서 번조한 것입니다."고 하면서, 마황탕 3제를 복용시켰으나 저녁에 답답한 것이 더 심해지고 바둥거리려 계속 손을 휘저으면서 발을 굴렀다. 어떤 의사가 발광한 것이라 여겨 반드시 한(寒)한 약을 써야 한다고 하니, 내가 쟁론하여 "이것은 땀을 내야 하는 증이니, 행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약을 난잡하게 복용시켜서는 안 됩니다."고 하였다. 2시간을 지켜보고 있으니 마침내 약간 안정되고 잠잘 때가 되어서는 잠깐 땀이 나왔다. 장중경이 "병에 걸린 지 6~7일이 되어 촌、관、척 삼부맥이 모두 대(大)하고 손발을 바둥거리는 경우는 병이 풀리려 하는 것이다." [〈변맥법〉] 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이른다. 만약 한(寒)한 약을 썼다면 필시 의사가 죽인 꼴이 되었을 것이다.

遺尿證 六十一

【61】유뇨증

城南婦人, 腹滿身重, 遺尿, 言語失常. 他醫曰: "不可治也, 腎絕矣." 其家驚憂無措, 密召予至, 則醫尚在座. 乃診之曰: "何謂腎絕?" 醫家曰: "仲景謂: '溲便遺失, 狂言, 反目直視, 此謂腎絕也.'" 予曰: "今脈浮大而長, 此三陽合病也, 胡爲腎絕? 仲景云: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 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厥冷, 白虎證也.' 今病人譫語者, 以不當汗而汗之, 非狂言反目直視. 須是腎絕脈, 方可言此證." 乃投以白虎加人參湯, 數服而病悉除.

성의 남쪽에 사는 어떤 부인이 배가 그득하고 몸이 무거우며 유뇨(遺尿)가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신기(腎氣)가 끊어졌습니다."고 하니, 그 집안사람들이 놀라고 염려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나를 몰래 불렀다. 그곳에 도착하니 그 의사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진찰한 후 "어째서 신기가 끊겼다고 하십니까?" 하고 하니, 그 의사가 "장중경은 '대소변을 지리고 미친 소리를 해대며 눈이 뒤집히면서 앞쪽만 보니, 이것을 신기가 끊어졌다고 한다.' [〈변맥법〉] 고 하였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맥이 부대(浮太)하면서 장(長)하니 이는 삼양합병입니다. 어찌 신기가 끊어진 것이겠습니까? 장중경은 '배가 그득하고 몸이 무거우며 몸을 돌리기 힘들고 맛을 느끼지 못하며 헛소리를 하고 유뇨가 있는데, 땀을 내면 헛소리를 하게 되고 설사를 시키면 이마에 땀이 나고 손발에서 냉기가 올라오게 되니, 백호탕증이다.' (sm/제219조(232))고 하였습니다. 지금 환자가 헛소리를 하는 것은 땀을 내어서는 안 되는데 땀을 내어서이지, 미친 소리를 해대고 눈이 뒤집히면서 앞쪽만 보는 경우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기가 끊긴 맥이 있어야만 신기가 끊긴 병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 하면서, 백호가인삼탕을 투여하니 몇 제 만에 병이 다 나았다.



舌上滑胎〔苔〕證 六十二

【62】혀에 미끄러운 설태가 끼는 병증

丁未五月, 鄉人邢原暉病傷寒, 寒熱往來, 心下鬱悶, 舌上白滑胎. 予曰: "舌上滑胎有數證: 有陰陽脈緊, 鼻出涕者; 有臟結而不可治者; 有溫瘴丹田有熱者, 有陽明脅下堅者. 此證屬陽明, 宜梔子湯吐之於前, 小柴胡繼於其後." 數日汗解而愈.

정미년(1127) 음력 5월에 동향 사람 형원휘(邢原暉)가 상한에 걸려 한열이 왕래하고 명치가 막혀서 답답하며 혀에 희면서 미끄러운 설태가 끼었다. 나는 "혀에 미끄러운 설태가 끼는 병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양맥이 긴하고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장결(臟結)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온장(溫瘴)으로 단전에 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양명병으로 옆구리 아래가 딱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증은 양명병에 속하니 먼저 치자탕을 써서 토하게 하고 이어서 소시호탕을 써야 합니다."고 하였다. 며칠 만에 땀이 나고 병이 풀리더니 나았다.

衄血證 六十三

【63】코피를 흘리는 증

睢陽¹張士美, 病傷寒七八日, 口燥, 飲水而不嚥入, 俄而衄血, 脈浮緊, 身熱. 醫者云: "傷寒, 脈浮緊, 不發汗, 因致衄血者, 屬麻黃湯." 予曰: "不可, 古人雖云: '當汗不汗, 熱化爲血.' 此證亦有不可汗者. 仲景云: '陽明病, 口燥, 但欲飲水而不嚥者, 必發衄. 衄家不可發汗, 發汗則額上陷, 不得眠, 不能眴.' 此只可用犀角湯、地黃湯〔犀角地黃湯〕." 若當時行麻黃, 必額上陷, 直視不眠也.

수양(睢陽)의 장사미(張士美)가 상한에 걸린 지 7~8일 되어 입이 마르고 물을 마시려 하나 삼키지 못하더니 갑자기 코피가 나며 맥이 부긴(浮緊)하고 몸에 열이 났다. 어떤 의사가 "상한에 맥이 부긴한데 땀을 내지 않아서 코피가 나는 경우이니 마황탕증에 속합니다."고 하였다. 내가 "마황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비록 '땀을 내어야 할 때 땀을 내지 않으면 열 때문에 출혈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 병증은 땀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장중경은 '양명병에 입이 마르고 물을 마시려 하나 삼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코피가 난다.〔sm/제202조(214)〕 코피를 잘 흘리는 사람은 땀을 내어서는 안 되니 땀을 내면 이마가 꺼지고 잠들지 못하며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한다.〔sm/제86조(090)〕"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오직 서각지황탕만 쓸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당시에 만약 마황탕을 썼다면 필시 이마가 꺼지고 앞쪽만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¹. 睢陽 : 오늘날 하남성 상구시(商丘市)에 속한다. ↪

傷寒脅痛證 六十四

【64】상한에 옆구리가 아픈 병증

董齊賢病傷寒數日, 兩脅挾臍, 痛不可忍, 或作奔豚治. 予視之曰: "非也. 少陽膽經, 循脅入耳, 邪在此經, 故病心煩喜嘔, 渴, 往來寒熱, 默不能食, 胸脅滿悶, 少陽證也. 始太陽傳入此經, 故有是證. 仲景云: '太陽病不解, 傳入少陽, 脅下滿, 乾嘔者, 小柴胡湯主之.'" 三投而痛止, 續得汗解.

동제현(董齊賢)이 상한에 걸린 지 며칠이 지나서 양쪽 옆구리가 배꼽 부위까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어떤 의사는 분돈(奔豚)으로 보고 치료하였다. 내가 살펴본 후 "그것이 아닙니다. 족소양담경은 옆구리를 지나 귀로 들어갑니다. 사기(邪氣)가 이 경맥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자주 하며 갈증이 있고 한열이 왕래하며 말이 없으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흥협부가 그득하면서 답답한 것이니 소양증입니다. 처음에 태양경에 있다가 소양경으로 전입(傳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장중경은 '태양병이 풀리지 않고 소양경으로 전입하여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에는 소시호탕으로 주치한다.'(sm/제266조(279))고 하였습니다."고 하면서, 3제를 투여하니 통증이 멎고 이어서 땀이 나더니 병이 풀렸다.

傷寒溫瘧證 六十五

【65】상한온학증

友人孔彥輔, 病傷寒, 身大熱, 頭痛, 自汗, 惡熱, 陽明證也. 此公不慎將理¹, 病未除, 當風取涼以自快, 越半月, 寒熱大交作. 予再視之, 則爲壞病溫瘧矣. 仲景云: "若十三日以上, 更感異氣, 變爲他病者, 當依舊²壞病證而治之. 若脈陰陽俱盛, 重感於寒, 變成溫瘧. 脈之變證, 方治如法." 乃小柴胡湯之類, 加桂枝, 治之愈.

친구인 공언보(孔彥輔)가 상한에 걸려 몸에 심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자한이 나고 오열(惡熱)이 있으니 양명증이였다. 공언보는 조리하는 데 신중하지 않고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서늘하게 바람 맞는 것을 상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자 오한과 발열이 심하게 교대되어 나타났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괴병(壞病)인 온학(溫瘧)이였다. 장중경은 "만약 13일 이후 다시 다른 사기(邪氣)를 받아서 다른 병으로 변한 경우에는 마땅히 이후에 발생한 괴병증에 의거하여 치료해야 한다. 만약 음맥 [척맥] 과 양맥 [촌맥] 이 모두 성(盛)한데 다시 한사(寒邪)를 받으면 변하여 온학이 된다. 이때는 변화된 병증을 진맥하여 법도대로 처방하고 치료해야 한다." [<상한례>] 고 하였다. 소시호탕 등에 계지를 더하여 치료했더니 나았다.

論曰: 往來嘗見一士人, 施瘧方, 以榜睢陽市肆, 柴胡、白虎之類也. 俗人不問是何瘧證, 例用前方, 往往反變大疾. 嗚呼! 將欲濟人, 反致損人, 豈理也哉! 予嘗謂瘧證最多, 有暑瘧、食瘧、脾寒瘧, 手足三陰三陽皆有瘧, 脾、肺、腎、肝、心、胃亦有瘧, 各各不同, 安得一槩與柴胡、白虎湯耶? 誤治尚可擬議³, 惟脾寒、中暑二證, 若水火不相將. 《素問》曰: "夏傷於暑, 秋爲瘧瘧." 又曰: "夏暑汗不出者, 秋成風瘧." 始因伏暑, 得秋氣乃發, 故先熱後寒, 或熱多寒少, 頭目昏痛, 虛則發戰, 汗出一時而止. 蓋心惡暑氣, 心爲君, 心不受邪, 而心包絡痰涎所聚, 暑伏於涎中, 豈比脾寒而厚朴草果所能驅, 溫瘧而柴胡黃芩所能止也, 非砒硃腦麝之屬不能入. 故暑瘧脾寒患

者多, 而醫者不識, 妄投以寒藥, 眞氣先受病, 所以連綿不已也. 予嘗精究瘧證一病, 須詳審諦當, 然後行藥, 十治十中, 無有失者. 衆人以瘧爲難療, 予獨以爲易治, 要在別其證類, 識其先後耳. 因論溫瘧言及此, 亦欲使患者知藥不可妄投也. 《素問》〈瘧論〉甚詳, 當精觀之.

〔논〕 길을 오가다가 어떤 선비가 학증(瘧證) 처방을 수양(睢陽)의 시장에 있는 가게에 붙여서 베푸는 것을 보았는데 소시호탕·백호탕 등이었다. 일반인들이 어떠한 학증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죄다 이 처방을 쓰다가 이따금씩 오히려 큰 병으로 바뀌었다. 아! 사람을 살리려다가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일찍부터 학증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서학(暑瘧)·식학(食瘧)·비한학(脾寒瘧)이 있고, 수족의 삼양삼음에도 모두 학증이 있으며, 비(脾)·폐(肺)·신(腎)·간(肝)·심(心)·위(胃)에도 역시 학증이 있어서 각각이 동일하지 않으니, 어찌 일제히 소시호탕·백호탕을 투여하겠는가? 오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치법을 따지면서 논의할 수 있으나, 비한학(脾寒瘧)·서학(暑瘧)이 2병증만은 물과 불처럼 함께 할 수 없다. 《소문》에서 "여름에 서기(暑氣)에 손상되면 가을에 해학(痃瘕)을 앓는다."고 하였다. 또한 "여름 더위에 땀을 제대로 흘리지 않은 자는 가을에 풍학(風瘧)을 앓게 된다."고 하였다. 일찍이 잠복했던 서기(暑氣)가 가을 기운을 만나 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발열이 있고 이후에 오한이 있거나 혹은 발열이 많고 오한이 적으며, 머리가 아프면서 눈앞이 아찔하고 허하면 부르르 떨며 땀이 한 차례 나면서 멎는다. 대개 심(心)은 서기(暑氣)를 싫어한다. 심은 군주이기 때문에 사기를 받지 않으니 심포락(心包絡)에 담연이 쌓이고 서기(暑氣)가 담연 속에 잠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찌 비한학(脾寒瘧)처럼 후박·초과로 쫓아낼 수 있으며, 온학(溫瘧)처럼 시호·황금으로 멎게 할 수 있겠는가? 비상·주사·용뇌·사향 등이 아니라면 병소까지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서학과 비한학을 앓는 자가 많지만, 의사가 알지 못하고서 제멋대로 한(寒)한 약을 투여하니 진기(眞氣)가 먼저 병을 받기 때문에 시간만 질질 끌고 낫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학증 하나에 대해 정밀히 연구를 하였으니, 반드시 정확

한 증상을 상세히 살핀 연후에 약을 썼기 때문에 10명을 치료하여 10명 모두 잘못된 경우 없이 나았다. 사람들은 학증을 치료하기 어렵다고 여기나 나는 유독 치료하기 쉽다고 본다. 그 요체는 병증을 변별하고 선후를 아는 것에 있을 따름이다. 내가 온학을 논하다가 여기에까지 언급하게 된 것은 역시 환자들에게 약은 함부로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소문》〈학론〉에 매우 상세하게 나오니 정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1. 將理 : 將理는 쉬면서 몸을 조리하는 것을 이른다. ↪

2. 舊 : 舊後 ※《상한론》〈상한례〉 ↪

3. 擬議 : '擬'는 말하기 전에 따져보는 것이고 '議'는 행동하기 전에 따져보는 것이다. 결국, 따져보고 토론하는 것을 이른다. ↪

發斑證 六十六

【66】반진이 생기는 병증

族有乳媼, 患傷寒七八日, 發斑, 肌體如火, 脈洪數而牢, 心中煩滿不快, 俄而變赤黑斑, 其家甚驚惶. 予曰: "此溫毒也. 溫毒爲病最重, 而年齒爲邁, 是誠可憂也. 仲景云: '傷寒¹脈洪數, 陰脈實大, 更遇濕熱, 變成溫毒. 溫毒最重也.' 故斑疹生, 心下不快痞悶." 遂以升麻玄參湯與之, 日夜四五服, 斑退而愈.

친족의 유모 한 명이 상한에 걸린 지 7~8일 되어 반진이 돋고 피부가 불덩이처럼 뜨거우며 맥이 홍삭(洪數)하면서 뇌(牢)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득하여 상쾌하지 않더니, 갑자기 검붉은 반진으로 변해 그 집안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당황하였다. 나는 "이것은 온독입니다. 온독이라는 병이 매우 위중한 것인데 다 환자의 나이가 많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장중경은 '상한으로 양맥이 홍대(洪數)하고 음맥이 실대(實大)한데 또 습열까지 만나면 변하여 온독이 된다. 온독은 매우 위중하다.' [〈상한례〉]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진이 생기고 심하가 소통되지 않아 막히면서 답답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곧바로 승마헌 삼탕을 투여하여 밤낮으로 4~5번을 복용시키니 반진이 없어지면서 나았다.

論曰: 華佗云: "傷寒五日在腹, 六日在胃, 入胃則可下也. 若熱毒未入於胃, 而先下之者, 其熱乘虛入胃, 則胃爛. 然熱入胃, 要須復下之, 不得留在胃中也. 胃若實, 爲致此病, 三死一生. 其熱微者赤斑出, 劇者黑斑出. 赤斑出者五死一生, 黑斑出者十死一生, 但看人有強弱耳. 病者至日, 不以時下之, 熱不得泄, 亦胃爛斑出, 蓋此是惡候. 若下之早, 則熱乘虛入胃; 或下遲, 則熱入不得泄. 須是乘機不可失時, 庶幾輕可也."

(논) 화타는 "상한병이 5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위(胃)에 있는데, 위에 들어가면 공하를 할 수 있다. 만약 열독이 아직 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먼저 공하하는 경우에는 그 열이 허한 틈을 타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짓무르게 된다. 하지만 열이 위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시 공하를 하여, 위 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위가 실(實)한 사람이 이 병으로 진행되면 3명은 죽고 1명이 산다. 그 열이 경미한 경우에는 붉은 반진이 생기고, 열이 심한 경우에는 검은 반진이 생긴다. 붉은 반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5명은 죽고 1명이 살며, 검은 반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10명이 죽고 1명이 산다. 이는 다만 환자가 강한지 약한지에 달려 있다. 환자가 시일이 되었는데도 제때 공하를 하지 않아 열을 배설하지 못해도 역시 위가 짓무르고 반진이 생기니 이는 위중한 증후이다. 만약 공하를 너무 빨리 하면 열이 허한 틈을 타 위에 들어가고, 공하를 너무 늦게 하면 들어간 열이 배설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회를 틈타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만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1. 脈 : 陽脈 ※《상한론》〈상한례〉↩

臟結證 六十七

【67】장결증

甲辰, 鹽商臧舟江次, 得傷寒, 胸膈痞, 連臍下旁不可忍, 飲食不進. 予診之曰: "此非結胸, 乃臟結也, 不可救矣." 臟結者, 寸脈浮, 關脈細小沈緊者, 尚有白苔, 痛引小腹則死. 仲景云: "痛引小腹, 入陰經者死." 次日痛引小腹, 午時果死.

갑진년(1124)에 소금을 파는 상인이 강가에 배를 정박했을 때 상한에 걸려 흉격에서부터 배꼽 아래와 옆까지 막혀서 견딜 수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내가 진찰한 후 "이것은 결흉이 아니라 장결이니 치료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장결은 촌맥이 부(浮)하고 관맥이 세(細)、소(小)、침(沈)、긴(緊)한데, 여기에다 허에 하얀 설태가 끼고 통증으로 아랫배가 당기면 죽는다. 장중경은 "통증으로 아랫배가 당기고 사기가 음경에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죽는다."〔sm/제167조(175)〕고 하였다. 다음날 통증으로 아랫배가 당기더니 과연 오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에 죽었다.

陽結證 六十八

【68】양결증

豫章¹ 劉商人, 傷寒, 發熱, 口苦咽乾, 腹滿能食, 大便閉, 醫作陽明治. 召予視, 同坐. 予問醫曰: "何以見證屬陽明?" 醫曰: "仲景云: '陽明中風, 口苦咽乾, 腹滿.' 又云: '陽明病, 若能食, 名曰中風; 不能食, 名曰傷寒.' 又曰: '少陽陽明者, 胃中煩, 大便難是.' 審茲三者, 全是陽明證也." 予曰: "陽明之脈長而實, 中風者, 必自汗. 今證雖陽明, 然脈反見數, 而身無汗, 果可作陽明治否?" 醫無以應. 予曰: "以僕觀之, 所謂陽結也. 今計其日, 已十六日矣. 來日當病劇, 當與公治之." 其家疑而不決, 來日病果大作, 亟召. 予曰: "是陽結證也. 仲景云: '脈有陰結陽結, 何以別之?' 答曰: '其脈浮而數, 能食, 不大便, 此爲實, 名陽結也,²; 其脈沈而遲, 不能食, 身體重, 大便反鞭, 名曰陰結, 期十四日當劇.' 今病者十七日而劇者, 是其候也." 乃投以大柴胡, 兩啜而病除矣.

예장(豫章)의 상인 유 씨(劉氏)가 상한에 걸려 열이 나고 입이 쓰며 인후가 건조하고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배가 그득하며 대변이 막혔는데, 의사는 양명병으로 여겨 치료하였다. 나를 살펴보게 불러서 그 의사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내가 그 의사에게 "어찌하여 양명증에 속한다고 보신 겁니까?"라고 하니, 의사가 "장중경은 '양명중풍은 입이 쓰고 인후가 건조하며 배가 그득하다.' (『제189조(201)』)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명병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중풍(中風)이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중한(中寒)이라 한다.' (『제190조(202)』)고 하였습니다. 또 '소양양명은 위(胃) 속에 번증(煩證)이 있고 대변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179조(190)』)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양명증입니다."고 하기에, 내가 "양명병의 맥은 장(長)하면서 실(實)하고 중풍의 경우 반드시 자한이 납니다. 지금 환자의 병증이 양명병이긴 하지만 맥이 오히려 삭(數)하게 나타나고 몸에 땀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양명병으로 여겨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의사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나는 "제가 보기에 이른바 양결(陽結)입니다. 지금 날수를 계산해보니 이미 16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병이 극심해질 것이니 선생님과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환자 집안사람들은 의심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병이 과연 크게 발작하여 나를 급히 불렀다. 내가 "이것은 양결증입니다. 장중경은 '맥에 음결과 양결이 있으니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그 맥이 부(浮)하면서 삭(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대변을 볼 수 없는 것은 실증이니 양결이라고 하며 17일이 되는 날 병이 극심해진다. 그 맥이 침(沈)하면서 지(遲)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몸이 무겁고 대변은 도리어 똥똥한 것을 음결이라고 하니 14일이 되는 날 병이 극심해진다.' [〈변맥법〉] 고 하였습니다. 지금 환자가 17일이 되는 날 병이 극심해진 것이 바로 그 증후입니다."고 하면서, 대시호탕을 투여하니 2번을 먹고 병이 나았다.

論曰：仲景云："脈來靄靄如車蓋者，名曰陽結；脈來累累如循長竿者，名曰陰結。"靄靄如車蓋，則是浮是數之狀，仲景所謂善取象矣。然則陽結何以十七日當劇，陰結何以十四日當劇？蓋十七日，老陽少陽之數；十四日，老陰少陰之數也。老陽之數九，少陽之數七，**七九計十六³**，更進一數，陽之數而其道常饒，又陽數奇故也。老陰之數六，少陰之數八，**八六計十四日**，不進者，陰主靜，而其道常乏，又陰數偶也。如此盈虛消長，不能逃乎時數。

〔논〕 장중경은 "맥이 수레덮개처럼 치성한 것을 양결이라고 하고, 맥이 긴 장대를 만지는 것처럼 뻗어 간 것을 음결이라고 한다." [〈변맥법〉] 고 하였다. 수레덮개처럼 치성한 것은 부(浮)하고 삭(數)한 것이니 장중경이 잘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양결은 어째서 17일이 되어 병이 극심해지고, 음결은 어째서 14일이 되어 병이 극심해지는 것일까? 대개 17일은 노양·소양의 수이고, 14일은 노음·소음의 수이기 때문이다. 노양의 수는 9이고 소양의 수는 7이니 7과 9를 합하면 16이다. 여기에서 1만큼 더 나아가면 양의 수이니 양의 도(陽道)는 늘 남아도는 것이며 양의 수는 홀수이기 때문이다. 노음의 수는 6이고 소음의 수는 8이니 8과 6을 합하면 14이다. 1도 더 나아가지 않은 것은 음은

고요함을 주관하고 음의 도(陰道)는 늘 부족한 것이며 음의 수는 짝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세가 가볍고 무거워지는 변화 과정도 시수(時數)를 벗어나지 못한다.

1. 豫章 : 오늘날의 강서성(江西省) 남창시(南昌市). ↩

2. 글자없음 : *期十七日當劇 ※《상한론》〈변맥법〉

아래 '今病者十七日而劇者, 是其候也'와 함께 살필 경우에 이 6자가 없으면 문장 전체가 매우 어색해진다. 이 때문에 본문에는 없지만 이 6자를 넣어서 번역하였다. ↩

3. 七九計十六 : 아래 '八六計十四日'에서는 '日'자가 있고 여기에는 '日'자가 없다. 그대로 번역해 두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관성을 위해서는 둘 모두 '日'자가 있거나 둘 모두 없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번역에서는 우리 말에 더 어울리도록 '日'자가 없이 번역해 두었다. ↩

傷寒協熱利證 六十九

【69】상한협열리증

庚戌四月, 鄉婦吳氏病傷寒, 頭疼身熱, 下利不止, 衆醫多以附子、理中、金液治之, 煩躁而利愈甚. 予視之曰: "脈遲而沈, 若臍下熱, 則協熱利也." 投三黃熟艾湯, 三服而利止渴除, 漸投以解肌汗藥, 而得汗瘥.

경술년(1130) 음력 4월, 내 고향의 오 씨 부인이 상한에 걸려 머리에 동통이 있고 몸에 열이 나며 설사가 그치지 않았다. 의사들이 대부분 부자탕·이중탕·금액단을 써서 치료하니 번조증이 생기고 설사가 더욱 심해졌다. 내가 살펴본 후 "맥이 지(遲)하면서 침(沈)한데 배꼽 아래에 열이 있으니 협열리입니다."고 하면서, 삼황숙매탕을 투여하니 3번 복용하고는 설사가 멎고 갈증이 사라졌다. 차츰 해기(解肌)하고 땀을 내는 약을 투여하니 땀이 나고는 나았다.

胃熱嘔吐證 七十

【70】위(胃)에 열이 있어 구토하는 병증

丁未歲夏, 族妹因傷寒, 已汗後, 嘔吐不止, 強藥不下. 醫以丁香、硝石、硫黃、藿香等藥治之, 蓋作胃冷治也. 予往視之曰: "此汗後餘熱尚留胃脘¹. 若投以熱藥, 如以火濟火, 安能止也?" 故以香薷湯、竹茹湯, 三服愈.

정미년(1113) 여름, 친척 여동생이 상한에 걸려서 땀을 낸 뒤에 구토가 멎지 않아 강한 약을 썼으나 내려가지 않았다. 의사들이 정향·초석·유황·곽향 등의 약을 써서 치료하였으니, 위(胃)가 냉한 것으로 여겨 치료한 것 같다. 내가 가서 살펴본 후 "이것은 땀을 낸 후에도 남은 열이 여전히 위완(胃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열(熱)한 약을 투여하면 화(火)로 화(火)를 끄려는 격이니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향유탕·죽여탕을 3번 복용시키니 나았다.

1. 脘: 胃脘 ※문맥상 ↪

霍亂轉筋證 七十一

【71】곽란으로 굳이 뒤틀리는 병증

夏, 鐘離德全一夕病, 上吐下瀉, 身冷, 汗出如洗, 心煩躁, 予以香薷飲與服之. 翌日遂定, 進理中等調之, 痊.

종리덕전(鐘離德全)이 어느 여름 저녁에 병이 나서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며 몸이 차고 땀이 물로 씻은 듯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였다. 나는 향유음을 투여하였다. 다음날 곧바로 안정이 되어 이중탕 등으로 조리하니 완치되었다.

論曰：仲景云：“病發熱，頭痛，身疼，惡寒，吐利者，此屬何病？”答曰：“此名霍亂。自吐下，又利止而復作，更發熱也。”此病多由暑熱，陰陽不和，清濁相干，飲食過傷，三焦溷亂，腹中撮痛，煩渴不止，兩足轉筋，殺人頗急，不可緩也。

〔논〕 장중경은 “병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몸에 동통이 있고 오한이 들며 토하면서 설사하는 것은 어떤 병에 속하는가?”라는 물음에 ‘이것은 곽란이라고 한다. 저절로 토하면서 설사하고 설사가 그쳤다가도 재발하며 다시 열이 난다.’(sm/제383조(398))고 하였다. 이 병은 대부분 서열(暑熱)로 인해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고 청탁이 서로 뒤섞인 데다가 과식으로 손상되어 삼초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뱃속이 쥐어짜듯 아프고 번갈아 그치지 않으며 양쪽 다리의 굳이 뒤틀려 사람이 금세 죽게 되니 치료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兩脛逆冷證 七十二

【72】양쪽 정강이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병증

江西茶客吳某, 病頭疼如裹, 兩腳自膝以下皆冷, 胸間多汗, 時時譫語, 醫作陰證, 治以附子輩, 意其足冷而厥也. 予診其脈, 關濡尺急, 遂斷以濕溫脈證. 其病先日受濕, 而又中喝, 濕熱相搏, 故此證成. 急以白虎三投而解.

강서의 차 상인 오씨가 병에 걸려 머리가 아프면서 뭐로 감싼 듯이 무겁고 양쪽 다리가 무릎 이하로 다 차가우며 가슴에서 땀이 많이 나고 때때로 헛소리를 하였다. 의사가 음증으로 보고 부자 등으로 치료한 것은 다리가 꺾랭하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그 맥을 짚어보니 관맥은 유(濡)하고 척맥은 급(急)하여 결국 습온의 맥증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이 병은 지난날 습을 받은 데다가 더위를 먹어 습과 열이 서로 뭉쳤기 때문에 이러한 병증이 형성된 것이다. 급히 백호탕을 3번 투여하니 나았다.

汗後勞復證 七十三

【73】땀을 내어 나온 후 정신적 과로로 인해 재발한 병증

有人傷寒, 得汗數日, 忽身熱自汗, 脈弦數, 宛然復作. 斷之曰: "勞心所致也. 神之所舍, 未復其初, 而又勞傷其神, 營衛失度, 當補其子, 益其脾, 解其勞, 庶幾便愈." 醫者在座, 難之曰: "虛則補其母, 今補其子, 出在何經也?" 予曰: "出《千金方論》. 子不知虛勞之證乎? 《難經》曰: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此虛則當補其母也. 《千金方》: '心勞甚者, 補脾氣以益其心, 脾旺則感於心矣.' 此勞則補其子也. 蓋母, 生我者也; 子, 繼我助我者也. 方治其虛, 則補其生我者, 與《錦囊》所謂'本骸得氣, 遺體受蔭'同義; 方治其勞, 則補其助我者, 與《荀子》'未有子富而父貧'同義. 故二者補法, 各自有理." 醫唯唯而退.

어떤 사람이 상한에 걸려 땀을 낸 후 나왔다가 며칠이 지나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자한이 생기며 맥이 현삭(弦數)하니 다시 재발한 것 같았다. 내가 단정하여 "정신적 과로 때문입니다. 신(神)이 깃든 곳 [심] 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시 과로로 정신을 손상시키니 영위가 실조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 자(子)를 보해야 하니 비(脾)를 보익하고 과로한 걸 풀어주면 아마 곧 나을 것입니다."고 하니, 같이 있던 의사가 힐난하여 "허하면 그 모(母)를 보해야 하는 법인데 지금 그 자(子)를 보하겠다고 하니 대체 어떤 경전에 나오는 겁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천금방》에 나옵니다. 그대는 허로증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난경》에서 '허하면 그 모(母)를 보하고 실하면 그 자(子)를 사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허증에는 마땅히 그 모(母)를 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금방》에서 '정신적 과로가 심한 경우에는 비기(脾氣)를 보하여 그 심을 복돋아야 하니 비기가 왕성해지면 심도 감응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허로에는 그 자(子)를 보해야 합니다. 대개 모(母)는 나를 생성시키는 곳이고, 자(子)는 나를 잇고 나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허증을 치료할 때 나를 생성시키는 곳을 보하는 것은, 《금강》에서 '아버이가 기를 얻으면 그 자식이 음덕을 받는다.'고 한 것과 같은 의

미입니다. 허로를 치료할 때 나를 돕는 곳을 보하는 것은, 《순자》에서 '자식이 부자인데 아버지가 가난한 경우는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보법에는 각기 이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고 하니, 그 의사는 "예, 예."하면서 물러났다.



汗後瘡瘍證 七十四

【74】땀낸 후의 창양증

李琛大夫病傷寒, 發熱, 面目俱赤, 氣上衝, 腹滿, 大小便閉, 無汗, 脈緊而長. 予令服大承氣湯, 他醫以小柴胡湯與之, 不驗, 又以大柴胡湯與之, 亦不效, 又增大柴胡湯大劑, 大便通, 下燥屎得愈. 乃夸曰: "果不須大承氣." 予笑曰: "公苟圖目前, 而不知貽禍於後. 病雖瘥, 必作瘡瘍之證." 後半月, 忽體生赤瘡, 次日, 背發腫如盤, 堅如石, 痛不堪忍. 渠以爲背疽憂甚, 急召予. 予曰: "瘡瘍之證也. 若當日服承氣, 今無此患矣." 治以數日瘥. 或者問: "何以知其瘡瘍之證?" 予曰: "仲景云: '趺陽脈滑而緊者, 胃氣實, 脾氣強, 持實擊強, 痛還自傷, 以手把刀, 坐作¹瘡' 蓋病勢有淺深, 藥力有輕重, 治者必察其病者如何耳.' 疾勢深, 則以重劑與之; 疾勢輕, 則以輕劑與之. 正如持衡, 錙銖不偏也. 不然, 焉用七方十劑? 今病人毒邪如此深, 須藉大黃、朴硝, 蕩滌臟腑經絡毒氣, 利三二行, 則邪毒皆去. 今醫小心謹慎, 又不能了了見得根源, 但以大柴胡得屎, 因謂大便通行, 便得安痊, 不知遺禍於後, 必瘡瘍. 當時若聽予言, 豈有斯患."

이침(李琛)이라는 대부가 상한에 걸려 열이 나고 얼굴과 눈이 온통 붉으며 기가 치받고 배가 그득하며 대소변이 막히고 땀이 나지 않으며 맥이 긴(緊)하면서 장(長)하였다. 나는 대승기탕을 복용하라고 하였다. 다른 의사가 소시호탕을 투여했으나 효험이 없었고, 다시 대시호탕을 투여했으나 역시 효험이 없었으며, 대시호탕의 용량을 더 늘렸더니 대변이 소통되어 조시(燥屎)가 나오면서 나았다. 이에 그 의사가 자랑하여 "과연 반드시 대승기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려."라고 하기에, 내가 웃으면서 "그대는 눈앞의 것만 헤아리고 뒷날에 화가 미칠 것은 알지 못하는구려. 병이 나았지만 반드시 창양증이 생길 것입니다."고 하였다. 보름 뒤 몸에 갑자기 붉은 창양(瘡瘍)이 생기고, 다음날 등에 종기가 나 크기가쟁반만 하고 돌처럼 딱딱하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배저(背疽)라 생각하여 몹시 걱정하며 나를 급히 불렀다. 내가 "창양증입

니다. 만약 당시에 대승기탕을 복용했다라면 지금 이 병은 없을 겁니다."고 하면서, 치료하였더니 며칠 만에 나았다. 누군가가 "어떻게 창양증이 생길 것을 알았습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장중경은 '부양맥이 활(滑)하면서 긴(緊)한 것은, 위기(胃氣)가 실(實)하고 비기(脾氣)가 강(強)한 것을 의미한다. 위기의 실함으로 비기의 강함을 쳐서 통증이 도리어 스스로를 손상시키니 손으로 칼날을 쥐어서 절로 상처가 생기는 것과 같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대개 병세에는 얕고 깊은 것이 있고 약력에는 약하고 강한 것이 있으니, 치료하는 의사는 반드시 그 병이 어떠한지 살펴야만 합니다. 병세가 깊으면 강한 약을 주어야 하고, 병세가 가벼우면 약한 약을 주어야 합니다. 저울에 다는 듯이 하여 조금도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7방과 10제를 쓰겠습니까? 지금 환자의 사독(邪毒)이 이렇게 깊으니 반드시 대항·박초로 장부경락의 독기를 씻어내어 2~3차례 설사를 시켜야만 사독(邪毒)이 모두 제거됩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소심하여 삼가고 또 병의 근원을 확실히 알지 못하여 단지 대시호탕으로 변으로 보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변이 소통되자 곧장 회복되었다고 여겼지만 뒷날의 화를 남겨놓아 반드시 창양이 생길 것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만약 제 말을 들었더라면 어찌 이런 병이 생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1. 瘍 : 瘡 ※《상한론》〈평맥법〉

한 글자로 쓰일 경우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앞 구절의 '칼날(刃)' 비유와 관련하여 번역하자면 '상처' 정도가 제일 적합한 번역술어이다. 한문에서는 '瘍'이든 '瘍'이든 모두 창양증을 떠올리게 하지만 우리말로 변환해놓으면 연상 작용이 떨어지게 된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읽어주시기 바란다. ↗

面垢惡寒證 七十五

【75】얼굴에 때가 끼고 오한이 드는 병증

一尼病頭痛身熱，煩渴，躁，診其脈大而虛。問之曰："小便赤，背惡寒，毛竦灑灑然，面垢，中暑也。" 醫作熱病治，但未敢服藥。予投以白虎湯，數日愈。

어떤 여승이 병이 들어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며 번갈과 번조가 있었다. 그 맥을 짚어보니 대(大)하면서 허(虛)하였다. 내가 물어본 후 "소변이 진하고 등에 오한이 들어 털이 곤두서면서 오싹오싹하며 얼굴에 때가 끼니 중서(中暑)입니다."고 하였다. 의사는 열병으로 보고 치료하려 하였으나 환자가 그 약을 감히 먹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백호탕을 투여하니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仲景云："脈虛身熱，得之傷暑。" 又云："其脈弦細芤遲，何也？《素問》曰：'寒傷形，熱傷氣。' 蓋傷氣不傷形，則氣消而脈虛弱，所以弦遲芤細，皆虛脈而可知矣。"

〔논〕 장중경은 "맥이 허(虛)하고 몸에 열이 있는 것은 서사(暑邪)에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상한례〉] 고 하였다. 또한 "그 맥이 현(弦)、세(細)、규(芤)、지(遲)한 것은 어째서인가? 《소문》에서 '한은 형을 손상시키고 열을 기를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기를 손상시키되 형은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기가 사그라져 맥이 허약(虛弱)해지니 현、세、규、지가 모두 허증의 맥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傷寒下利證 七十六

【76】상한으로 설사하는 병증

呂商得傷寒，自利腹滿，不煩，不渴，嘔吐，頭痛。予診趺陽脈大而緊。曰："太陰證也。若少陰下利必渴，今不渴，故知太陰證。仲景云：'自利不渴屬太陰。'"調治數日愈。

상인 여 씨가 상한에 걸려 저절로 설사하고 배가 그득하지만 번증·갈증이 없으며 구토를 하고 머리가 아팠다. 내가 진찰해보니 부양맥이 대(大)하면서 긴(緊)하였다. 내가 "태음증입니다. 소음증의 설사라면 반드시 갈증이 납니다. 지금 갈증이 없으니 태음증을 알 수 있습니다. 장증경은 '저절로 설사하면서 갈증이 없는 것은 태음에 속한다.'(sm/제277조(290))고 하였습니다."고 하면서, 치료하니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或問："傷寒何以診趺陽?" 予曰："仲景稱：'趺陽脈大而緊者，當即下利。'《脈經》云：'下利，脈大爲未止，脈微細者今日¹愈。' 仲景論趺陽脈²十一處，皆因脾胃而設也。且如稱趺陽脈滑而緊，則曰滑乃胃實，緊乃脾弱。趺陽脈浮而澁，則曰浮爲吐逆，水穀不化，澁則食不得入。趺陽脈緊而浮，浮則腹滿，緊則絞痛。趺陽脈不出，則曰脾虛，上下體冷，膚鞭。則皆脾胃之設可知矣。大抵外證，腹滿自利，嘔惡吐逆之類，審是病在脾胃，而又參決以趺陽之脈，則無失矣。其脈見於足趺之陽，故曰趺陽。仲景譏世人握手而不及足。"

〔논〕 어떤 사람이 "상한병에 왜 부양맥을 짚어야 합니까?"라고 묻기에, 내가 "장증경은 '부양맥이 대(大)하면서 긴(緊)한 경우에는 당연히 곧 설사를 하게 된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맥경》에서는 '설사에 맥이 대(大)한 경우는 설사가 그치지 않고, 맥이 미세(微細)한 경우는 이제 저절로 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장증경이 부양맥을 논한 것이 총 11곳인데 모두 비위(脾胃)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예컨대 부양맥이 활(滑)하면서 긴(緊)한 경우, 활은 위(胃)가 실한 것을 의미하고 긴은 비(脾)가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맥이 부

(浮)하면서 습(澁)한 경우, 부는 구토하고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습은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맥이 긴(緊)하면서 부(浮)한 경우, 부는 배가 그득한 것을 의미하고 긴은 쥐어짜듯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비(脾)가 허한 것을 의미하니 상체와 하체가 차고 피부가 경직됩니다. 이는 모두 비위에 대해 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외증(外證)으로 배가 그득하고 저절로 설사하며 오심구토 등이 있는 것은 병이 참으로 비위에 있는 것이니, 부양맥을 참고하여 판단하면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맥이 발등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양(趺陽)(sm/부양은 '발〔趺〕의 등〔陽〕'이라는 뜻이다)이라고 부릅니다. 장중경은 세상 사람들이 손만 진맥하고 발은 진맥하지 않는 것을 비난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1. 日 : 自 ※《맥경》↩

2. 九 : 凡 ※문맥상↩

傷寒閉目證 七十七

【77】상한에 눈을 감고 있는 병증

李思順得傷寒，惡寒發熱，口中氣熱如火，不絕七八日矣，而目閉不肯開。予診其脈，陰陽俱緊，是必汗之而復下之故也，此壞證矣。病家曰：一醫於三日前汗之不愈，一醫復下之，而目閉矣。遂投以小柴胡湯，五噉而愈。

이사순(李思順)이 상한에 걸려 오한이 있고 열이 나며 입김이 불처럼 뜨거운데 7~8일이 되도록 끊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뜨려 하지 않았다. 내가 맥을 짚어보니 음맥 [척맥] 、양맥 [촌맥] 이 모두 긴(緊)하였다. 이는 필시 땀을 내고 다시 공하를 했기 때문이니 괴증(壞證)이다. 환자 집안에서는 "어떤 의원이 3일 전에 땀을 내도 낫지 않아 다른 의원이 다시 공하를 하니 눈을 감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곧바로 소시호탕을 투여하니 5번 복용하고 나았다.

論曰：或者¹：“何以知其汗下而目閉？”予曰：“仲景稱：‘傷寒發熱，口中氣勃勃然，頭痛目黃，若下之則目閉。’又云：‘傷寒脈陰陽俱緊，惡寒發熱，目赤脈多，睛不慧，醫復汗之，咽中傷，若復下，則兩目閉。’此壞證，須小柴胡湯，調之愈。”

[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땀을 내고 공하를 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라고 하니, 내가 "장중경은 '상한으로 열이 나고 입속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오며 머리가 아프고 눈이 누런 경우 공하를 하면 눈을 감고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한으로 음맥 [척맥] 、양맥 [촌맥] 이 모두 긴(緊)하고 오한이 있으며 열이 나고 눈이 충혈되며 눈앞이 흐릿한데, 의사가 다시 땀을 내면 인후가 손상되고 만약 다시 공하를 하면 두 눈을 감고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괴증이니 반드시 소시호탕으로 조리를 해야 낫습니다."고 하였다.

1. 者 : 問 ※다른 판본

'혹자가 말하였다'라고 새겨도 되기 때문에 일단 원문을 존중하여 그대로 새겼다. ←



傷寒表實證 七十八

【78】상한표실증

羽流病傷寒, 身熱頭痛. 予診之曰: "邪在表, 此表實證也, 當汗之." 以麻黃輩, 數日愈.

어떤 도사가 상한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팠다. 내가 진찰한 후 "사기(邪氣)가 체표에 있습니다. 이는 표실증이니 마땅히 땀을 내어야 합니다."고 하면서, 마황탕류를 쓰니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 或問: "傷寒因虛, 故邪得以入之. 今邪在表, 何以爲表實也?" 予曰: "古人稱邪之所湊, 其氣必虛, 留而不去, 爲病則實. 蓋邪之入也, 始因虛, 及邪居中反爲實矣. 大抵調治傷寒, 先要明表里虛實, 能明此四字, 則仲景三百九十七法, 可坐而定也. 何以明之? 有表實, 有表虛, 有裏實, 有裏虛, 有表裏俱實, 有表裏俱虛, 予於表裏虛實《百證歌》中, 嘗論之矣. 仲景麻黃湯類, 爲表實而設也; 桂枝湯類, 爲表虛而設也. 裏實, 承氣之類; 裏虛, 四逆、理中之類. 表裏俱實, 所謂陽盛陰虛, 下之則愈也. 表裏俱虛, 所謂陰盛陽虛, 汗之則愈也."

〔논〕 어떤 사람이 "상한은 허하기 때문에 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기가 체표에 있는데 어찌 표실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으니, 내가 "옛사람은 사기가 모이는 곳은 그 기가 반드시 허하기 때문에 사기가 머물러 떠나지 않으니, 이리하여 병에 걸리면 실증이라 하였습니다. 대개 사기가 들어오는 것은 처음에는 허하기 때문이지만 사기가 몸속에 있으면 도리어 실증이 됩니다. 대개 상한을 치료할 때에는 먼저 표리허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4자를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장중경의 397가지 치법을 앗은 자리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표실이 있고 표허가 있으며, 이실(裏實)이 있고 이허(裏虛)가 있으며, 표리구실(表裏俱實)이 있고 표리구허(表裏俱虛)가 있으니, 내가 일찍이 표리허실에 대해 《상한백

증가傷寒百證歌》에서 논하였습니다. 장중경의 마황탕류는 표실을 위해 만든 것이고, 계지탕류는 표허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실에는 승기탕류를 쓰고 이허에는 사역탕류·이중탕류를 씁니다. 표리구실은 이른바 양이 성하고 음이 허한 것이니 공하를 하면 낫습니다. 표리구허는 이른바 음이 성하고 양이 허한 것이니 땀을 내면 낫습니다."고 하였다.



手足逆冷證 七十九

【79】손발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병증

酒家朱三者, 得傷寒六七日, 自頸以下無汗, 手足厥冷, 心下滿, 大便秘結. 或者見其逆冷, 又汗出滿悶, 以爲陰證. 予診其脈沈而緊, 曰: "此證誠可疑, 然大便秘結者爲虛結也, 安得爲陽¹ 脈雖沈緊, 爲少陰證, 然少陰證多矣是² 自利, 未有秘結. 予謂此半在表, 半在裏也." 投以小柴胡湯, 大便秘通而愈.

술을 파는 주삼(朱三)이 상한에 걸린 지 6~7일 되어 목덜미 아래로는 땀이 나지 않고 손발이 껄랭하며 명치가 그득하고 대변이 뭉쳐서 막혔다. 어떤 이는 손발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땀이 나며 명치가 그득하면서 답답한 것을 보고서는 음증(陰證)이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맥을 짚어보니 침(沈)하면서 긴(緊)하기에 "이 병은 정말 사람을 헛갈리게 할 만합니다. 하지만 대변이 뭉친 것이 허결(虛結)인데 어찌 음증일 수 있겠습니까? 맥이 침긴(沈緊)하여 소음증 같으나, 소음증은 저절로 설사하는 경우가 많지 대변이 뭉쳐서 막히지는 않습니다. 저 사기의 절반은 표(表)에 있고 사기의 절반은 이(裏)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하였다. 소시호탕을 투여하니 대변이 소통되면서 나았다.

論曰: "傷寒, 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秘, 脈細者, 此爲陽微結, 必有表, 復有裏也. 脈沈, 亦在裏也. 汗出, 爲陽微. 假令純陰結, 不得復有外證, 悉入在裏, 此爲半在表半在裏也. 脈雖沈緊, 不得爲少陰病, 所以然者, 陰不得有汗, 今頭汗出, 故知非少陰也, 可與小柴胡湯. 設不了了者, 得屎而解也." 難者曰: "仲景云: '病人脈陰陽俱緊, 及³ 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今云陰不得有汗, 何也? 今頭汗出, 故知非少陰也. 何以頭汗出, 則知非少陰?" 予曰: "此說正是議議處. 謂四肢冷, 脈沈緊, 腹滿, 全是少陰. 然大便秘, 頭汗出, 不得謂少陰. 蓋頭者, 三陽所聚, 三陽⁴ 自胸中而

還, 有頭汗出, 自是陰⁵虛. 故曰: '汗出爲陽微, 是陰不得有頭汗也.' 若少陰有頭汗, 則九死一生. 故仲景〈平脈法〉云: '心者, 火也, 名火⁶陰. 其病, 頭無汗者可治, 有汗者死.' 心爲手少陰, 腎爲足少陰, 然相與爲病, 以意逆志, 是謂得之."

〔논〕 내가 "상한에 오한이 들고 손발이 차며 명치가 그득하고 입맛이 없으며 대변이 딱딱하고 맥이 세(細)한 것은 양이 미약하여 대변이 뭉친 것이니 사기(邪氣)가 표(表)에도 있고 이(裏)에도 있는 것입니다. 맥이 침(沈)한 것도 사기가 이(裏)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땀이 나는 것은 양기가 미약해서입니다. 가령 순수 음증으로 대변이 뭉친 것이라면 표증이 없이 모두 이(裏)에 들어갔겠지만, 이 환자는 사기가 절반은 표(表)에 있고 절반은 이(裏)에 있습니다. 맥이 비록 침긴(沈緊)하나 소음병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증이라면 땀이 날 수 없는데 지금 머리에 땀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음병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소시호탕을 투여할 만합니다. 만약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변을 보면 풀립니다."고 하니, 누군가가 "장중경은 '환자의 음맥 [척맥] · 양맥 [촌맥] 모두 긴(緊)한데 도리어 땀이 나는 경우는 망양(亡陽)이다. 이는 소음에 속한다.' (sm/제283조(297))고 하였습니다. 지금 음증에는 땀이 날 수 없다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또한 머리에 땀이 나기 때문에 소음병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머리에서 땀이 나면 소음병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따져 물어, 내가 "그대의 말은 정말 토론할 만합니다. 사지가 차고 맥이 침긴(沈緊)하며 배가 그득한 것은 전적으로 소음병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딱딱하고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은 소음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삼양경이 모이는 곳입니다. 삼음경은 흉중에서 되돌아갑니다. 머리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바로 양기가 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땀이 나는 것은 양기가 미약해서이니 음증에는 머리에서 땀이 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소음병인데 머리에 땀이 난다면 열 중에 아홉 명은 죽고 한 명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중경이 〈평맥법〉에서 '심은 화에 속하며 소음이라 부른다. 그 병은 머리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지만 머리에서 땀이 나면 죽는다.'고 한 것

입니다. 심은 수소음이고 신은 족소음입니다만, 서로 영향을 주어 병이 듭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장중경의 뜻을 헤아려보아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1. 陽 : ☰陰 ※문의상 ↗

2. 矣是 : ☰ ※大成本. 연문(衍字)이다. ↗

3. 及 : ☰反 ※《상한론》제283조(297) ↗

4. 陽 : ☰陰 ※《상한백증가》 ↗

5. 陰 : ☰陽 ※문의상 ↗

6. 火 : ☲少 ※〈평맥법〉 ↗

寒熱類傷寒證 八十

【80】한열을 동반한 유상한증

一尼病惡風, 體倦, 乍寒乍熱, 面赤心煩, 時或有汗. 他醫以傷寒溫瘧治之. 見其寒熱往來時, 方疫氣大作也. 大小柴胡雜進, 數日愈甚, 轉劇. 予診之曰: "兩手不受邪, 厥陰脈弦長而上魚際, 此非傷寒, 乃陰動不得陽也. 此正與倉公治一繡女病同." 投以抑陰等藥, 數日愈.

어떤 여승이 병들어 오통이 있고 몸이 나른하며 잠깐 추웠다 잠깐 열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땀이 났다. 어떤 의사가 상한온학으로 여겨 치료하였다. 이는 환자가 한열이 왕래할 때 마침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시호탕·소시호탕을 마구 주니 며칠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더니 극심해졌다. 내가 진찰한 후 "양쪽 손에 사기(邪氣)를 받은 맥이 없고 간맥(肝脈)이 현장(弦長)하여 어제혈까지 뻗으니 상한이 아닙니다. 음욕이 동하나 성교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공(倉公)이 치료한 궁녀의 병과 동일한 것입니다."고 하면서, 음욕을 누르는 약 등을 투여하니 며칠 만에 나았다.

論曰: 昔褚澄云: "治師尼寡婦, 別製方." 蓋有爲也. 師尼寡婦, 獨居怨曠, 獨陰而無陽, 欲心屢萌, 而不適其欲, 是以陰陽交爭, 乍寒乍熱, 虛汗倦怠, 全類溫瘧, 久久成癆瘵矣. 嘗記《史書》〈倉公傳〉載濟北王侍者繡女病, 腰背寒熱, 衆醫皆爲寒熱也. 倉公曰: "病得之, 欲男子而不可得也." "何以知之?" "診其脈, 肝部弦出寸口, 是以知也. 男子以精爲主, 女子以血爲主, 男子精溢則思室, 女子血盛則懷胎. 肝攝血者也, 今肝脈弦長上寸口及魚際, 則血盛欲男子之候也." 然則治師尼寡婦, 尤不可與尋常婦人一概論也.

〔논〕 옛날에 저징(褚澄)이 "여도사·여승·과부를 치료할 때는 처방을 달리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여도사·여승·과부는 홀로 지내면서 사내가 없는 것을 원망하는 사람들이니, 음기만 있고 양기가 없어서 욕망은 누차 싹트지만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음기와 상화가 서로 다투게 되어 잠깐 추웠다 잠깐 열이 나고 허한(虛汗)이 나며 몸이 나른하니 온학과 매우 비슷하며 이것이 오래되면 노채가 된다. 《사기》〈창공전〉에서 제북왕의 시녀인 궁녀가 병들어 허리와 등에 한열이 있었는데 모든 의사들이 외감으로 인한 한열로 여겼다고 기록한 게 생각난다. 창공이 "병이 난 것은 남자를 바라나 얻지 못해서입니다."고 하니,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라고 하여 "그 맥을 짚어보니 간맥(肝脈)이 현(弦)한 것이 촌맥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남자는 정(精)을 위주로 삼고 여자는 혈(血)을 위주로 삼습니다. 남자는 정이 넘쳐나면 성행위를 바라고 여자는 혈이 왕성하면 임신하기를 바랍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는데, 지금 간맥이 현장(弦長)하여 촌맥과 어제혈까지 뻗었습니다. 이는 혈이 왕성하여 남자를 바라는 징후입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도사·여승·과부를 치료할 때는 보통의 부인들과 동일하게 논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失汗衄血證 八十一

【81】땀을 내는 시기를 놓쳐 코피가 나는 병증

里人秦氏子得傷寒，發熱，身疼，骨節疼痛，惡風無汗。或者勸其不須服藥，待其自安。如是半月矣，而病不除，不得已，召醫治之。醫至問日數，又不審其脈與外證，但云已過期矣，不可汗下矣，且與調氣藥以正氣。復延予，予診其脈，浮澁而緊大，此麻黃證無疑者。但恐當汗不汗，化爲衄血，必有是證。言未已，衄血作。予急以麻黃湯與之，繼之以犀角地黃湯，血止汗解愈。

우리 마을 진 씨의 아들이 상한에 걸려 열이 나고 뼈마디는 물론 전신이 아프며 오풍이 들고 땀이 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 저절로 안정되길 기다리자고 권하였다. 이렇게 보름이 지났지만 병이 낫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치료할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와서 병이 걸린 일수는 물었지만 맥과 외증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고, 이미 시기가 지나 한법·하법을 쓸 수 없다고만 하면서 우선 기를 고르게 하는 약을 투여하여 기를 바르게 하려 하였다. 다시 나를 부르기에 내가 그 맥을 짚어보니 부삽(浮澁)하면서 긴대(緊大)하였다. 이것은 틀림없이 마황탕증이였다. 다만 땀을 내어야 할 때 땀을 내지 않으면 변화하여 코피가 되니 이러한 증상이 반드시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코피가 났다. 내가 급히 마황탕을 투여하고 이어서 서각지황탕을 쓰니 피가 멎고 땀이 나면서 나았다.

論曰：仲景云：“凡作湯藥，不可避晨夜，覺病須臾，即宜便治，不等早晚，則易愈。或稍遲，病即傳變，雖欲除，必難爲力。”今醫不究根源，執以死法，必汗之於四日之前，下之於四日之後，殊不知此惑也。又云：“病不服藥，猶得中醫。”此爲無醫而設也。若大小便不通，必待其自瘥乎？蓋前後不得洩，必下部腹脹，數日死矣。又況結胸、蓄血、發狂、發斑之類，未有勿藥而愈者。知者知變，患者執迷，以取禍也。須是隨病

淺深, 在表在裏, 或陰或陽, 早爲治療, 如救火及溺然, 庶易瘥. 《素問》云: "邪風之至, 疾如風雨. 故善治者, 治皮毛, 其次治肌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腑, 其次治五臟. 治五臟者, 半死半生也." 扁鵲望齊侯而逃, 其斯之謂歟!

〔논〕 장중경은 "탕약을 지을 때 새벽이나 밤을 가리지 말고 병이 있음을 지각하자마자 곧바로 치료를 하여 아침이나 저녁이 되길 기다리지 않아야 쉽게 치료가 된다. 혹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병이 곧 전변(傳變)되어 제거하려고 해도 반드시 어렵고 힘들게 된다."고 하였다. 요즘 의사들은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죽은 원칙에 집착하여 반드시 4일 이전에만 한법을 쓰고 4일 이후에만 하법을 쓰면서도, 이것이 미혹된 짓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병이 났을 때 약을 복용시키지만 알아도 보통 수준의 의료는 된다."고 한 것은 의사가 없을 경우를 위해 만든 말이다.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저절로 낫기를 기다려서야 되겠는가? 대소변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하복부가 창만해져 며칠 만에 죽게 된다. 하물며 결흉(結胸)、축혈(蓄血)、발광(發狂)、발반(發斑) 등은 약을 쓰지 않고 나은 경우가 없었다. 지혜로운 자는 변통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미혹된 것에 집착하여 화를 부른다. 반드시 병의 깊이、표리、음양에 따라 불구덩이에서 구해내듯이 물속에서 구해내듯이 조속히 치료해야만 쉽게 나올 것이다. 《소문》에서 "사풍(邪風)이 몸에 들어올 때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듯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므로 치료를 잘 하는 의사는 피모에 있을 때 치료하고, 그 다음은 기부(肌膚)에 있을 때 치료하며, 그 다음은 근맥에 있을 때 치료하고, 그 다음은 육부에 있을 때 치료하며, 그 다음은 오장에 있을 때 치료한다. 오장에 있을 때 치료할 경우에는 반은 죽고 반은 산다."고 하였다. 편작이 제환공(齊桓公)을 멀리서 보고 달아나버린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 같다.

脾約證 八十二

【82】비약증

一豪子郭氏, 得傷寒數日, 身熱, 頭疼, 惡風, 大便不通, 臍腹膨脹, 易數醫. 一醫欲用大承氣, 一醫欲大柴胡, 一醫欲用蜜導. 病家相知, 凡三五人, 各主其說, 紛然不定. 最後請予至, 問小便如何? 病家云: "小便頻數." 乃診六脈, 下及趺陽脈, 浮且澁. 予曰: "脾約證也, 此屬太陽陽明. 仲景云: '太陽陽明者, 脾約也.' 仲景又曰: '趺陽脈浮而澁, 浮則胃氣強, 澁則小便數, 浮澁相搏, 大便則鞭, 其脾爲約者.' 大承氣、大柴胡恐不當, 仲景法中麻仁丸不可易也." 主病親戚尙爾紛紛. 予曰: "若不相信, 恐別生他證, 請辭, 無庸召我." 坐有一人, 乃弟也, 逡巡曰: "諸君不須紛爭, 既有仲景證法相當, 不同此說何據? 某雖愚昧, 請終其說, 諸醫若何, 各請敘述." 衆醫默然, 紛爭始定. 予以麻仁丸百粒, 分三服, 食頃間盡. 是夕大便通, 中汗而解.

호족 곽 씨의 아들이 상한에 걸린 지 며칠이 지나도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오피이 있고 대변이 통하지 않으며 배꼽 부위가 부풀어 의사를 여러 명 바꾸었다. 어떤 의사는 대승기탕을 쓰려 하고 어떤 의사는 대시호탕을 쓰려 하며 어떤 의사는 밀전도법을 쓰려 하였다. 환자 집안과 서로 아는 3~5명이 각기 자기 설을 주장하여 의견만 분분한 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기에 그곳에 가서 소변이 어떠한지 물어보니,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육부맥을 짚고 아래로 부양맥을 짚어보니 부(浮)하면서 습(澁)하였다. 내가 "비약증(脾約證)이니 태양양명에 속합니다. 장중경은 '태양양명은 비약이다.'(sm/제179조(188))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맥이 부(浮)하면서 습(澁)한 경우, 부맥(浮脈)은 위기(胃氣)가 강한 것을 의미하고 습맥(澁脈)은 소변이 잦은 것을 의미한다. 부맥과 습맥이 동시에 나타나면 대변이 똥똥하니 비약이 된 것이다.'(sm/제247조(260))고 하였습니다. 대승기탕과 대시호탕은 적당하지 않은 듯하니, 장중경의 치법 중 마자인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으나, 환자의 친척들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였다. 내가 "만약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다른 병증이 별도로 생길까 염려되니 그만두고자 합니다. 저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환자의 동생이었다. 그가 멈칫대며 "여러분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장중경의 방증에 들어맞는데 이 말을 따르지 않고 어디에 근거하겠단 말입니까?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이 말을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떠한지 각자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못 의사들이 묵묵부답하여 다툼이 비로소 그쳤다. 나는 마자인환 100환을 3번에 나누어 한 식경 사이에 다 먹도록 하였다. 이 날 저녁에 대변이 통하고 땀이 나면서 병이 풀렸다.

論曰：浮者，風也；澁者，津液少也。小便頻數，津液枯竭，又燦之以風，是以大便堅鞭。乃以大黃朴硝湯劑蕩滌腸胃，雖未死，恐別生他證。嘗讀《千金方》論腳氣云：“世間人病，有親戚故舊，遠近問病，其人曾不經一事，未讀一方，騁騁詐作明能詭論，或言是虛，或言是實，或以爲風，或以爲蟲，或道是水，或道是痰，紛紛謬說，種種不同，破壞病人心意，莫知孰是，遷延未定，時不待人，忽然致禍，各自走散。凡爲醫者，要識病淺深，探¹方書，博覽古今，是事明辨。不爾，大誤人事。”識者宜知，以爲醫戒。

〔논〕 부맥(浮脈)은 풍(風)을 의미하고, 삽맥(澁脈)은 진액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소변이 자주 봐서 진액이 고갈되어 있는 데다가 풍(風)이 말리기 때문에 대변이 딱딱해진 것이다. 이에 대황·박초를 넣은 탕제로 장위(腸胃)를 씻어내면 죽지는 않더라도 다른 병증이 별도로 생길까 염려되는 것이다. 《천금방》에서 각기(腳氣)에 대해 "요즘 세상에 사람이 병들면 친척과 친구들이 여기저기 의사에게 병에 대해 묻는데, 그 의사는 그 병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한 가지 처방도 읽어보지 않고서 제멋대로 자신이 영민하고 능력 있다고 꾸며서 궤변을 늘어놓는다. 혹은 허증이라 하고 혹은 실증이라 하며 혹은 풍(風)이라 하고 혹은 충(蟲)이라 하며 혹은 수(水)라 하고 혹은 담(痰)이라 하여 잘못된 설이 분분하고 제각각으로 일치하지 않아 환자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누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리하여 시간만 끌 뿐 정하지 못하는데도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갑자기 환자가 죽게 되면 의사들은 각기 달아나 흩어져 버린다. 무릇 의사는 병의 깊이를 잘 알고 의서를 탐독하며 옛날과 지금 것을

두루 살펴 병마다 명확히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사를 크게 그르치게 된다."고 논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고서 의술을 행하는 데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頤 : 頤 蹟 ※문의상. 蹟(색) ←



格陽關陰證 八十三

【83】격양관음증

張養愚患傷寒八九日以上, 吐逆, 食不得入, 小便疰悶不通, 醫作胃熱而吐, 傳入膀胱, 則小便不通也. 予診其脈, 見寸上二溢, 而尺覆關中, 伏而不見. 乃斷之曰: "格陽關陰證也. 陽溢於上, 不得下行, 陰覆於下, 不得上達, 中有關格之病, 是以屢汗而不得汗也." 予投以透膈散, 三啜而吐止, 小便利而解.

장양우(張養愚)가 상한에 걸린 지 8~9일 이상이 되어 토하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며 소변이 울체되어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의사는 위열(胃熱) 때문에 토하는 것이고 방광에 들어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내가 그 맥을 짚어보니 촌맥이 2배로 넘치고 척맥은 관맥 밑으로 잠복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격양관음증(格陽關陰證)입니다. 양기는 위로 넘쳐나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음기는 아래에서 잠복하여 위로 도달하지 못하니 중간에서 관격이 된 병입니다. 이 때문에 누차 땀을 내어도 땀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고 하였다. 내가 투격산을 투여하여 3번을 복용하니 구토가 그치고 소변이 잘 나오면서 병이 풀렸다.

論曰: 或問: "何謂格陽關陰?" 答曰: "《難經》云: '關以前動者, 陽之動也, 脈當見九分而浮,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遂入尺爲覆, 爲內關外格, 此陰¹乘之脈也.' 又曰: '陰氣太盛, 陽氣不得營, 故曰關; 陽氣太盛, 陰氣不得營, 故曰格; 陰陽俱盛, 不能相營也, 故曰關格. 關格者, 不得盡期而死矣.' 《素問》曰: '人迎, 四盛以上, 爲格陽; 寸口, 四盛以上, 爲關陰; 人迎與寸口, 俱盛四倍以上, 爲關格.' 仲景云: '在尺爲關, 在寸爲格, 關則小便不利, 格則吐逆.' 又: '趺陽脈浮²而澁, 伏則吐逆, 水穀不化, 澁則食不得入, 名曰關格.' 由是言之, 關脈沈伏而澁, 尺寸有覆溢者,

關格病也. 何以言之? 天氣下降, 地氣上升, 在卦爲泰, 泰者, 通也. 天氣不降, 地氣不升, 在卦爲否, 否者, 閉也. 今陽不降, 上魚際爲溢, 故其病吐逆, 名爲外格. 陰不得上浮, 入尺爲覆, 故其病小便不通, 爲內關. 此關格之異也.

〔논〕 누군가가 "무엇을 격양관음(格陽關陰)이라고 합니까?"라고 물어 "《난경》에서 '관부(關部) 앞에서 뛰는 것은 양기가 박동하는 것이니, 맥상은 마땅히 9푼의 촌맥이 부(浮)하게 나타나야 한다. 지나친 것은 이치상 태과(太過)라 하고 모자라는 것은 이치상 불급(不及)이라 한다. 척부(尺部)로 깊이 들어가면 내관외격(內關外格)이 되니, 이것은 양기가 올라탄 맥이다.' [제3난] 고 하였습니다. 또한 '음기가 너무 왕성하면 양기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관(關) [닫는다] 이라 하고, 양기가 너무 왕성하면 음기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격(格) [밀친다] 이라 하며, 음양이 모두 왕성하면 서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관격(關格)이라 한다. 관격이 되면 천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영추》〈맥도脈度〉] 고 하였습니다. 《소문》에서는 '인영맥이 정상보다 4배 이상이면 격양(格陽)이 되고, 촌구맥이 정상보다 4배 이상이면 관음(關陰)이 되며, 인영맥과 촌구맥이 모두 정상보다 4배 이상이면 관격(關格)이 된다.' [《소문》〈육절장상론편六節藏象論篇〉] 고 하였습니다. 장중경은 '척맥이 부대(浮大)한 경우는 관(關)이고 촌맥이 부대한 경우는 격(格)이니, 관이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격이면 구토를 한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맥이 복(伏)하면서 삽(澁)한 경우에 복하면 토하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며 삽하면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니, 이를 일러 관격이라 한다.' [〈평맥법〉] 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말하면 관맥이 침복(沈伏)하면서 삽(澁)하고 척맥과 촌맥에 복맥(覆脈)과 일맥(溢脈)이 있는 것이 관격병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천기가 하강하고 지기가 상승하는 것이 궤에서는 태괘(泰卦)에 해당하니 태(泰)는 통한다는 뜻입니다. 천기가 하강하지 못하고 지기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 궤에서는 비괘(否卦)에 해당하니 비(否)는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양기가 하강하지 못하고 어제혈까지 넘치기 때문에 병들어 구토를 하

니 외격(外格)이라 합니다. 음기가 위로 뜨지 못하고 척부(尺部)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으로 소변이 통하지 않으니 내관(內關)이라 합니다. 이것이 관·격의 차이입니다."고 대답하였다.

1. 陰 : ☵陽 ※《난경》↩

2. 浮 : ☱伏 ※《평맥법》↩



太陽陽明合病證 八十四

【84】태양양명합병증

有豪子病傷寒，脈浮而長，喘而胸滿，身熱頭疼，腰脊強，鼻乾，不得眠。予曰：“太陽陽明合病證。仲景法中有三證：下利者，葛根湯；不下利嘔逆者，加半夏；喘而胸滿者，麻黃湯也。”治以麻黃湯，得汗而解。

어떤 호족의 자제가 상한에 걸려 맥이 부(浮)하면서 장(長)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이 그득하며 몸에 열이 있고 머리에 동통이 있으며 등허리가 뻐뻐하고 콧속이 건조하며 잠에 들 수가 없었다. 내가 "태양양명합병증입니다. 이 병에 대한 장증경의 치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갈근탕을 쓰고, 설사를 하지 않고 구역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하를 더하며,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이 그득한 경우에는 마황탕을 씁니다."고 하였다. 마황탕으로 치료하니 땀이 나면서 병이 풀렸다.

論曰：或問：“傳入之次第，自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何哉？”說者謂：“陽主生，故足太陽水傳足陽明土，土傳足少陽木，爲微邪。陰主殺，故太陰土傳少陰水，水傳足厥陰木，爲賊邪。”少陰水傳厥陰木，安得爲賊也？故予以爲不然。《素問》〈陰陽離合論〉云：‘太陽根起于至陰，結於命門，名曰陰中之陽。陽明根起于厲兌，名曰陰中之陽。少陽根起于竅陰，名曰陰中之少陽。太陰根起于隱白，名曰陰中之陰。少陰根起于涌泉，名曰陰中之少陰。厥陰根起于¹火¹敦，名曰陰中之絕陰。’大抵傷寒，始因中之氣得之於陰，是以止傳足經者，是陰中之陽，陽中之陰，亦自然之次第也。故此篇，因黃帝問三陰三陽之離合，岐伯自聖人南面而立，前曰廣明而推之，且以太陽爲開，陽明爲闔，少陽爲樞，太陰爲開，厥陰爲闔，少陰爲樞，六經不得相失，則其序有授矣。不特此也，以六氣在天而考之，厥陰爲初之氣，少陰爲二之氣，太陰

爲三之氣, 少陽爲四之氣, 陽明爲五之氣, 太陽爲六之氣, 此順也. 逆而言之, 則太陽而後陽明, 陽明而後少陽, 少陽而後太陰, 太陰而後少陰, 少陰而後厥陰. 傷寒爲病, 在氣則逆而非順, 自太陽而終厥陰也.

〔논〕 어떤 사람이 "전입하는 순서가 태양에서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궤음인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묻자, 누군가가 "양은 살리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족태양수에서 족양명토로 전해지고 족양명토에서 족소양목으로 전해지니, 이것은 경미한 사기(邪氣)입니다. 음은 죽이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족태음토에서 족소음수로 전해지고 족소음수에서 족궤음목으로 전해지니, 이것은 위중한 사기(邪氣)입니다."고 답하였다. 족소음수에서 족궤음목으로 전해지는데 어찌 위중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문》〈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에서 '태양은 지음(至陰)에서 시작하여 명문(命門)에서 끝나니 음 가운데 양이라 합니다. 양명은 여태(厲兌)에서 시작하니 음 가운데 양이라 합니다. 소양은 규음(巽陰)에서 시작하니 음 가운데 소양이라 합니다. 태음은 은백(隱白)에서 시작하니 음 가운데의 음이라 합니다. 소음은 용천(涌泉)에서 시작하니 음 가운데 소음이라 합니다. 궤음은 대돈(大敦)에서 시작하니 음의 절음(絶陰)이라 합니다.'고 하였다. 대개 상한은 음사(陰邪)에 적중되어 발병하기 때문에 족경(足經)에만 전입한다. 이러한 '음 가운데 양'이나 '양 가운데 음' 역시 자연이 운행되는 순서이다. 그러므로 이 편에서 황제가 삼음 삼양의 이합(離合)에 대해 묻자, 기백은 "성인이 남쪽을 바라보고 서니 앞을 광명(廣明)이라 한다."는 것에서부터 설명해 나갔다. 또한 "태양은 열고 양명은 닫으며 소양은 지도리가 됩니다. 태음은 열고 궤음은 닫으며 소음은 지도리가 됩니다."고 하면서 육경이 서로 조화를 잃지 않으면 순서에 따라 전해진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늘의 육기를 생각해보면 궤음은 초지기(初之氣)이고 소음은 이지기(二之氣)이며 태음은 삼지기(三之氣)이고 소양은 사지기(四之氣)이며 양명은 오지기(五之氣)이고 태양은 육지기(六之氣)이니 이것이 바른 순서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태양 다음이 양명이고, 양명 다음이 소양

이며, 소양 다음이 태음이고, 태음 다음이 소음이며, 소음 다음이 궤음이다. 상한은 육기로 인해 병드는 것이니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뒤집혀서 전입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시작하여 궤음에서 끝나는 것이다.

1. 火 : 大 ※《소문》↩



懊懷怫鬱證 八十五

【85】오뇌불울증

士人陳彥夫, 病傷寒八九日, 身熱, 無汗, 喜飲, 時時譫語. 因下利後, 大便不通三日, 非煩非躁, 非寒非痛, 終夜不得眠, 但心沒曉會處, 或時發一聲, 如嘆息之狀. 醫者不曉是何證, 但以寧心寬膈等藥, 不效. 召予診視, 兩手關脈長, 按之有力, 乃曰: "懊懷怫鬱證也. 此胃中有燥屎, 宜與承氣湯." 服之, 下燥屎二十枚, 次復下溏糞, 得利而解.

선비 진언부(陳彥夫)가 상한에 걸린 지 8~9일이 되어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물을 켜고 때때로 헛소리를 하였다. 설사를 시킨 뒤 대변이 3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 번증(煩證)도 아니고 조증(躁證)도 아니며 춥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밤새도록 잠에 들 수 없었다. 다만 가슴속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가끔씩 탄식 같은 소리를 한 번씩 내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무슨 병증인지 알지 못하여 단지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약 등을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 나를 불러 진찰해보니 양쪽 손의 관맥이 장(長)하고 눌러보면 유력하였다. 이에 "오뇌불울증입니다. 이것은 위(胃) 속에 조시(燥屎)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기탕을 투여해야 합니다."고 하였다. 대승기탕을 복용하니 조시 20개가 나온 후 다시 묽은 변이 나와 설사를 하고는 병이 풀렸다.

論曰: 仲景云: "陽明病下之, 心中懊懷而微煩, 胃中有燥屎, 可攻, 宜承氣湯." 又云: "病者小便不利, 大便乍難乍易, 時有微熱, 怫鬱不得眠者, 有燥屎也, 承氣湯主之." 蓋屎在胃, 則胃不和. 《素問》曰: "胃不和, 則臥不安." 此所以夜不得眠也. 仲景云: "胃中燥, 大便堅者, 必譫語." 此所以時時譫言也. 非煩非躁, 非寒非痛, 所謂心中懊懷也. 聲口嘆息, 而時發一聲, 所謂水(土)水¹氣怫鬱也. 燥屎得除, 大便通利, 陰陽交和, 是以其病得除.

〔논〕 장중경은 "양명병에 공하를 했는데 가슴속이 몹시 답답하면서〔心中懊懷〕 약간 달아오르는 경우는 위(胃) 속에 조시(燥屎)가 있는 것이니 공하할 만하다. 대승기탕을 써야 한다."〔sm/제238조(250)〕고 하였다. 또한 "환자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은 보기 어려웠다 쉬웠다 하며 때로 미열이 있고 매우 답답하여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는 조시가 있기 때문이니 대승기탕으로 주치한다."〔sm/제242조(254)〕고 하였다. 조시가 위(胃)에 있으면 위(胃)가 조화롭지 못한 것이다. 《소문》에 "위가 조화롭지 못하면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밤에 잠을 들지 못한 이유이다. 장중경은 "위(胃) 속이 건조하고 대변이 딱딱한 경우에는 반드시 헛소리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ی 때때로 헛소리를 한 이유이다. 번증(煩證)도 아니고 조증(躁證)도 아니며 춥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것은 이른바 가슴속이 몹시 답답한 것〔心中懊懷〕이다. 탄식소리를 내되 때때로 한 번씩 내는 것은 이른바 토기가 울체되어 솟구치는 것이다. 조시를 제거하면 대변이 잘 소통되고 음양이 서로 조화되니 이 때문에 그 병이 나은 것이다.

1. 水 : 문의상 '土'가 되어야 한다. 번역은 이를 따랐다. ←

兩手撮空證 八十六

【86】두 손으로 허공을 움켜쥐는 병증

市人張某, 年可四十, 病傷寒, 大便不利, 日晡發熱, 手循衣縫, 兩手撮空, 目直視急, 更三醫矣. 皆曰: "傷寒最惡證也, 不可治." 後召予, 予不得已往診之, 曰: "此誠惡候, 染此者, 十中九死. 仲景雖有證而無治法, 但云: '脈弦者生, 澁者死.' 況經吐下, 難於用藥, 謾以藥與, 若大便得通, 而脈强者, 庶可料理也." 遂用小承氣湯與之, 一投而大便通利, 諸疾漸退, 脈且微弦, 半月得痊.

나이 40가량의 상인 장 씨가 상한에 걸려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해 질 무렵에 열이 나며 손으로 옷의 솔기를 만지작거리고 두 손으로 허공을 움켜쥐고 눈을 부릅뜬 채 앞쪽만 보아 이미 의사를 세 명이나 바꾸었다. 그 의사들은 모두 "상한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증후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훗날 나를 부르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살펴본 후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증후입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열에 아홉이 죽습니다. 장중경은 이러한 증상에 대해 기록하면서 치법을 남기지 않고 다만 '맥이 현(弦)하면 살고 삽(澁)하면 죽는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토법과 하법을 썼기 때문에 약을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저 약을 투여해서 대변이 통하고 맥이 강해진다면 치료될 것 같습니다."고 하면서, 곧바로 소승기탕을 투여하였다. 1번 복용하니 대변이 잘 소통되고 모든 증상이 점차 사라지며 맥도 약간 현(弦)해졌다. 보름 후에 나왔다.

論曰: 或問: "下之而脈得弦者生, 何也?" 答曰: "《金匱玉函經》云: '循衣摸床, 妄撮, 怵惕不安, 微喘直視, 脈弦者生, 澁者死. 微者但發熱譫語, 承氣湯與之.' 余嘗觀錢仲陽《小兒訣法》, 手循衣領, 及亂捻物者, 肝熱也, 此證《玉函》列在陽明部. 陽明, 胃也, 肝有邪熱, 淫於胃經, 故以承氣湯瀉肝. 而得強脈, 則平而和, 胃且堅不受, 此百生之理也. 予嘗謂: '仲景論: 不通諸醫書以發明隱奧, 而專一經者, 未見其能也.' 須以古今方書, 發明仲景餘意."

〔논〕 누군가가 "공하를 하고 나서 맥이 현(弦)해지면 사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묻기에, "《금궤옥함경》에서 '옷을 만지작거리고 침상을 더듬으며 아무거나 움켜쥐고 두려워 불안해하며 숨을 약간 헐떡이고 앞만 바라보는 경우에 맥이 현(弦)하면 살고 삼(澁)하면 죽는다.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는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니 대승기탕을 투여한다.'(sm/제212조(225))고 하였습니다. 전중양(錢仲陽)의 《소아약증직결小兒藥證直訣》을 읽어보니 손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물건을 마구 잡는 것은 간열(肝熱)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병증은 《금궤옥함경》〈양명병〉편에 실려 있습니다. 양명은 위(胃)입니다. 간(肝)에 사열(邪熱)이 있으면 위경(胃經)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대승기탕을 써서 간의 사열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이 강해지면 조화롭게 되고 위(胃)도 건실해져서 사기를 받지 않으니, 이것이 반드시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전에 장중경이 '온갖 의서에 정통하여 깊이 숨어있는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한 가지 의서만 전념하고도 능숙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드시 고금의 여러 의서에 정통하여 장중경이 드러내지 않은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下利服承氣湯證 八十七

【87】설사에 소승기탕을 복용하는 병증

客有病傷寒, 下利, 身熱, 神昏多困, 譫語, 不得眠. 或者見其下利, 以譫語爲鄭聲, 皆陰虛證也. 予診其脈曰: "此承氣湯證也." 衆皆愕然曰: "下利服承氣, 仲景法乎?" 答曰: "仲景云: '下利而譫語者, 有燥屎也, 屬小承氣湯.'" 乃投以小承氣, 得利止, 而下燥屎十二枚, 俄得汗解.

어떤 나그네가 상한에 걸려 설사하고 몸에 열이 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몹시 노곤하며 헛소리를 하고 잠에 들지 못하였다. 어떤 의사는 환자가 설사하는 것을 보고 헛소리 하는 것(譫語)을 정성(鄭聲)이라 여겨 모두 음허증이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맥을 짚어본 후 "이것은 승기탕증입니다."고 하니, 사람들은 모두 놀라 "설사하는데 승기탕을 복용하는 것이 장중경의 치법입니까?"라고 하기에, "장중경은 '설사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는 조시가 있어서이니 소승기탕 증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소승기탕을 투여하니 설사가 멈추고 조시 12개가 나오며 갑자기 땀이 나면서 병이 풀렸다.

論曰: 《內經》云: "微者逆之, 甚者從之, 逆者正治, 從者反治, 從少從多, 觀其事也. 帝曰: '何謂反治?' 岐伯曰: '寒因寒用, 通因通用.'" 王冰以爲: "大熱內結, 注瀉不止, 熱宜寒療, 結伏須除, 以寒下之, 結散利止, 此寒因寒用也." 小承氣止利, 正合此理.

〔논〕《내경》에서 "미약한 것은 역치(逆治)로 다스리고, 심한 것은 종치(從治)로 다스린다. 역(逆)이란 정치(正治)를 말하고 종(從)이란 반치(反治)를 말한다. 약물의 다소는 그 상황에 따른다. 황제가 '무엇을 반치(反治)라 합니까?'하고 질문하니, 기백이 '가한증(假寒證)에 한(寒)한 약을 쓰고 설사하는데 설사시키는 약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왕빙은 "고열이 안에서 났혀 설사가 그치지 않을 경우 열증이니 한(寒)한 약으로 치료해야 한

다. 땀히고 잠복한 열을 제거해야 하니 한(寒)한 약으로 설사시키면 땀힌 것이 흠어지고 설사가 그치게 된다. 이것이 가한증(假寒證)에 한(寒)한 약을 쓰는 것이다."고 하였다. 소승기탕이 설사를 그치게 한 것은 이러한 이치에 부합한다.



濕溫證 八十八

【88】습온증

丙午歲, 商人張皓, 季夏得疾, 胸項多汗, 四肢時冷, 頭痛, 譫語. 予診其脈, 關前濡, 關後數, 斷曰: "當作濕溫治. 蓋先受暑, 後受濕, 暑濕相搏, 是謂濕溫." 投以白虎加參, 次以白虎蒼朮, 頭痛漸退, 足漸溫, 汗漸止, 數日愈. 此病名賊邪, 誤服藥則死.

병오년(1126) 늦여름에 상인 장호(張皓)가 병에 걸려 가슴과 목덜미에 땀이 많이 나고 사지가 때로 차가우며 머리가 아프고 헛소리를 하였다. 내가 맥을 짚어보니 촌맥은 유(濡)하고 척맥은 삭(數)하여 "습온(濕溫)으로 보고 치료해야 합니다. 서사(暑邪)를 먼저 받고 다음으로 습사(濕邪)를 받아서 서와 습이 서로 뭉친 것이니 이것을 습온이라고 합니다."고 단정지어 말하였다. 백호가인삼탕을 투여하고 다음으로 백호가창출탕을 투여하니 두통이 점차 사라지고 발이 점차 따뜻해지며 땀이 점차 멎어 며칠 만에 나았다. 이 병은 적사(賊邪) [위중한 사기邪氣] 때문이니 약을 잘못 복용하면 죽는다.

論曰: 或者難云: "何謂賊邪?" 予曰: "《難經》論五邪, 有實邪、虛邪、正邪、微邪、賊邪. 從後來者爲虛邪, 從前來者爲實邪, 從所不勝者爲賊邪, 從所勝者爲微邪, 自病者爲正邪. 又曰: '假令心病, 中暑者爲正邪, 中濕得之爲賊邪.' 今心先受邪, 而濕勝之, 水克火, 從所不勝, 斯爲賊邪, 五邪之最逆者也. 《難經》有云: '濕溫之脈, 陽濡而弱, 陰小而急.' 濡弱見於陽部, 濕氣搏暑也; 小急見於陰部, 暑氣濕蒸也. 故《經》曰: '暑濕相搏, 名曰濕溫, 是爲賊邪也.'"

[논] 누군가가 "왜 적사(賊邪)라고 합니까?"라고 따져 묻기에, 내가 "《난경》에서 5사(邪)를 논하여 실사(實邪)、허사(虛邪)、정사(正邪)、미사(微邪)、적사(賊邪)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생성해 주는 곳에서 온 것이 허사이고, 자기가 생성해 주는 곳에서 온 것이 실사이며, 자기를 이기는 곳에서 온 것이 적사이고, 자기가 이기는 곳에서 온 것이 미사이며, 스스로 병이 난 것을 정사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령 심병(心病)이 서사(暑邪)가 침범하여 생겼으면 정사이고, 습사(濕邪)가 침범하여 생겼으면 적사이다.'고 하였습니다. [제50 난] 지금 심(心) [心 : 火] 이 먼저 사기(邪氣)를 받고 습사 [濕 : 水] 가 침입하였습니다. 수(水)가 화(火)를 극한 것이라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서 왔으니 이것은 적사인 것입니다. 5사 가운데 가장 위중한 역증(逆證)입니다. 《난경》에서 또 '습온의 맥은 양맥 [촌맥] 이 유(濡)하면서 약(弱)하고 음맥 [척맥] 이 소(小)하면서 급(急)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약(濡弱)한 맥이 촌부에 보이면 습기가 서기(暑氣)와 뭉쳤다는 의미이고, 소급(小急)한 맥이 척부에 보이면 서기로 인해 습기가 혼증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경》에서 '서기와 습기가 서로 뭉친 것을 습온이라고 하니 이것은 적사이다.'고 하였습니다."고 대답하였다.

血結胸證 八十九

【89】혈결흉증

丁未歲，一婦患傷寒，寒熱，夜則譫語，目中見鬼，狂躁不寧。其夫訪予，詢其治法。予曰：“若經水適來適斷，恐是熱入血室也。”越日亟告曰：“已作結胸之狀矣。”予爲診之曰：“若相委信，急行小柴胡湯等必愈。前醫不識，涵養至此，遂成結胸證，藥不可及也。無已，則有一法，刺期門穴，或庶幾愈。”如教而得愈。

정미년(1127)에 어떤 부인이 상한에 걸려 한열이 왕래하고, 밤이면 헛소리를 하고 눈에 귀신이 보이며 미친 듯이 조급하여 편안해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나를 찾아와서 치법을 물었다. 나는 "만약 발병 시기가 월경이 막 시작된 때거나 막 끝나는 때였다면 아마도 열이 혈실(血室)에 들어간 것입니다."고 하였다. 며칠이 지나 "이미 결흉의 증상이 보입니다."고 급히 알려왔다. 내가 진찰한 후 "만약 나를 믿고 급히 소시호탕 등을 썼다면 반드시 나았을 겁니다. 이전 의사가 이것을 알지 못해 병을 키웠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러 결국 결흉증이 된 것이니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하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기문혈에 자침하면 혹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고 하였더니, 내 가르침대로 하여 나았다.

論曰：或問：“熱入血室，何爲而成結胸？”予曰：“邪入經絡，與正氣相搏，上下流行，或遇經水適來適斷，邪氣乘虛而入血室。血與邪迫，上入肝經，肝既受邪，則譫語如見鬼。肝病則見鬼，目昏則見鬼。復入膈中，則血結於胸也。何以言之？蓋婦人平居，經水常養於目，血常養肝也。方未孕，則下行之以爲月水；既妊娠，則中蓄之以養胎；及已產，則上壅，得金化之以爲乳。今邪逐之併歸肝經，聚於膈中，壅於乳下，非刺期門以瀉，不可也。期門者，肝之膜原。使其未聚於乳，則小柴胡尚可行之；既

聚於乳, 小柴胡不可用也. 譬如凶盜行於閭里, 爲巡邏所迫, 寡婦・處女, 適啟其門, 突入其室, 婦女爲盜所迫, 直入隱奧以避之. 盜躡其蹤, 必不肯出, 乃啟孔道以行誘焉, 庶幾其可去也. 血結於胸, 而刺期門, 何以異此?"

〔논〕 누군가가 "열이 혈실(穴室)에 들어갔는데 어째서 결흉이 된 것입니까?"라고 묻기에, 내가 "사기(邪氣)가 경락에 들어가면 정기와 서로 맞부딪혀 위아래로 흘러 다니는데, 혹 월경이 막 시작하거나 막 그치는 때라면 사기가 허(虛)한 틈을 타고 혈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이 사기와 맞부딪힌 후 위로 간경(肝經)에 들어가 간이 사기를 받으면 귀신을 본 듯이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간이 병들면 귀신이 보이는 것은 눈이 침침하여 귀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단중(膻中)에 들어가면 혈이 가슴에 뭉치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부인들은 평소에 월경으로 나오는 혈이 늘 눈을 자양하고 혈은 늘 간을 자양합니다. 임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로 내려가 월경이 되고, 임신한 뒤에는 가운데에 쌓여 태아를 영양하며, 아이를 낳고 나면 위쪽에 모여 폐금(肺金)의 도움으로 변화해서 젖이 됩니다. 지금 사기가 혈을 몰아 간경으로 함께 들어가고 단중에 모이며 유방 아래에 쌓였으니 기문혈에 자침하여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문혈은 간의 모혈입니다. 사혈이 유방에 모이지 않았다면 소시호탕을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유방에 모이면 소시호탕을 쓸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흉포한 도둑이 마을에 돌아다니다가 순찰하던 병사에게 쫓길 때 과부나 처녀가 마침 그 집 문을 열어서 도둑이 갑자기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니 부녀가 도둑에게 쫓겨 곤장 은밀한 곳에 들어가 피한 꼴입니다. 도둑은 부녀의 종적을 쫓아가 필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통로를 열어서 유인해야만 도둑이 떠날 것입니다. 혈이 가슴에 뭉쳐 기문혈에 자침하는 것이 이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六陽俱絕證 九十

【90】육양경의 기가 모두 끊긴 병증

一達官乘舟急歸，四月風雨，飲食不時，得疾如傷寒狀，頭重自汗，身體悉疼。醫作中風濕證治，投以朮附、薑附等湯，汗不止。單服附子及灸臍下，亦不止。予往視之，曰：“六陽俱絕，不可治也。其汗必如珠。”驗之果然，半時卒。

어떤 고위 관리가 배를 타고 급히 돌아갈 때 음력 4월의 비바람을 맞고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해 상한 같은 병에 걸려 머리가 무겁고 자한이 나며 온몸이 아팠다. 의사는 중풍습증이라 보고 치료하여 백출부자탕·건강부자탕 등을 투여하였지만 땀이 멎지 않았다. 부자만 복용시키고 배꼽 아래에 뜸을 떠봤는데도 땀이 멎지 않았다. 내가 가서 살펴본 후 "육양경(六陽經)의 기가 모두 끊겼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필시 땀이 구슬처럼 날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다가 1시간 후에 죽었다.

論曰：《難經》云：“六¹俱氣俱絕者，陰與陽相離，陰陽相離則腠理開，絕汗乃出。汗出如珠，轉而不流，夕占旦死，旦占夕死。”此之謂也。蓋病者之汗，有陽盛陰虛，陰盛陽虛。陽盛者，如骨蒸熱病之汗，則流溢如潤。陽絕者，如此證，則凝聚而止。假如甑桶之蒸物，出汗而散者，陽盛之類也。假如置冰於金銀瓦器中，汗出而凝聚不流，陽絕之證也。

〔논〕《난경》에서 "육양경의 기가 모두 끊어지면 음기와 양기가 서로 떨어지고 음기와 양기가 서로 떨어지면 주리가 열려 절한(絶汗)이 나온다. 절한은 땀이 구슬처럼 맺힐 뿐 흐르지는 않는다. 저녁에 이러하면 아침에 죽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아침에 이러하면 저녁에 죽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제24난] 고 한 것이 이 병증을 말한 것이다. 대개 환자가 땀이 나는 것은 양이 성하고 음이 허한 경우와 음이 성하고 양이 허한 경우가 있다. 양이 성한 경우는 골증(骨蒸)이나 열병(熱病) 등에 나는 땀이니 흘러넘쳐 촉촉하다. 이 병증처럼 양이 끊어진

경우에는 맺힐 뿐 흐르지 않는다. 가령 시루에 무언가를 찌면 김이 나와서 흠
어지니 이것은 양이 성한 것과 비슷하다. 가령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에 얼음
을 놓으면 물방울이 맺히기만 할 뿐 흐르지 않으니 이것은 양이 끊어진 것과
비슷하다.

1. 俱 : 六陽 ※《난경》↔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상한구십론 傷寒九十論

원저자 : 허숙미 許叔微

국역 : 박상영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박상영(이)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박상영(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2020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디자인·이미지·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ISBN : 978-89-5970-469-9

